

양 취 경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200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경란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양 취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김경란

# 인 준 서

김경란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심사위원 \_\_\_\_\_ 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21세기는 전자정보의 진보에 의한 나라간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 경계의 제거는 문화 현상에서 즉시 나타났는데, 주류 문화가 없이 모든 국가와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각 국가 및 민족의 고유문화가 아닌 이(異) 문화간의 교류와 결합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했다. 곧 다문화시대 (Multiculture)가 도래하였다.

20세기에도 여러 문화가 공존했었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했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인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의 내렸다. 예컨대 서구의 시각으로 동양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불렀다.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주변문화, 변두리 문화가 주류문화를 변방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적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단일의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되지 못하고 모든 가치들이 단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합, 병치,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고자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하이브리드라고 개념화 시켰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 고찰하되, 사회과학에서 문화갈등 극복이론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문화’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로서의 하이브리드가 21세기 패션컬렉션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해석하고 다문화 사회안에서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여, 현대사회가 다문화주의 아래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하이브리드임을 밝히는 것이다.

즉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과학, 생물, 공학, 철학에서 조형 예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21세기의 현대패션과 메이

크업에는 어떠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패션 및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하이브리드임을 인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의의와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하였고,

2장에서는 다문화의 개념과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패션보다 먼저 적용되었던 다른 장르의 현상을 살펴보고, 하이브리드와 메이크업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 보았다.

3장에서는 다문화시대 패션의 특징으로 먼저 하이브리드의 출연 배경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과학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대중문화에서 하이브리드 현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21세기 패션 컬렉션을 분류하였다.

4장에서는 패션에 적용한 5가지 분류방법으로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표현 유형을, 동서양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통적 메이크업,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뱀프 메이크업과 캐포츠 메이크업,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21세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을 분류하였다.

3장, 4장에서 분류한 대립되는 5유형에서 서양, 상류, 주류, 현재의 개념은 현재 패션 트렌드의 고전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그 특징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다.

5장에서는 패션의 하이브리드 경향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경향으로 분류된 5가지 유형을 표로 나타내고 패션과 메이크업과 연결시켜 그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6장에서는 21세기 패션 컬렉션에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의 특징과 패션과 메이크업의 관계성에 대해 결론과 제언으로 도출했다.

연구의 범위는 2002년 S/S-2005년 S/S로 설정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다른 두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을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오리엔탈, 크로스오버, 퓨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다문화주의라는 전제가 변화하여 이전의 다른 스타일간의 결합보다 확대된 방식(2가지 이상의 단편화된 동질적 혹은 이질적으로 조합되는 현상)의 결합이기에 새로운 용어인 하이브리드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2002년부터의 변화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경향 분석을 위한 자료로서는 2002-2005 Paris-Milano Collection, Gap Collection 등의 잡지와 동아TV, 퍼스트 뷰(<http://www.firstview.com>),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이보그 (<http://www.vogue.co.kr>) 등의 인터넷의 자료를 선택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다문화 및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대한 선행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다문화와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문화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주류 사조로 자리 잡은 하이브리드 개념 하에서,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분류하고 패션분석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21세기의 패션과 메이크업 경향을 하이브리드 현상을 중심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즉 하이브리드 현상을 21세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보고 패션에서 하이브리드의 출현배경을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현상에 대해 살펴본 후, 다문화시대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패션과 메이크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전 시기의 하이브리드 범주에 속하는 트렌드들이 다문화시대에는 어떠한 트렌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성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과정과 방법을 통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21세기의 경

향인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 현상을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유형은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등 5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세기는 한 문화권 내지 문화계층에 중심을 두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이분법,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는 이분법, 고급예술의 시각에서 고급과 팝-아트로 나누는 이분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는 다양한 문화권과 문화계층도 패션경향에서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21세기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은 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니라,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곧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이브리드 표현 양상은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넷째,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로 인한 트렌드가 메이크업 트렌드와의 완전한 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이 인간의 외형미를 표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트렌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크업이 코디에서 패션의 부속, 보조적인 역할로 항상 패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현상을 통해 불협화음과 같이 나타나는 장르와 장르, 트렌드와 트렌드의 혼합과 병치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 해석의 코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라는 커다란 장르가 이미 많은 분야와 혼합된 이후에, 21세기의 다문화주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어울리지 않으며 조합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어울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는 다문화시대의 복잡한 패션과 메이크업의 트렌드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후속 연구로 패션과 메이크업만이 아닌 헤어가 포함된 패션 코디네이션의 영역으로 확장된 하이브리드 현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 론 .....	1
1. 연구 의의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및 내용 .....	5
II. 이론적 배경 .....	10
1. 다문화의 개념 .....	10
2. 하이브리드의 개념 .....	17
3.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역사적 배경 .....	24
III.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	32
1. 하이브리드 패션 .....	32
2. 하이브리드 패션의 분류 .....	42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 .....	44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 .....	58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	70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	77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패션 .....	85
IV. 다문화시대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91
1.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91
2.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의 분류 .....	97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98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06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16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23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28
 V. 다문화시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 비교분석 .....	 137
 VI. 결론 및 제언 .....	 144

참고 문헌

ABSTRACT

도 록

## 표 목 차

<표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	57
<표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	69
<표3>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	76
<표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	84
<표5>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분석 .....	135
<표6> 하이브리드 패션 양상 .....	141
<표7>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양상 .....	142
<표7>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양상 .....	143

## 그림 목차

<그림 1> 다문화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계통도 .....	8
<그림 2> 본 연구의 구성도 .....	9
<그림 3> <Collaboration형태의 구조모형> .....	40
<그림 4> 장 폴 고티에의 뽕을 소재로 한 전시 1 .....	162
<그림 5> 장 폴 고티에의 뽕을 소재로 한 전시 2 .....	162
<그림 6> 장 폴 고티에의 뽕을 소재로 한 전시 3 .....	162
<그림 7>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동양풍 의상 .....	162
<그림 8>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문화 .....	163
<그림 9> 상의의 트임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	164
<그림 10> 2002 F/W Collection 중국 전통복 디테일 .....	164
<그림 11> 2003 S/S Collection .....	164
<그림 12> 치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5
<그림 13> 치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5
<그림 14> 화려한 컬러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5
<그림 15> 중국의 화려한 수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6
<그림 16> 중국 서민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6
<그림 17> 창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6
<그림 18> 오비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	167
<그림 19> 오비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	167
<그림 20> 전통 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7
<그림 21> 오비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8
<그림 22> 동양풍의 모자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8
<그림 23> 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	168
<그림 24> 보를 이용한 디자인 .....	169
<그림 25> 나전칠기를 이용한 디자인 .....	169
<그림 26> 고구려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	169
<그림 27> 고구려복과 복주머니를 이용한 디자인 .....	169

<그림 28> 장삼 느낌의 남성복 .....	169
<그림 29> 비잔틴의 달마티카 .....	170
<그림 30> 러시아 발레단 공연포스터 .....	170
<그림 31> 폴 포와레의 이국 취향의상 .....	170
<그림 32> 황제 니콜라이 2세 누이의 예복 .....	171
<그림 33> 황제 파벨 1세의 아내의 예복 .....	171
<그림 34> 50년대 패션 스타일 .....	171
<그림 35> Marc Jacobs 2003 S/S Collection .....	172
<그림 36> 지춘희 2003 S/S Collection .....	172
<그림 37> DKNY 2003 S/S Collection .....	172
<그림 38> Louis Vuitton 2003 S/S Collection .....	173
<그림 39> 60년대의 재키룩 .....	173
<그림 40> 60년대의 팝아트와 옵아트 .....	173
<그림 41> 2003 S/S Collection 샤넬 .....	174
<그림 42> 2003 S/S Collection 안나수이 .....	174
<그림 43> 스포츠와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	175
<그림 44> 스포츠,캐주얼과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	175
<그림 45> 스포츠,특수복,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2003-2004 F/W 파리 컬렉션 .....	175
<그림 46> 아디다스를 위한 요지야마모토의 작품 2003년 컬렉션 .....	175
<그림 47> 사제복-양단,새틴천,견,면,벨벳,진주블루마린 .....	176
<그림 48> 블루마린, 2004/2005 F/W 밀라노 컬렉션 .....	176
<그림 49> 에트로, 2004/2005 F/W 밀라노 컬렉션 .....	176
<그림 50> 돌체앤가바나 2004/2005 F/W 밀라노 .....	176
<그림 51> 로베르토 카발리 2004/2005 F/W 밀라노 .....	176
<그림 52> 프라다 2004/2005 F/W 밀라노 .....	176
<그림 53> Antonio Marras 2003 S/S 컬렉션 .....	177
<그림 54> D & G 2003 S/S 컬렉션 .....	177
<그림 55> Vivien Westwood 2003 S/S 컬렉션 .....	177
<그림 56> Alexander Mcqueen 2003 S/S 컬렉션 .....	177
<그림 57> D&G 2002F/W 2002 F/W .....	177
<그림 58> Dolce & Gabanna 2002 F/W .....	177

<그림 59> Marni 2002 F/W .....	177
<그림 60> Antoni Beradi 2002 F/W .....	177
<그림 61> 디지털 스웨터 .....	178
<그림 62> South Australia 대학의 'e-Suit .....	178
<그림 63> MIT의 'Puddle jumpe .....	178
<그림 64> Alexandra Fede의 'Joy Dress .....	178
<그림 65> 위치추적기 의상 .....	178
<그림 66> Nokia사의 'Medallio .....	178
<그림 67> Philips사의 Intelligent Biomedical clothing .....	178
<그림 68> Philips사의 New Nomads 'Perfect Performance .....	179
<그림 69> Corpo Nove사의 'Motorbike Jacket .....	179
<그림 70> Burton Snowboards의 '스노보드 재킷 .....	179
<그림 71> Hugo Boss사의 'McLaren mechanics suits .....	179
<그림 72> 전기전도성 신섬유 소재 기술 .....	179
<그림 73> 유연성 칩 패키지의 내부 구조 와 칩 .....	179
<그림 74> 2002-2005패션쇼 메이크업 이미지 .....	180
<그림 75> 경극화장 .....	181
<그림 76> 가부키 화장 .....	181
<그림 77> 가부키 무사 화장 .....	182
<그림 78> 경극 검보 화장 .....	182
<그림 79> 2002 F/W 크리스찬 디올 .....	183
<그림 80> 2002 F/W 크리스찬 디올 .....	183
<그림 81> 2002 F/W 존 갈리아노 .....	183
<그림 82> 2003 S/S 존 갈리아노 .....	183
<그림 83>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83
<그림 84>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83
<그림 85>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84
<그림 86> 2003 S/S 존 갈리아노 .....	184
<그림 87>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84
<그림 88>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4
<그림 89>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4

<그림 90>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4
<그림 91>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2>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3> 2003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4> 2004 S/S 폼무데 가르송 .....	185
<그림 95> 2004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6> 2004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7>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8>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99>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	185
<그림 100> 50년대 메이크업 ‘에바 가드너’ .....	186
<그림 101> 50년대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	186
<그림 102> 50년대 메이크업 영화 ‘그리스’ 포스터 .....	186
<그림 103> 50-60년대 메이크업 ‘재키 케네디’ .....	186
<그림 104> 50-60년대 메이크업 ‘오드리 헵번’ .....	186
<그림 105> 60년대 메이크업 모델 ‘Twiggy’ .....	186
<그림 106> 2002 F/W 세린느 .....	187
<그림 107> 2003 F/W 마이클 코어스 .....	187
<그림 108> 2003 F/W 캐롤리나 헤레나 .....	187
<그림 109> 2003 F/W 캐롤리나 헤레나 .....	187
<그림 110> 2003 S/S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	187
<그림 111> 2003 S/S 캐롤리나 헤레나 .....	187
<그림 112> 2004 S/S 빅터 & 로프 .....	187
<그림 113> 2004 S/S 안나 수이 .....	187
<그림 114> 2004 F/W 세린느 .....	187
<그림 115> 2005 S/S 샤넬 .....	188
<그림 116> 2005 S/S 크리스찬 디올 .....	188
<그림 117> 2005 S/S 알버타 페레티 .....	188
<그림 118> 2005 S/S 크리스찬 디올 .....	188
<그림 119> 2002 S/S 발렌티노 .....	189
<그림 120> 2002 F/W 발렌티노 .....	189

<그림 121> 2002 F/W 발렌티노 .....	189
<그림 122> 2003 S/S 랑방 .....	189
<그림 123> 2003 F/W 발렌티노 .....	189
<그림 124> 2004 S/S 로버트 카발리 .....	189
<그림 125> 2004 S/S 빌 부라스 .....	189
<그림 126> 2004 S/S 랑방 .....	189
<그림 127> 2004 F/W 랑방 .....	189
<그림 128> 2004 F/W 고티에 .....	190
<그림 129> 2004 F/W 발렌티노 .....	190
<그림 130> 2004 F/W 발렌티노 .....	190
<그림 131> 고티에의 에르메스 쇼 .....	190
<그림 132> 2002 F/W 베르사체 .....	190
<그림 133> 2002 F/W 고티에 .....	190
<그림 134>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90
<그림 135>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91
<그림 136>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91
<그림 137> 2003 S/S 크리스찬 디올 .....	191
<그림 138> 2003 S/S 로베르토 카발리 .....	191
<그림 139> 2004 S/S 부디카 .....	191
<그림 140> 2004 S/S 장 프랑코 페레 .....	191
<그림 141> 2004 S/S 로베르토 카발리 .....	191
<그림 142> 2004 F/W 장 폴 고티에 .....	191
<그림 143> 2005 S/S 크리스찬 디올 .....	192
<그림 144> 2005 S/S 크리스찬 디올 .....	192
<그림 145> 2005 S/S 베르수스 .....	192
<그림 146> 2004 F/W 엘리 사브 .....	192
<그림 147> 2004 F/W 발렌티노 .....	192
<그림 148> 2004 F/W 소니아 리켈 .....	192
<그림 149> 2002 F/W 카사렛 .....	192
<그림 150> 2002 F/W 미유 미유 .....	192
<그림 151> 2002 S/S 미유 미유 .....	192

<그림 152> 2003 S/S 카사렛 .....	193
<그림 153> 2003 S/S 카사렛 .....	193
<그림 154> 2003 S/S 디 앤 지 .....	193
<그림 155> 2004 S/S 도나 카란 .....	193
<그림 156> 2004 S/S 미유 미유 .....	193
<그림 157> 2004 S/S 헬무트 랭 .....	193
<그림 158> 2005 S/S 크리스찬 디올 .....	193
<그림 159> 2005 S/S 질 샌더 .....	193
<그림 160> 2005 S/S 작 포슨 .....	193
<그림 161> 2005 S/S 세린느 .....	194
<그림 162> 2005 S/S 프라다 .....	194
<그림 163> 2005 S/S 디 앤 지 .....	194
<그림 164> 2002 S/S 크리스찬 디올 .....	194
<그림 165> 2002 S/S 존 갈리아노 .....	194
<그림 166> 2002 S/S 크리스찬 디올 .....	194
<그림 167> 2002 S/S 고티에 .....	195
<그림 168> 2002 F/W 크리스찬 디올 .....	195
<그림 169> 2002 F/W 존 갈리아노 .....	195
<그림 170> 2002 F/W 존 갈리아노 .....	195
<그림 171> 2002 F/W 장 폴 고티에 .....	195
<그림 172> 2003 S/S 존 갈리아노 .....	195
<그림 173> 2003 S/S 장 폴 고티에 .....	195
<그림 174> 2004 S/S 장 폴 고티에 .....	195
<그림 175> 2004 S/S 에밀리오푸시 .....	195
<그림 176> 2004 S/S 크리스찬 디올크리스찬 디올 .....	196
<그림 177> 2004 S/S 크리스찬 디올 .....	196
<그림 178> 2004 S/S 디 앤 지 .....	196
<그림 179> 2005 S/S 존 갈리아노 .....	196
<그림 180> 2005 S/S 존 갈리아노 .....	196
<그림 181> 2005 S/S 존 갈리아노 .....	196
<그림 182> 2005 S/S 안나 수이 .....	196

<그림 183> 2005 S/S 켈빈 클라인 .....	196
<그림 184> 2005 S/S 발렌티노 .....	196
<그림 185> 2002 F/W 알렉산더 맥퀸 .....	197
<그림 186> 2002 F/W 알렉산더 맥퀸 .....	197
<그림 187> 2003 S/S 구찌 .....	197
<그림 188> 2003 S/S 질 샌더 .....	197
<그림 189> 2004 S/S 준야 와타나베 .....	197
<그림 190> 2003 S/S 헨디 .....	197
<그림 191> 2004 F/W 헨디 .....	197
<그림 192> 2004 S/S 요지 야마모토 .....	197
<그림 193> 2004 S/S 헨디 .....	197
<그림 194> 2004 F/W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195> 2004 F/W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196> 2004 F/W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197> 2004 S/S 크리스찬 디올 .....	198
<그림 198> 2004 S/S 존 갈리아노 .....	198
<그림 199> 2004 S/S 존 갈리아노 .....	198
<그림 200> 2005 S/S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201> 2005 S/S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202> 2005 S/S 알렉산더 맥퀸 .....	198
<그림 203> 2005 S/S 빅터 & 로ルフ .....	199
<그림 204> 2005 S/S 빅터 & 로ルフ .....	199
<그림 205> 2005 S/S 빅터 & 로ルフ .....	199
<그림 206> 2005 S/S 오스카 드라 렌타 .....	199
<그림 207> 2005 S/S 켈빈 클라인 .....	199
<그림 208> 2005 S/S 구찌 .....	199
<그림 209> 2005 S/S 페리 엘리스 .....	199
<그림 210> 2005 S/S 입생 로랑 .....	199
<그림 211> 2005 S/S 옹가료 .....	199

# I. 서론

## 1. 연구 의의 및 목적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전환은 단지 시간적 의미의 변화가 아닌 인간 행위의 모든 면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많은 변화 중에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점은 바로 21세기의 특징을 ‘문화의 세기’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문화가 단지 인간이 누리는 풍요한 삶의 한 방식이라는 점을 떠나, 문화의 헤게모니가 국가간 경제적, 정치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20세기에 비해 더욱더 글로벌화(Global)되어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져 단지 나라의 이름만으로 구분할 뿐, EU와 같은 체제가 되어감이 특징이다. 특히 IT의 진보에 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시기의<sup>1)</sup> 도래는 나라간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다. 이 경계의 제거는 문화 현상에서 즉시 나타났는데, 주류 문화가 없이 모든 나라, 민족의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되었고, 각 나라 및 민족의 고유문화가 아닌 이(異) 문화간의 교류와 결합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탄생되기도 했다. 곧 다문화시대(Multiculture)가 도래하였다.

다문화주의는 사회적으로 지역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기본 틀로 작용하면서, 조형예술을 하는 이들에 의해 개인의 창조적 행위의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다문화주의는 제국시대의 발전된 서구문화가 만들어 놓았던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를 허물어 놓았고, 이는 조형 예술가들에 의해 하이브리드(Hybrid) 사고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21세기 다문화시대의 부각되고 있는 패션 및 메이크업의 트렌드가 하이브리드임을 인식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20세기에도 여러 문화가 공존했었다. 그러나 그 시기에는 서구문화가 주류문

---

1)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어원은 ‘신은 어디에나 있다’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지금은 IT 전문용어로 바뀌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세계를 하나의 권(圈)으로 만들었고, 나라간, 민족간 문화의 경계를 허물었다.

화였다. 그 밖에 여러 문화가 공존했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했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인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의 내렸다. 그러한 시각으로 동양의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고 불렀고, 오리엔탈리즘은 문화와 예술에 적용되고 20세기 서구의 문화사조 중의 하나였다.<sup>2)</sup> 하지만 다문화적 관점에서는 주변문화, 변두리문화가 주류문화를 변방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다문화적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단일의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되지 못하고 모든 가치들이 단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단편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미지에 의해 조정되고 또 이미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미지가 자체의 유효성이나 현실을 잠식한다. 그러므로 전체의 상(像)보다는 단편화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전체는 그 결과에 불과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단편들이 동질적으로 혹은 이질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 따른 수많은 경험들이 단편화되어 개개인의 기억 속에 각기 다른 영상으로 존재하고 표현되고 있다. 곧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합, 병치,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고자하는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에 대해 고찰하되, 사회과학에서 문화갈등 극복이론<sup>3)</sup>으로 각광받고 있는 ‘다문화’라는 시대적 조건 하에서, 패션과 메이크업 트렌드에서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다문화 사회안에서 하이브리드 특성에 근거한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해석의 근거를 제공하고, 현대사회가 다문화주의 아래 하이브리드 현상이 패션을 주도하는 중요한 문화적 현상임을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오리엔탈은 문화인류학자인 사이드(Edward W. Said, 1935-2003)에 의해 그의 저서 오리엔탈리즘(1978)에 의해 일반인들의 귀에 익은 사회과학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Schlesinger, Jr.A.M.(1991),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hittle Book.

즉 21세기 다문화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 과학, 생물, 공학, 철학에서 조형예술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하이브리드 현상이 21세기의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어떻게 나타나고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그동안 다양한 문화권의 패션 및 메이크업에 관한 개개의 연구는 많이 있어 왔으나, 그 이질적인 패션문화들이 결합되어 새로운 패션문화를 만들어내는 메이크업경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즉 기존 연구는 한 문화권의 패션 및 메이크업을 다루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관한 논문 중 다문화주의 및 하이브리드에 관해 연구된 선행 논문으로는 임영자·한윤석<sup>4)</sup>, 최혜정<sup>5)</sup>의 논문이 있을 뿐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와 유사관계성을 갖는 퓨전 연구로는 성광숙,<sup>6)</sup> 한승희,<sup>7)</sup> 권유진,<sup>8)</sup> 김민정,<sup>9)</sup> 나현신,<sup>10)</sup> 신재룡,<sup>11)</sup> 양희영·양숙희,<sup>12)</sup> 오승혜,<sup>13)</sup> 이유미,<sup>14)</sup> 최혜정,<sup>15)</sup> 등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문화예술의 경향인 다문화주의 및 하이브리드가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연구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21

---

4) 임영자-한윤석(2001), 현대패션에 표현된 하이브리드 경향 연구, 한국복식학회논문집 Vol.51 No.5, p.113.

5) 최혜정(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성광숙(2004), 21세기 패션에 나타난 타영역과의 상호 텍스성에 관한 연구, 복식, 54권 2호, p.109.

7) 한승희(1999), 오리엔탈 퓨전스타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권유진(1998), 오리엔탈룩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김민정(1998).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0) 나현신(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1) 신재룡(2002), 현대 패션에 반영된 퓨전(Fusion)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양희영, 양숙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4 No.4.

13) 오승혜(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4)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5)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세기의 패션과 메이크업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대의 문화현상은 당대의 문화이론으로 해석할 때 가장 적절히 설명되어지기 때문이다

시대의 전환, 문화의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21세기는 과연 문화에 있어 패러다임이 어떻게 전환되었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0세기도 현대이고, 21세기도 현대이다. 하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21세기는 20세기와 구분되는 전환점을 가지고 있다. 그 문화의 전환점이 무엇이며,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 시대에 문화 아이콘(icon)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은 이른 듯하지만, 21세기의 전환을 정의하고, 20세기와 전환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조건의 변화는 동일한 방법임에도 다른 결론을 낳는다.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현대라는 조건보다는 21세기를 정의하는 용어와 그러한 범주 내에서의 연구 내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선행 연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개의 이질적인 패션 및 메이크업 문화가 결합되어 창조해내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인 하이브리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21세기 들어 하이브리드현상에 의한 혼합과 병치는 21세기 하이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 2. 연구 범위 및 내용

본 연구는 현대의 다원 복잡한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현대에서 조명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양상을 패션과 메이크업을 연계시켜 규명하고자, 2002 S/S-2005 F/W년에 발표된 컬렉션을 중심으로 문헌고찰과 사례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양상의 표현방법과 특징을 도출해 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전개하겠다.

1장에서는 연구의 의의 및 목적과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해 논하고,

2장에서는 다문화의 개념과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패션보다 먼저 적용되었던 다른 장르 즉 일반적인 문화현상과 조형예술의 현상을 알아보고, 메이크업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겠다.

3장에서는 다문화시대 패션의 특징으로 먼저 하이브리드의 출연 배경을 사회적·정치적·경제적·과학적으로 살펴보고, 현재의 대중문화에서 하이브리드 현상을 알아본다. 다음으로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여 전개하였다.

5가지로 나눈 분류근거는 하이브리드 패션을 분류하는데 있어, 내용상 연관성이 있는 선행 연구논문과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까지 패션트렌드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믹스&매치(mix & match)의 경향을 토대로 21세기의 하이브리드를 분류하기로 하였다.

패션 경향의 5분류에서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전통적 메이크업, 과거와 현재의 메이크업에서는 레트로, 궁정 메이크업으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요부적, 캐포츠 메이크업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미래 메이크업 등으로 분류하겠다.

5가지 분류에서 대립되는 개념인 서양, 현재, 상류, 주류의 개념은 현재 패션 트렌드의 고전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그 특징을 일일이 명시하지 않고 전개하겠다.

4장에서는 패션과 같은 분류 방법으로 적용하여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유형을 분류하겠다..

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류결과를 통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계성을 알아보겠다.

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한 후,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구과제를 제언으로 서술하겠다.

연구의 범위는 2002 S/S-2005 F/W로 설정하였다. 물론 그 이전부터 다른 두 스타일이 결합되는 것을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오리엔탈, 크로스오버, 퓨전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전환기에는 다문화주의라는 전제가 변화하여 이전의 다른 스타일간의 결합보다 확대된 방식( 2가지 이상의 단편화된 동질적 혹은 이질적으로 조합되는 현상)의 결합이기에 새로운 용어인 하이브리드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2002년부터의 변화된 하이브리드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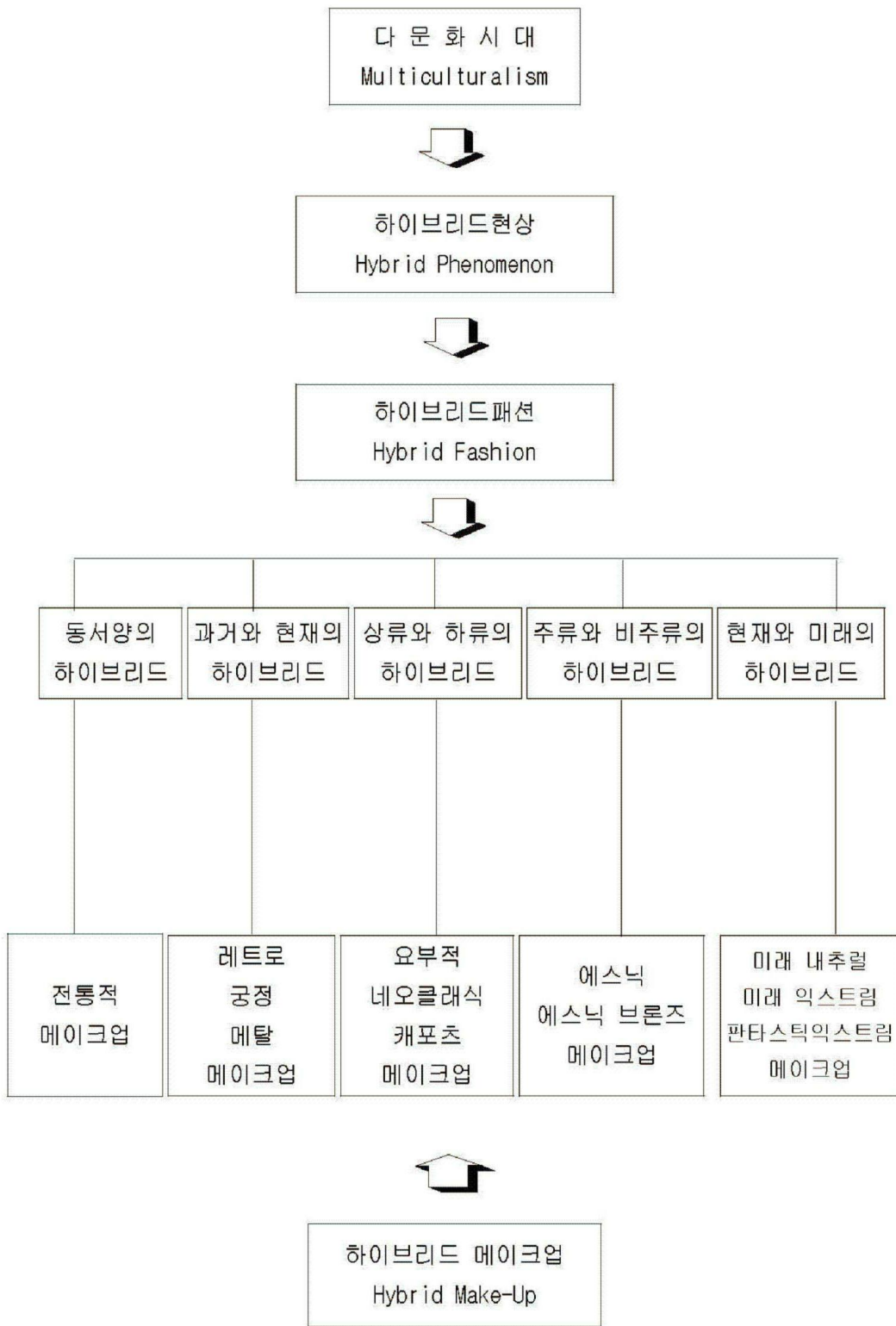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 경향을 알기위한 자료로서는 2002-2005 Paris-Milano Collection, Gap Collection 등의 잡지와 동아TV, 퍼스트 뷰(<http://www.firstview.com>),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E-보그 (<http://www.vogue.co.kr>) 등의 인터넷의 자료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의 참고 자료로 사용된 패션연구소나 그리고 패션 정보 사이트에서 인용된 패션정보 내용은 영어표기가 대부분이다. 특히 패션 트렌드의 정보에서는 외국어 일색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부득이하게 한국어로 번역이 어색하거나 일상적으로 표현되는 패션용어는 영어로 표기하거나 외래어 표기로 하고자 한다. 또한 패션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작품의 많은 자료를 열거할 수 없어서 대표적, 특징적인 자료만을 하이브리드 현상의 예로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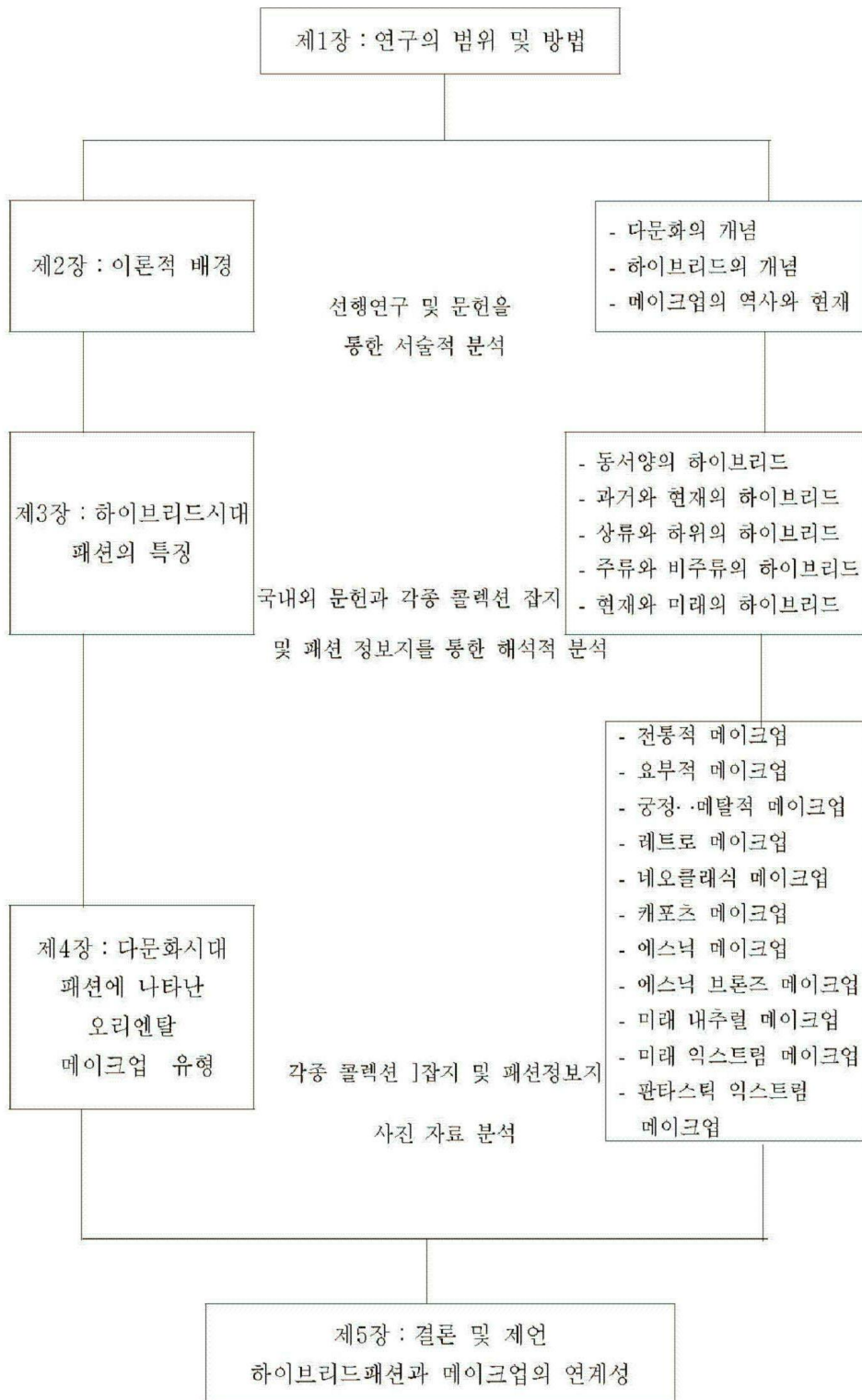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다문화 및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에 대한 선행 연구 상황을 분석하여 기존과 차별화된 연구 주제와 내용을 전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삼고, 이후 이론적 배경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다문화와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개념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문화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주류 사조로 자리 잡은 하이브리드 개념 하에서 패션을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분류하고 패션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21세기의 메이크업 경향을 하이브리드 요소를 중심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즉 하이브리드 현상을 21세기의 문화적 특징으로 전제한 후 연구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패션에서 하이브리드의 출현배경을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과학적으로 어떤 경로로 현상에 이르렀는지를 살펴 본 후, 다문화시대라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 패션과 메이크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현재 디자이너들의 작품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히 이전 시기의 하이브리드 범주에 속하는 트렌드들이 다문화시대에는 어떠한 트렌드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다문화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의 계통도



<그림 2> 본 연구의 구성도

## II. 이론적 배경

### 1. 다문화의 개념

문화에는 전통적으로 고급문화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이러한 개념은 다음 세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매우 높은 수준의 특별한 교육이 요구되므로 극소수만이 그 특권을 누린다는 "단선적인 엘리트문화(Unilinear elite culture)", "지배적인 남성의 대중문화(Dominant masculine mass culture)" 그리고 고급과 저급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며 수많은 다양한 문화를 의미하는 "다선적인 민중의 (하위)문화(Multilinear popular (Sub) culture)"로 나타내며<sup>16)</sup> 이와 같은 3단계의 문화발전 현상 중에 다문화현상은 다선적인 민중문화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이 시대의 문화정책에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문화란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의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형성된 문화를 말한다. 다문화시대를 이루게 된 것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는 철학적 배경에 의해서이며, 그 철학적 배경은 현대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변화에 의하여 형성되게 되었다. 곧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이념, 그리고 그 형성 배경을 밝히는 것이 다문화시대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된다.<sup>17)</sup>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국제사회에서 캐나다, 호주에 의해서 주목을 받았다. 왜냐하면 다민족·다문화 사회의 원리가 되는 다문화주의는 정치통합에 순기능을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이민, 난민, 외국인 노동자 등의 증가, 주변민족 집단과의 공존정책으로 다문화주의를 도입하였다. 특히 프랑스는 다문화주의를 '상이성(相異性)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하여 다문화주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 미국은 도가니론에 기초해서

---

16) Barnard, Malcolm(1998), Art, design, and visual culture: an introduction, N.Y: st Martin's Press, pp. 19-29.

17) Storey, John(1996),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26

다문화주의를 등한시 하였지만 최근에는 국민통합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sup>18)</sup>,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sup>19)</sup>

다문화주의라는 용어의 의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분야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르다. 다문화주의란 용어가 사용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가 정확하지 않을 정도이다.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그 용어는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되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과학과 공적인 논의에 있어서 상당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sup>20)</sup>

캐나다 정부는 각국으로부터 밀려드는 수십 종류의 문화를 단 하나의 문화로 통합하기 보다는 각 민족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계승 발전시켜 캐나다 문화의 한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1971년 세계 최초로 'Multiculturalism'(다문화주의)을 캐나다의 국시로 정한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의 다문화주의 정책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전개되었고, 특히 대학 및 여러 기관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연구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여러 민족의 고유문화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 한 가지 예로 인디언(Indian)과 에스키모(Inuit)들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고, 소수 민족에 대한 자국 언어를 장려하고 있다.<sup>21)</sup>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과 인접하여 영향력이 강한 미국문화에 아무런 장애 없이 노출되어 있지만, 캐나다 고유의 '다문화주의'를 통해 캐나다만의 문화를 지켜 나가고 있다. 특히 다민족으로 구성된 케백주와 서부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화간의 충돌을 해소하고 국민국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2개 국어 · 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sup>22)</sup>

이후 잡동사니 상자 같은 용어인 다문화주의는 일반적으로는 현대 서양사회

---

18) Barber, B.R.(1993), Global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Ethnic and Policy Journal*, Vol.10, pp.47-55.

19) 박길성(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발전과제, 서울: 사회비평사, p.32.

20) Marco Martiniello,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p.88.

21)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겨울호, pp. 36-39

22) 위의 책, p.40.

의 생활이 점점 잡다한 성격을 띠어 가고 있다는 인식 아래 여성문화, 소수파 문화, 비 서양 문화를 교육에 보다 많이 포함시키려는 기획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대학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이전의 수업에서 배제된 자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교과서, 앤솔리지(Anthology)<sup>23)</sup>, 교과 과정, 강의 개요가 개편되고 있다. 하지만 이 용어는 어떤 한 가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말하지는 않는다. 다문화주의는 한 극단에서는 단순히 자유주의적 다원주의(Pluralism)<sup>24)</sup>나 코스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sup>25)</sup>의 연장이라고 말하며, 다른 한 극단에서는 인종이나 성별이나 성적 취향에 따르는 급진적 분리주의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견해들을 합쳐 놓은 것이다. 많은 종류의 다문화주의에는 정치적 변호라는 강력한 성분이 있어서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을 샀다. 보수주의자들은 ‘정치적 공정(political correctness)’<sup>26)</sup>이라는 경멸적인 형용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일부 다문화주의 옹호자들이 내보이는 유머 없고 독재적인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배제를 정당화하기도 한다.<sup>27)</sup>

미국에서의 다문화주의는 1990년대 하나의 철학적 사조로 등장한다. 미국의 특징은 다양한 이민들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라는 데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명시(名詩) 또는 명문(名文)의 선집(選集), 사화집(詞華集)이라고도 한다. 앤솔리지는 그리스어의 안솔로기아(anthologia; 꽃을 모아 놓은 것)에서 유래한다. 가장 오래된 것은 BC 1세기 멜레아그로스가 시인 50명의 에피그램(epigram; 짧은 풍자시)을 모아서 수록한 것이며, 앤솔리지는 말은 2세기의 편집자 디오게니아누스에 의해 쓰여졌다.

24) 다원주의(pluralism)는 다른 모든 가치들 위에 균립하는 특정가치, 중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보는 철학방법론이다.

25) 세계주의(cosmopolitanism)는 전 인류를 동포로 보고 세계국가를 상정(想定)함으로써 고원(高遠)한 인류사회의 통일을 꾀하려고 하는 입장으로, 코스모폴리터니즘, 또는 세계시민주의, 사해동포주의, 만민주의, 세계공민주의라고도 한다. 공동체, 민족, 국가 등을 매개로 하지 않고, 여러 개인이 직접적으로 세계와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는 개인주의적, 보편주의적 사상이다.

26) 약어로 P.C.로 쓰고 다문화주의에 늘 따라다니는 말이다. ‘정치적 공정’이나 ‘정치적 적합성’으로 해석된다. 본래 이 말은 보수주의자가 다문화주의를 주창하는 사람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련의 자유주의적 태도나 입장을 가리키는 일반 용어로 굳어 버렸다.

27) Barber, B.R, 앞의 글, pp. 63-64.

미국은 오랫동안 백인들의 나라였고, 백인문화는 곧 미국의 지배문화였다. 그러나 주변부 문화를 조명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탈식민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소수 인종들은 점차 자신들의 정체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되찾게 되었다. 미국이 ‘섞어 놓은 샐러드(tossed salad)’<sup>28)</sup>라고 불린 것은 바로 그런 맥락이었다. 샐러드는 각기 다른 형태와 맛을 가진 각종 채소들이 모여, 공통의 드레싱에 의해 공평하고 동등하게 뒤섞이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 내 소수 인종들은 각기 다른 인종들의 결속을 주장하기도 했다. ‘다문화주의’이라는 개념이 미국 사회에 등장한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였다. 다문화주의는 지배문화와 피지배문화, 중심문화와 주변문화의 서열을 없애고 다양한 문화의 동등한 공존을 주창하는 사조로서 그 의의가 있다.<sup>29)</sup>

과거 미국사회에서 미미한 주변문화였을 뿐인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아시아문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도 바로 이 다문화주의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다문화주의는 그동안 백인 서구문화 중심이었던 미국 학교들의 교과과정을 크게 바꾸어 놓았으며, 학생들은 이제 미국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소외되어 온 비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 소수 인종 교사나 교수들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해 유색인들이 백인들보다 오히려 더 쉽게 고용되거나 각광받게 되는 일도 생겨났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소수 인종들로부터는 열렬한 환영을 받았지만, 보수적인 백인들로부터는 신랄한 비난을 받았다.<sup>30)</sup>

다문화주의가 다국적기업을 부추겨 제3세계를 착취한다는 이론도 있으나, 이 역시 본질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다문화주의는 생애적으로 평등주의적 좌파이지 자본주의적 우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보다 더 급진적인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운동과 맞물리면서, 인종차

28) 김육동(1998), 전환기의 비평논리, 서울: 현암사, p.174

29) 함재봉(1998), 미국의 탈 근대주의,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총서 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127.

30)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가을호, pp.29-30.

별적, 성 차별적, 나이 차별적, 계급 차별적인 표현들을 폐지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미국에서는 더 이상 차별하거나 편견이 들어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한다.<sup>31)</sup>

현대를 특징짓는 말로 흔히 '세계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 등을 사용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 최근 첨단과학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보화가 가속화되어 세계가 돌아가는 형편을 지리적 간극을 뛰어 넘어 곧바로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고, 그리하여 과거에 오직 관념상이나 슬로건으로 존재했던 세계화가 비로소 현실화된 것이다. 세계화라는 말은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결국 공익(共益)으로 귀결되고 세계의 공익은 세계화라는 관점으로 결론지어진다.<sup>32)</sup> 결국 다문화주의는 세계화로 이어지는 개념이 되는 것이다.

세계화는 두 가지 관점, 즉 경제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첫째로 세계화를 언급하는 흔한 방식은 대부분 국가의 관심사인 '경제적인 맥락'일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세계화는 지역 혹은 국가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논리이다. 그리하여 각 국은 경제적인 요인이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아래, 세계화라는 단일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적인 기술과 경영으로 세계적으로 어필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 팔아야 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생각은 또한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물질적 풍요가 우상이 되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논리와 현대인의 사고에 깔려 있는 놀라우면서 불행한 점은 공통적으로 세계화를 '세계의 유익'의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국가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세계화를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의 세계화는 표면상으로는 세계의 경제적인 통일을 가져오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

31) 함재봉, 앞의 책, p.132.

32) Barber, B.R.(1993). Global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Ethnic and Policy Journal*, Vol.10, pp.55-58.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분열과 상처를 가져다준다.<sup>33)</sup>

둘째로, 세계화를 해석하는 전형적인 경우는 '문화적인 맥락'에서이다. 문화적인 맥락에서 세계화는 흔히 '다문화주의' 혹은 '다원주의'와 관련해서 논의된다.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는 각 나라나 사회마다 생활양식, 사고방식, 종교나 도덕적 신념, 철학적 입장이나 문화적 정체성 등에 차이나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적어도 범위 면에서 다원주의가 다문화주의 보다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원주의는 모든 다원적 현상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에,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영역에 한정된다.<sup>3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라는 개념이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을 가리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므로, 두 용어는 흔히 상호 교차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나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수용하자는 견해나 주장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자는 것이다.<sup>35)</sup>

최근에 들어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그 동안 주로 소외되어 왔던 집단, 여성주의자, 소수문화 집단 등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그들은 그 동안 소외되어 왔던 남성위주의 문화와 다수집단의 문화에 의해 도외시되고 간과되어 왔던 자신들이 가진 문화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문화의 편견은 성격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여서 단기간에 바로잡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겠지만, 지금까지 다문화주의 주장은 다양한 문화간의 조화나 통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문화를 쟁취하려는 다소 투쟁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 점에서, 현행 다문화주의의 주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이나 사회 밖에 다양한 가치나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 넓은 의미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성격이 강하며, 문화의 통합 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을 펼쳐만 놓을 뿐이지, 다양한 형태의 문화를 서로 관련시키고 정합성을 가지도록 하는 데는 실패하

---

33) 박길성, 앞의 책, p.39-42.

34) D.Kellner, 김수정, 정중희 역(1997), 미디어문화, 서울: 새물결, pp.177-178.

35) 위의 책, p.178.

고 있는 것이다.<sup>36)</sup>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사회적 모순은 의외로 예술의 장르에서는 열린 시각으로 확대되고 있고, 조형예술에서의 활동으로 사회전체의 다른 장르도 영향을 받고 있다.

다문화주의 사회는 사회마다 가치나 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과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말하자면, 문화적 다양성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도록 한다. 더 나아가 때로는 문화의 다양성에 관한 이해를 넘어서 다른 문화를 자신의 문화와 동일한 수준으로 가치 있게 여기도록 가르치는 것을 포함 한다<sup>37)</sup>.

21세기를 흔히 ‘문화의 시대’라고 말한다. 문화란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창조해내기 시작한 모든 정신 활동의 소산을 일컫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는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엄청난 문화를 축적하게 되었다. 이 축적된 문화는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면서 동시에 보고 즐기는 누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화 자산들은 그것이 창조될 당시 폭넓은 누림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경제가 넉넉지 못했고, 사회 조직이 민주화되지 못했고,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sup>38)</sup>

그리하여 문화의 창조와 누림은 소수의 특수 계층에게만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은 현시점에서 경제 수준은 높아지고,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있고, 교통과 통신이 자유로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문화는 더욱 폭넓은 현실적 창조력을 갖게 되었으며,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문화가 새롭게 인식되어,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규정되었고, 다문화시대가 된 것이다.

---

36) 위의 책, pp. 150-154.

37) Marco Martiniello,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 한울, p.17.

38) 위의 책, pp.153-157.

## 2. 하이브리드의 개념

### 1) 하이브리드 개념

하이브리드의 의미는 첫째, 두개의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異形)이라는 의미와 둘째, 두개의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 한다<sup>39)</sup>.

생물학적인 용어로 종간의, 속간의 혹은 근친간의 교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종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잡종보다는 폭넓은 적용범위를 지닌다.<sup>40)</sup> 그러므로 유전학적인 개념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우연한 교잡의 결과로서, 어떤 동물종의 기원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억측<sup>41)</sup>이나 그리스의 엠페도클레스(Empedocles)<sup>42)</sup>에 의해 제기된 다른 동물들의 부분들을 끌어 모아 새로운 유기체로 조합하는 것<sup>43)</sup>과 같은 키메라(Chimaira: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자 머리, 양의 몸, 용의 꼬리가 합쳐진 괴물)는 진화에 대한 오래된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공상과학과 이식수술을 통하여 현재에도 계속 인류에 의해 회귀되는 아이디어로 사용되고 있다.

18-19세기에는 유전학자 콜로이터(Kolreuter)와 멘델(Mendel)<sup>44)</sup>에 의하여 처음으

39)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86), Merrian Webster inc. USA.

40) 프랑수아 지콕, 이정우 역(1994).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서울 : 민음사, pp.78-79.

41) 낙타와 레오파트가 기린을 낳고 낙타와 참새가 타조를 낳는다는 식의 교잡.

42)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B.C 495-B.C 435)로 다재다능한 기인(奇人)으로 알려졌다. 두 편의 시 《정화(淨化)》와 《자연에 대하여》를 저술하였는데, 전자에서는 신령(神靈)의 윤회(輪廻)를 논하고, 후자에서는 우주의 구조를 논하였다. 후자에 의하면 만물의 근본은 흙·공기·물·불로 구성되었으며, 이 불생불멸불변(不生不滅不變)의 4원소가 사랑과 투쟁의 힘에 의해 결합·분리되고 만물이 생멸(生滅)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사랑이 지배하는 시기, 투쟁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 투쟁이 지배하는 시기, 사랑의 힘이 증대하는 시기의 4기(四期)가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을 신격화(神格化)하기 위해 에트나화구(火口)에 투신하였다는 유명한 전설이 있다. 인간의 다리와 몸체를 지니고 코끼리머리를 지니는 반인 반수의 형태.

43) Charles Jencks & Nothan Silver(1972), *Adhocism*,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p.49.

44) 콜로이터(Kolreute)는 독일인으로 유전형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유전적 원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으로 1866년 오스트리아 과학자이자 성직자이다. 멘델(Mendel)은 완두콩의 교배실험을 통해 완두콩의 색깔과 주름의 유전원리를 처음으로 밝혀냈다.

로 생명의 형태로서 하이브리드 개념을 바탕으로 둔 과학적이고 역동적인 실험이 이루어졌고, 멘델의 법칙과 같은 프로세스가 생물학이나 수학에 있어 기초 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부모세대의 불안정으로 인한 개별적 하이브리드는 불임을 갖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하이브리드의 성장력과 번식불능 사이의 어떠한 특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sup>45)</sup>

그러므로 생물학적인 하이브리드는 서로 다른 종들 간의 조합을 통하여 강한 생명력을 지니지만, 단종하는 새로운 종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형 예술적 측면에서 하이브리드를 정의하면, 혼성모방이나 개작의 경향을 띄고 다른 여러 가지 양식을 흉내 내거나 모방하는 매너리즘이나 양식적인 왜곡현상과 언어혼란의 경향<sup>46)</sup>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1920년대의 다다나 초현실주의와 1960년대의 팝아트(Pop-Art)에서 볼 수 있다.

다다와 초현실주의자들은 비정형적이고 제스추어적이고 표현적인 추상에서 하이브리드에 관한 기본 모티브를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모든 가치의 부정과 파괴를 통하여 무질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이 지니는 해학성과 아이러니는 조롱과 기괴한 형태 속에서 보여준다. 이들이 이용한 것은 익명적, 단편적, 우연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수법은 몽타주, 콜라주 혹은 몽타주와 레디메이드를 종합한 앳상블라주를 이용하고 있다.<sup>47)</sup>

이러한 수법은 자체가 현실의 단편을 조합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며, 유기적 작품의 총체성을 파괴하므로 우연성과 충격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수용자들은 전혀 예상 밖의 이미지를 느끼게 된다.

1960년대 특정의 유풀적인 명칭이 없이 시작된 팝아트는 다양한 대중매체와 상품화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지닌 범속한 일상의 소재를 이용하여 시각 예술이 더 이상 고상한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속한’ 대중문화와 손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소위 고급예술과 저급예술이라

---

45) Charles Jencks & Nothan Silver, 앞의 책, pp.60-62.

46) 정시화(1991), 산업디자인 150년, 서울 : 미진사, p.269.

47)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89-90.

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도전하는 미술의 민주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상적 소재를 조합 콜라주 시키거나 기존 작품을 모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듦으로써 그들의 의식을 대변한다.<sup>48)</sup>

건축에서의 하이브리드 표현양상을 지닌 건축물은 역사적으로 17세기의 매너리즘, 19세기의 절충주의, 혹은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에 의해서 제시된 계획안과 마천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 인용, 장식, 절충을 거부하고 단순성을 강조하던 모던의 국제적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하이브리드 양상은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이르러 모더니즘이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로는 더 이상의 양식적 혁신이 불가능하게 되자, 건축에서는 역사, 장식이나 의장을 수용하고 복잡성 및 모호성을 지니는 하이브리드 표현 양상이 다시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였다.

건축에 있어 하이브리드는 이질 체계의 결합을 통하여 다른 성질이 획득될 때 적용된다. 현대 건축의 하이브리드 표현양상은 1960년 이후 근대 건축이 해체되기 시작한 이후로 기존의 도그마적인 국제적 양식과는 방향을 달리하여 나타나게 되는데,<sup>49)</sup> 현대 건축에서 하이브리드 개념은 R.벤츄리의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에서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대응하는 건축은 단순성보다는 복잡과 대립을, 직설적인 것보다는 모호함과 긴장을, 양의 공존을 의미하는 혼합적인 절충의 의미<sup>50)</sup>에서 보여 진다. 따라서 현대건축에서의 하이브리드 표현 양상은 근대건축의 표현양상과는 대립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의 다원적 분화가 건축물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건축에서는 일치성, 보편성, 중심보다는 이중성, 창조성, 가장자리가 더 가치를 인정받게 되므로 다름, 불일치, 모순을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는 이중적인 성질인 유추(Analogous)나 재현(Representation)을 이용하게 되고, 절충적 혹은 난해하게 분절된 추상적인 형태가 된다.

48) 이종성(1994), Review. 문예마당, 제1호, pp.51-54.

49) John A. Walker, 정진국 역(1990),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서울 : 열화당, pp.93-96.

50) R.Ventury, 임창복 역(1990),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서울 : 기문당, pp.30-31.

생물학적, 조형 예술적, 건축학 등에서 정리된 하이브리드 개념은 과거에도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문화는 아니다. 하지만, 이전의 하이브리드 경향이 해체, 파괴, 반항 등의 저항문화로 나타났다면, 현재의 하이브리드는 창조 개념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문화코드로 등장하였다.

## 2) 하이브리드 출현 배경

현대사회에서 하이브리드의 출현 배경은 사회적, 정치-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영향을 받았다. 사회적 양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다수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행된 산업이 재구조화, 재조직화, 직업구조의 변동, 기술혁신 등은 산업사회의 근본적인 변모와 탈산업사회의 출현을 의미한다. 그 후 30-40년이 지나면서 동서의 냉전이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세기말적인 현상 속에 있다.

정치-경제적인 양상은 냉전체계의 종식과 글로벌화의 가속화, 급진적인 민주주의 양상을 보였다. 급진적인 민주주의는 혁명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민주주의적 투쟁을 상호 연결 짓는 것으로 반인종주의, 반성별주의, 반자본주의와 같은 일상적 접합을 허용하는 새로운 주체, 위치들의 창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실천들이 다수화하여 실천들을 보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으로 제도화 하는 민주적 가치들의 체계모니가 이루어진다. 이런 체계모니는 각 분야에서 어떤 의도들과 반대되는 의도들 사이의 타협된 혼합물로 생각해 해 주고, 위나 아래, 상업이나 전통 양측 모두에서 비롯된 저항과 합병들 사이를 움직이는 저울의 추와 같다.<sup>51)</sup> 따라서 기존의 도그마적(dogmatic)인 지배원리에 대한 저항으로써 이전의 주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제3세계, 소수민족, 여성, 게이 기타 다양한 비수구적인 특성에 대한 관심이 표출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무시되던 집단들과 하위문화들은 사실상 그들 스스로 합법적인 존재로 부각되었다.<sup>52)</sup>

현대 문화는 다양성과 복합성을 기민하게 인식하고 있다. 보도매체, 여행사, 국제교통망, 인구의 이동으로 인하여 서구 각국의 도시에는 다양한 인종집단,

51) John Story, 박모 역(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pp.172-178.

52) David Harvy, 구동회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서울 : 한울, p.75.

청년문화, 복식, 음악 등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 이런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전적 서사체의 해체 : 소설 영화와 같은 문화에서 고전적인 서사체(narrative)의 해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이 인과적 관계로 치밀히 연결되어서 시간, 공간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기 보다는 각기 파편화되어 구조화되지 않은 채 느슨하게 병렬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sup>53)</sup>

따라서 연속성으로 특정 지워진 고전적인 서사체가 시간에 대한 기존의 인식-인과적 연속성, 불가역적인 진행성의 것-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파편화 현상은 현대 생활의 시간, 공간적 경험의 파편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자율성의 박탈 : 현대 문화계는 예술의 자율성이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이미 쓰여 지고, 보여 졌으며 오늘날의 예술가는 그것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므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간의 위계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거의 의식적으로 활용되는 패스티쉬와 패러디가 성행한다.<sup>54)</sup> 또 단순한 매체의 기능이 복합화 되고 모든 기능이 연결됨에 따라 예술에 있어서도 멀티미디어화가 이루어진다. 모든 장르가 해체되고 재조립되어진다.

감각의 미학 : 즉각성(immediacy)과 비사고성(unflexiveness)으로 특정 지워지는 육체미학을, 즉 감각이 미학을 발달시킨다. 이것은 정신분석학 설명에 의하며 일차적 과정(primary process)의 특징으로 이차적 과정(secondary process)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반추성과 사고성의 미학과는 구별된다.<sup>55)</sup>

이미지의 혼돈 : 현실과 현실의 이미지간의 구분이 혼돈되어 있는 문화이다. 이전의 문화에서는 현실과 픽션의 경계는 엄격했고, 픽션의 세계는 현실을 해석해주는 하나의 담론이었다. 그러므로 현실과 픽션은 서로 다른 차원의 현상으로 간주되었지만 여기서는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서로 간섭한다. 이와 같은 현실과 현실의 이미지 간의 혼돈을 보드리야르(Baudrillard)는 모의적

---

53) 박명진(1993),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문화-포스트모던의 관점, 현실문화연구, p.27.

54) John Story, 앞의 책, pp.242-245.

55) 박명진, 앞의 책, p.27.

(simulation) 모델에 의하여 사회생활과 개인의 일상생활이 통제되는 후기산업사회의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이라 한다.<sup>56)57)</sup>

과학의 패러다임변화는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나고, 양자역학 불확정적인 특성을 가진 현대사회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뉴턴식의 정상과학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과학 패러다임의 전화이라는 입장을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설명해주는 그리고 단원적인 특징의 근본 개념이 되는 복잡성과 대립성은 모더니즘의 순수성이나 연속성에 의해 억제되었던 불협화(discord)와 불연속(discontinuity)을 수용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58)</sup> 그러므로 불연속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질적인 재료를 병치하기도 하고 발굴 행위를 통해 과거의 흔적들이 불연속적으로 중첩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에 의하여 밝혀진 고전적인 개념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입자의 위치와 연동량 가운데 어느 하나를 정확히 알면 다른 하나는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결정 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사건을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의 개념인 확률만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재의 지식이나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인간은 자신이 알고 싶어는 측면을 선택에 의해 한가지만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sup>59)</sup> 따라서 기능은 미래의 사용에 의하여 새롭게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른다. 양자역학의 닐스 보어(N.Bore)의 상보성 원리(principle of complementarity)는 복잡과 대립의 불연속 모드를 모두 포함하고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사실상 동일한 개념의 다른 면들이라는 의미와 더 넓은 의미로 두 가지의 대립되는 상황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이중코드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건축적으로 고전적 형태와 모던한 형태가 동시에 사용

56) J.Baudrillard (1983), *Simulations, Semiotext*, New York : Gallimard, pp.100-152.

57) 배영달(1999), 보드리야르: 탈현대의 문화이론, 한국프랑스학 논집, no.26, p.814.

58)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이론과 과학 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115.

59) 위의 책, pp.116-121.

되고 혹은 두 가지의 다른 재료를 같이 사용하는 예로 나타날 수 있다. 또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상호간의 관계로 밖에 파악될 수 없다는 것으로 건축에서 서로 다른 상황의 건물끼리의 관계, 혹은 다른 영역의 분야들 간의 관계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상보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sup>60)</sup>

---

60) 위의 책. p.117.

### 3.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역사적 배경

#### 1) 메이크업의 역사

메이크업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리스어의 'Cosmetics'의 'Cosmo'에서 왔는데, '정돈하다' '장식하다'의 뜻을 가졌다. 현재에 쓰고 있는 단어로는 영어에서 'Cosmetic'과 프랑스어의 'Cosmetique'가 협의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얼굴을 장식한다는 용어로 일반화 되었다.<sup>61)</sup>

메이크업(makeup)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명사에서는 '화장, 분장, 가장(假裝), 겉치레, 분장용구, 화장품'을 뜻하고 동사의 뜻으로는 '완성하다. 바로잡다. 포장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영어의 메이크업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퀴아주(maquillage)등으로 표현되었는데 현재에 보통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화장 형태의 호칭은 20세기 미국의 헐리우드 전성기에 맥스 팩터(max factor)가 대중화시켰다.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랏슈가 시의 구절에서 '메이크업이란 여성의 매력을 높여주는 행위'라 하여 최초로 메이크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sup>62)</sup>

메이크업 역사에 있어서 고대의 이집트인의 화장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C. 5천 년, 이집트 제1왕조 묘에서 지방에 향을 넣은 화장수와 화장경이 발견되었는데, 역사가들은 이 때부터 인류의 화장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한다<sup>63)64)</sup>. 고고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화장품과 화장용구로 간주되어진다. 고대 이집트 문화의 대부분이 그들의 종교와 관련하여 발달했듯이 이 시기의 화장도 주로 종교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이루어졌다고 추론 된다.<sup>65)66)67)</sup>

61) 春山行夫(1976), おしいゆわの文化史. 東京 : 平凡社, pp.12-13.

62)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 공저(2002), 뷰티 & 스페셜 메이크업, 서울: 신정, p.10.

63) Egyptian Art(2001). The Metropolitan Museum Art., pp. 26-27.

64) 도미니크 파케(1999),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 서울: 시공사, pp.14-15.

B.C. 3000년부터 미용술은 성직자 계층에게 고유한 영역이었다. 성직자 계층은 원료들과 그것의 혼합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고 그것들을 의식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 입문식이나 장례식에는 몸을 단장하는 절차가 포함됐는데, 하나하나의 행위는 상징적 의미와 의학적 기능을 지녔다.<sup>68)</sup>

고대의 화장에서 가장 일찍 행하여진 것은 눈 화장으로, 눈가를 검게 칠하는 것이 화장의 포인트였다. 이러한 화장법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35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은 화장이라는 목적보다도 다른 민속적인 미신 또는 의약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는데 부적의 의미, 보호의 의미, 종교적 의미, 장식적 의미로 사용된 예이다. 민속학자들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사람 몸의 구멍 뚫린 부분을 통해 악마가 몸 속으로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눈가를 검게 칠하거나 입술을 붉게 칠해 악마를 놀라게 하여 다가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장을 시작했다고 한다.<sup>69)</sup>

이러한 이집트 화장의 추측은 '1922년 투탄카멘 왕의 묘가 발굴됨으로써 구체적인 사료가 나타났는데, 이집트 여인들은 상류계급 사이에서 화장품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상아로 만든 화장대 위에는 색색의 화장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외출 시에는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이 새겨진 용기에 들어 있는 검정이나 녹색의 화구로 눈 화장을 세밀하게 하고 다녔다'<sup>70)</sup>고 기록된 것에서 눈 화장이 이집트에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화장은 이집트와 같은 화려한 화장은 아니었다.

화장하는 여인은 판도라처럼 조화로운 자연의 섭리를 어기고 자연스런 아름답

---

65) Cordwell, J. M.(1985), Ancient Beginnings and Modern Diversity of the Us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pp.37-44.

66) Bertin, J.(1986), *Le Grand Livre de L'histoire du Monde*. Paris: France Loisirs, pp.4, 21.

67) Boucher, F.(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pp. 90-102.

68) 도미니크 파케, 앞의 책, pp.14-15.

69) 하루야마 유키오(2004), 임희선역, 화장의 역사, pp. 58-59.

70) 春山行夫(1976), 앞의 책, p.18.

다음에 반하는 일종의 '후부리스(hubris:정상을 벗어난 태도)'를 저지르는 것이었다.<sup>71)</sup>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직접적인 화장술에 관한 기록은 없고 문학작품을 통해 여성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찬미한 기록은 많이 나타난다. 특히, 여성의 얼굴 가운데 가장 많이 시나 노래의 대상이 되거나 심미론의 대상이 된 것은 눈으로, 특히 그리스인들은 커다란 눈이 아름다움의 중심이고 동시에 지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sup>72)</sup> 그리스 여인들의 구체적인 눈 화장에 대한 근거는 없지만 로마시대의 여성들은 짙은 화장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얼굴에 잔뜩 연지나 분을 칠하게 되었는데 눈가를 검게 칠하는 풍습도 계속 이어졌다. 로마제국에서 크게 유행되고, 일반화된 여성들의 색채화장은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다. 정숙과 검소를 규범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기독교의 포교자들과 중세 교회의 성직자들은 여성들의 화장을 동방의 타락한 이교도 문화로써 음탕과 매춘의 상징으로 간주하였다.<sup>73)74)</sup>

중세시대 화장의 특징은 하얀 얼굴표현을 위한 분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집트가 눈 화장이 특징이라면 중세의 여인들은 보다 흰 피부의 연출을 위해 인체에 유해한 화장의 성분을 사용한 시기이기도 하다.

초기 게르만 여성은 흰 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나, 로마와의 접촉으로 인해 흰 분이 들어왔다. 얼굴을 하얗게 바르기도 하고 회색으로 칠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화장법이 중세에는 일반화되었다.<sup>75)</sup>

최초의 그리스도교 국가였던 비잔틴제국은 그리스도교가 성행하면서 기혼여성이 머리와 얼굴을 천으로 덮는 풍습으로 신경을 써서 화장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러한 화장을 경시하는 경향은 그리스철학(갈레누스가 남긴 의학적 주장으로 궤양과 여러 질병들을 유발하는 유해한 것으로 기록)에서 전승된 진부한 문구들과 로마의 풍자(더럽고 저속한 화장은 음탕함과 매춘을 상징하는 도덕적 논거를 가지고 있었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76)</sup>

71) 도미니크 파케(1999), 앞의 책, p.18.

72) 하루야마 유키오(2004), 앞의 책, p.61.

73) 구약성서, 이사야 3장 24절, 예레미야 4장 30절.

74) 도미니크 파케(1999), 앞의 책, p.18-20.

75) 히데오 아오키(2004), 유태순·조기여·이화순 역, 서양화장문화사, 서울:동서교역, p.43.

하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과도한 화장품을 사용함으로 해서, 피부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고 조치가 정부로부터 내려지기도 했다.

1453년에 비잔틴이 몰락하고 고대 수사본들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면서 로마 제국의 화장품 조제법과 미용법이 유럽에 전해졌다. 되찾은 지식들 덕분에 얼굴과 육체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는데, 그 중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것은 피타고라스의 조화에 관한 법칙과 아름다움, 정의, 진실에 관한 플라톤 학파의 이상주의였다.<sup>76)</sup>

르네상스 시대의 화장법의 시초는 화장법에 대해 가르치는 책이 나온 이탈리아에서 프랑스와 영국에 진한 화장법이 전해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시대의 화장분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납의 사용이 일반적이어서 짙은 화장의 유행은 여성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했다. 1760년대 영국의 코벤트리 백작 부인은 납 가루와 비소를 섞은 분으로 유명처럼 창백한 화장을 했기 때문에 스물일곱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전해진다.<sup>78)</sup>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짙은 화장이 사라지고, 낭만적인 문학작품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창백한 얼굴이 유행하였다. 짙은 화장은 여배우나 고급 창녀의 표시로 간주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르네상스 정신과 정치적 경향은 로만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융합시켜 새로운 예술 스타일인 바로크를 출현시켰다. 바로크시대는 불결한 시대로 전해진다. 목욕을 잘 하지 않았고 왕의 침대에서도 벼룩과 이가 있었다고 한다. 목욕을 기피하는 시대에 향수의 사용은 확대되었고, 여성들의 하루일과는 오후 1시 쯤에 일어나서 3-4시간의 화장을 하고 극장이나 살롱을 출입하였다. 로코코시대 화장의 특징은 아침화장과 머리에 흰 분을 바르는 것이었다. 이 시대의 남녀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밀가루 분을 머리에 뿌리는 화장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그것은 로코코의 사람들은 노년을 싫어하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

---

76) 도미니크 파케, 앞의 책, p.33.

77) 위의 책, p.44.

78) 하루야마 유키오, 앞의 책, p.81.

것이라고 한다. 청춘을 길게 보내고 싶어 열망한 결과, 연령의 차를 없애기 위해 늙은이도 젊은이도 회색의 머리를 하게 되었다. 제2의 로코코 시대라고 불렀던 1850-1870년경에는 화려한 크리놀린과 함께 사교계를 중심으로 밤의 모임을 위한 짙은 화장이 유행하였다. 빅토리아시대는 화장품이 발달한 시기로 분과 립스틱, 볼연지가 사용되었고, 아이새도와 마스크라가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sup>79)</sup>

20세기 전반의 메이크업은 산업화로 인한 화장품 공업의 발달과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이상적인 여성미의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메이크업 경향을 주도하였고, 이는 일반인들에 의해 그대로 파급되어 미적 형식에 있어서 획일화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의 다원성과 불확정성 가치는 예술 전반에서 표현의 무제한성<sup>80)</sup>을 허용하고 있고,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미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 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현대 패션은 경기 침체와 걸프전의 영향으로 절제와 구시대의 복고적 경향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세기말적인 경향과 미래적인 경향이 공존하고 있으며,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오염에 대한 반발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자연주의, 복고주의, 미래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예술의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메이크업도 다양한 양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비주류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움의 충격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고 있다.

79) 히데오 아오키, 앞의 책 pp.89-90.

80) Richard Appignanesi(1995), 이소영 역,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이두, p.44-45.

## 2)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역사적 배경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과 관계가 있는 복식사조들 중에 19세기 복식의 절충주의를 시작으로 20세기의 절충주의, 60년대에 시작되어 8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분파인 해체주의를 통해 하이브리드 현상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하이브리드 패션의 계보에는 19세기 패션에 등장하는 역사적 절충주의 복식이 있다.

절충이란 서로 다른 것을 적절히 조화시킴을 의미한다. 예술이나 철학에서도 이러한 절충현상은 자주 발견되지만, 건축이나 패션에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다원주의(Pluralism), 혼합주의(Synchronism)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절충주의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회랍 철학에서이며, 19세기의 미술과 건축, 20세기의 포스트모던 건축에서도 재출현하였다. 건축에 나타난 역사적 절충주의는 19세기 후반의 전통적 절충주의와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등장한 급진적 절충주의로 대별되며, 이들 모두 과거의 양식을 참고로 한 역사적 절충을 나타내고 있다. 시대적 양식 규칙과 관습이 엄격할 때에는 양식의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이 불가능하다. 반면, 위의 두 시기는 여러 양식의 혼란 속에 시대적 주류를 이루는 특정 양식이 부재 했던 시기로, 다양한 근원으로부터 선택적 절충이 가능하였다. 그 가운데, 전자는 역사 속의 양식 또는 부체계(sub-system)를 적절한 곳에 선택하였고, 후자는 과거의 역사적 양식들을 자유분방하고 수사적인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여러 절충의 요소들을 한 건물 안에 혼합한 의미론적 취합을 이룩하였다.<sup>81)</sup>

19세기 역사적 절충주의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복식은 구성 요소들의 부조화로 인해 역사상 가장 추한 양식으로 알려진 빅토리안 복식으로서<sup>82)</sup> 로 맨틱, 크리놀린, 버슬 스타일 시대를 포함한다.

진정한 양식의 부재 속에 과거를 참고로 한 역사적 절충주의 건축을 선호하

81) 권택영, 윤도근(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서울 : 문예출판사, pp.397-398.

82) Marilyn J. Horn · Lois M Gurel, 이화연 외 역(1991), 의복 제2의 피부, 서울 : 도서출판 까치, p.378.

던 이 시대 대중들의 취향은 복식에도 반영되어, 고딕의 주된 형태, 르네상스의 러프 컬러, 바로크의 풍성한 소매와 넓게 내려앉은 컬러, 동양의 터번 머리 장식 등이 유행하였다.

현대에 나타난 역사적 절충주의 복식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스티븐 코너(Steven Connor)는 포스트모더니즘 가운데 장식, 치장, 스타일상에 있어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절충주의로의 회귀라고 하였다.<sup>83)</sup> 이반스와 톨톤(Evans & Torton)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패션의 특성을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 반 패션 및 전위적인 형태로 규정짓고,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여성적인 것, 반 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설명하였다.<sup>84)</sup>

포스트모더니즘 복식의 특징은 역사성, 토속성, 상징성, 전위성으로 분류되어 모더니즘의 국제주의, 물 역사주의, 단순한 기계미의 특징에 반(反)하여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문화적 생활 양태와 복합적인 가치관은 현대인들에게 과거와 주변의 소외된 문화에 눈을 돌리게 했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은 역사와 문화와 사조 등을 단편화·파편화시켜 자유롭게 혼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분파로 볼 수 있는 해체주의는 건축의 양식으로 수용된 후 복식에 적용된다.

해체주의(Deconstruction)는 구조주의(Structuralisme)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등장한 후기구조주의의 사상 중 하나로, 그 근간을 이루는 자끄 데리다(Jacques Derrida)의 이론<sup>85)</sup>이기도 하지만 실물로 표현되는 건축과 복식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의 결과로, 전위적인 형태로 규정짓고, 가치와 무가치가 쉽게 바뀌고 여성적인 것, 반 여성적인 것, 역사적인 것, 민속적인 것 등이 무질서하게 나타나는 복잡한

---

83) Steven Connor, 김성곤·정정호 역(1993), 포스트모던 문화, 서울 : 한신문화사, p.225.

84) Caroline Evens·Minna Thornton(1989), *Women & Fashion*, New York : Quartet Book, p.59.

85) 윤병호(1992), 후기구조주의, 서울: 고려원, pp.17-18.

현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형태의 연장으로 표현되어 패션에서 20세기에서 21세기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사조로 자리매김했다.

해체주의의 특징은 이성 중심적 태도를 지양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역사를 과거의 향수가 아닌 탐색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자아의 주체 중요시하고,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타자를 인정하고 포용한다.

절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의 기본 특징들 중에 절충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의 단편화된 현상은 하이브리드 현상의 중요한 특징이고, 해체주의의 절대적인 진리나 중심이나 근원의 독선과 횡포를 거부하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 또한 하이브리드의 근본이 되는 개념이 되었다.

오늘날의 예술가나 작가들은 더 이상 새로운 세계와 스타일을 만들어 낼 수 없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으며 단지 제한된 숫자의 조합만이 가능하다고 논의 한다. 스타일상의 개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세계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은 스타일들을 모방하는 혼성모방 뿐이라고 제시하고<sup>86)</sup> 서양에서의 동양 문화를 섞는 혼합문화의 시도<sup>87)</sup>는 누가 주장해서 만들어진 개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단편화된 시각으로 인지하여 복합, 혼합 시켜 잡종적인 개념으로 믹스하는 것이 하이브리드 패션과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이 되었다.

---

86) Fredric Jameson(1994), 윤희병 외(역), 반 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서울: 현대미학사, p.75.

87) 김형진(2003), 문화예술의 퓨전적 해석, 서울: 한솜미디어, p.47-48.

### Ⅲ.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패션

#### 1. 하이브리드 패션

WTO 출범 이후 세계는 국경이 없는 시대의 도래로 국경이 없는 세계(Borderless World), 국경이 없는 경제(Borderless Economy)로 변해가고, 세계시장에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없는 무한 경제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였다.<sup>88)</sup> 이러한 국경의 붕괴는 여러 문화와 사회의 융합과 공존의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패션에서도 혼성과 절충의 개념인 하이브리드 패션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이브리드 문화를 논하기 전에 주변과 중심<sup>89)</sup>이라는 두 가지의 양분화된 개념을 하이브리드 관점에서 보면 주변은 어떤 주체가 되는 중심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이방 즉 주변이지만 다른 주체가 되는 중심문화와 합해졌을 때 기존의 중심문화보다 더 중심의 문화에 가깝다는 이론이다.

주변이라는 것을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하는 지점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지리학적인 비유로 ‘경계지역(edge place)’의 도시로 베니스, 암스테르담, 런던, 홍콩 등은 이질적인 사람, 문화, 교역의 연결점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 중심(center)으로 거대한 제국이나 관료제의 수도, 혹은 종교의 성지 역할을 하는 도시인 모스크바, 바그다드와 같은 도시를 들 수 있다. 경계지역의 문화가 코스모폴리탄(cosmopolitan)적이고 잡종적이며 외부로 쉴 새 없이 뻗어 나가는 특성을 지니는데 반해, 중심 문화는 정체와 부동의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잡종은 부동의 중심이기보다 변화와 발전의 소용돌이 그 프론티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변방이 창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소위 ‘중심’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변방에서는 의심하고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기존의 과학 패러다임에 동화되기 이전의 젊

88) 김병옥·이상례(2003), 현대 남성복식에 나타난 Bordless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5(5), pp. 470-480.

89) 홍성욱(2003), 하이브리드 세상읽기, 서울: 안그래픽스, p.22.

은 과학자들이 때때로 무척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과학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프레넬(A.Fresnel: 19세기 초엽에 빛의 파동이론을 제창)이 혁명적으로 창조적인 이론을 주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주변성, 변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드, 아인슈타인, 피카소,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처럼 창조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이들이 모두 태어난 곳과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가졌음을 밝혀내었다. 이는 서로 다른 두 세상이 접합되는 접점의 긴장이 창조성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협동 연구나 학제간(interdisciplinary)연구가 종종 혁신적인 결과를 내놓는 것도 서로 다른 두 세상을 섞을 때 창조적 통찰력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sup>90)</sup>

중심문화는 고립된 작은 세상의 중심이지만, 주변은 다양한 세상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고리다. 잡종적인 존재는 연결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잡종적인 시각은 세상을 고정된 중심과 변방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끊임없이 확장되는 잡종적인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global communication network)<sup>91)</sup>로 생각하고, 그 상호 연관에 주목하며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세상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고민한다. 울타리 속의 작은 세상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창조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 전지구화 과정과 함께 우리는 순수와 비 순수, 순종과 잡종, 동양과 서양, 여성과 남성, 중심과 주변 등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유체계에서 벗어난 혼성과 합성적인 사고 체계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끊임없이 생산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의 소용돌이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차원과 방법으로 상호연결이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더 이상 무언가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나아가서는 절대적인 새로운 창조를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모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문화생산은 결국 하이브리드 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문화에 매우 익숙해

90) 위의 책, p.23.

91) 홍성욱(1998), 잡종, 새로운 문화읽기, 서울: 창작과 비평사, p.251.

져 있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관심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이브리드 문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사용하는가, 또 거기서 어떠한 또 다른 ‘새로운 비전’을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sup>92)</sup>

오늘날 작가들은 각자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 지적 백그라운드를 토대로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개별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전통과 현재, 실제와 가상, 순수와 잡종 등이 공존하는 혼동과 동요 속에서 그들만의 ‘창’을 통하여 현대 문화를 체험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구축하여 새로운 그림을 구상한다. 이것이 바로 현대 작가들의 작업태도와 방식이며,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형태이다.<sup>93)</sup>

독일이 통일되고 거의 모든 공산주의 체제가 몰락하면서 냉전은 종식을 고하였다. 그와 함께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라는 새로운 단계로 향한 길이 열렸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확신들이 존재했고 전 세계에 걸쳐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졌던 시대에 이어, 이제 ‘세계의 새로운 무질서’라고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불안정성의 시대가 온 것이다.<sup>94)</sup>

오늘날 눈부신 기술 발전에 힘입어 대중문화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으며, 대중매체들이 하나의 지구촌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사회의 ‘맥도날드화’를 겪고 있으며, 세계적인 ‘MTV(미국의 음악 방송채널)세대’의 출현을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의 대응점에 정반대로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요구가 등장하고 재분출하고 있으며, 때로는 극히 제한적인 민족적, 국민적, 문화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다.<sup>95)</sup>

‘글로벌도시’의 문화는 본질적으로 하이브리드 문화이다. 이질적인 문화들이 섞여서 매일 매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특히 세계 곳곳의 대도시들은 미국 문화가 지배적으로, MTV, 매켄토시, 맥도날드로 대표되는 미국 문화를 가리켜 ‘맥월드(McWorld)’라고 부르고 ‘코카 식민지화(Coca-Colonization)’라는 말이 유

---

92) 홍성욱(2004), 앞의 책, pp. 6-10.

93) Exhibition Report, 「MixMax」전. 자료검색일 2004/3/8. <http://www.samsungdesign.net/>

94) M.Martiniello,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p.13.

95) 위의 책, p.15.

행할 정도로 미국문화의 확산은 전 세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은 도시의 문화적 주류가 미국 문화는 아니다. 프렌즈, 심슨가족, X 파일 등 미국에서 인기 있는 TV프로들이 국내에선 오히려 한국 연속극이나 시트콤에 비해 인기가 없고, 지난 2-3년간 할리우드 영화보다 재미있는 한국 영화에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몰리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맥도날드나 웬디즈 같은 월드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도 불고기버거처럼 미국과는 다른 ‘잡종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잡종 문화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도 근대화와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거나 구성된 것이 많다.<sup>96)</sup>

이제 한 국가와 민족공동체로서의 국민을 연결하는 전통적인 민족국가 개념이 더 이상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변천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로는 급격한 지리적, 정치적 지각변동, 그와 아울러 전 세계에 걸친 이민으로 인한 변동, 그리고 소수민족과 국민 내 소수집단, 그리고 이민자 집단 등 소수집단의 권리 자각을 들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국가, 특히 유럽 연합과 북미의 국가들은 결코 내적으로 동질적이지 않다. 물론 그 다양성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가 다문화적이고 다민족적인 총체로서, 때로는 그 안에는 극히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이 공존하고 있다.<sup>97)</sup>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지향하던 서구의 정치 체계 내에서 최근 국가 상위의 차원 혹은 국가 차원에서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정체성의 다양성이 ‘재발견’ 되고 있다. 그와 함께 사회적, 정치적으로 격화된 형태의 민족주의와 지역주의, 심지어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데올로기가 재등장하였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 사실 지역공동체, 국민공동체 같은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그 성원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데 반해,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다양성은 두려움을 일으킨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매력적이다. 도시의 소비와 생활양태에 있어서 이국 취향의 추구가 특히 상업

96) 홍성욱(2003), 앞의 책, p.27.

97) 유정석(2003).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47.

적으로 성공을 거둔 예가 그런 매력을 말해 준다.

교육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의 초기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다문화주의는 분야별로 그 해석의 성질은 차이가 있으나 그 근본형질인 공익(共益)구현이라는 의미로 현시대와 미래의 긍정적인 문화코드로 자리 잡고 있다.<sup>98)</sup>

한 사회 속에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가 다양한 층위로 공존하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은 일이백 년 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다. 이렇게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에 대한 잡종적(하이브리드)태도’와 같다. 문화라는 것을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맺어 주는 방식을 결정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규범의 총체라고 볼 때, 문화에 대한 잡종적 태도는 우리와 세상 곳곳에 존재하는 타인들 사이의 잡종적인 ‘연계(connectivity)’를 더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는 문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즉 우리 것인가 외국 것인가의 양분법을 가지고 문화를 나누기보다는 그것이 지금 세상에서 열린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세상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기 전에 만들어 졌던 전통 문화 중에는 네트워크 혁명의 지금 세상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다. 현재의 문화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해서 전통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가 아니며, 다문화주의는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적 질서의 창출에 기여한다.<sup>99)</sup>

하이브리드라는 이 시대의 코드는 패션이 모든 예술의 마지막 결정체의 역할을 하는데 풍부한 모티브를 주고 있다. 개념과 관념으로만 아는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이 개인이 사유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지식으로 패션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화전달 객체로 사용된다.

케이블TV와 미디어, 영상의 발달로 각 국의 패션이 전 세계에 동시에 전달되면서 최신 패션정보를 일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패션은 국가나 문

98) D.Kellner, 김수정, 정중희 역(1997), 앞의 책, p.178.

99) 위의 책, p.181.

화의 장벽을 뛰어 넘어 세계인이 공유하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sup>100)</sup>

생활양식의 변화와 레저, 여가생활의 확대에 기인한 패션의 하이브리드 경향은 매우 두드러지는 형태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장르간의 퓨전으로 가속화되고 있으며 문화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다양성과 전통적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던 스타일 역시 패션에서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서고 있다.

최근 사회의 다변화와 인터넷과 컴퓨터문화가 발달하면서 문화 장르간에 퓨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런 통합과 융화는 문화전체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화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최근의 트렌드에서 확실히 구분지을 수 있다. 해체와 재구성으로 하이브리드 클래식룩이 재구성되고, 수공예적인 터치가 돋보이는 민속품들이 믹스되어 멀티 에스닉룩이 제안되고 있다.<sup>101)</sup>

현재 프랑스에서는 장 폴 고티에의 ‘빵을 소재로 하는 전시회’가 파리퐁데시옹 까르띠에(Fondation Cartier)에서 전시되었다. 현대미술이나 패션과 아무 관련이 없는 빵을 전시장으로 끌어 드려 이 시대 예술의 화두인 모든 장르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호해지는 하이브리드의 실험적인 전시가 패션과 함께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되고 있다(그림4.5.6).

본래 하이브리드란 서로 다른 것의 혼합으로서 이국적이라는 요소 혹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통한 다양성과 전통적으로 서로 조화되지 않는다고 인식되던 기존의 모든 법칙들이 혼합되어 표현되면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전체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게 된다.<sup>102)</sup> 이는 곧 패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새로움이라는 창조의 원천으로서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션의 혼합과 퓨전이 문화적 코드로서 떠오르게 된 이유는 현대

100) 한국패션 편찬위원회(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p.25.

101) 김도연(2001), 패션 트렌드 정보의 소비자 수용,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4.

102) 김정호(2001), 현대 실내디자인의 혼성적 표현경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

인들의 기호 세분화, 다양화를 들 수 있으며 하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할 수 있다.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이 형성되기까지 문화적·타 장르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 이후에 문화적 혼재는 전반적으로 매우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크게 부각되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 생활의 확대와 같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패션과 자동차, 음식, 주거생활, 레저 및 여가 등 모든 분야에서 쉽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음식문화는 동·서양의 음식을 혼합한 다국적 요리인 Fusion Food가 이미 오래 전부터 새로운 분야로서 나왔고<sup>103)</sup> 90년대 중반이후에 외식문화의 흐름을 바꾼 새로운 문화로서 자리 잡았다.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필수적인 도구인 자동차는 현대의 새로운 생활패턴에 부응하기 위한 복합차량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복합차량은 전통적인 세단과 레크리에이션의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승합차와 트럭의 기능을 겸비한 차량을 뜻한다. 이런 복합적인 용도를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는 복합적인 기능을 만족시킨다는 의미에서 크로스오버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sup>104)</sup>

또한 영화와 음악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분류법이 무의미한 다양한 장르의 혼합이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난다. 멜로나 액션, 코미디 등의 분류법을 초월한 무비스타일의 출현은 다양한 장르가 주는 재미를 통해 신세대 관객을 사로잡았다. 이런 다양한 장르의 혼합<sup>105)</sup>은 여러 가지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시대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류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음악의 퓨전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서 클래식과 팝의 절충 이외에도 동·서양과 라틴 팝의 믹스 등으로 기존의 패턴에 식상한 젊은 세대에게 대안

103) 이혜주·김계연(2002), 생활환경에 나타난 퓨전문화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15, p.168.

104) 송세영(2001), 크로스오버 경향에 따른 자동차 디자인 변화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3.

105) 이혜주·김계연, 앞의 책, p.170.

을 제시하였다.<sup>106)</sup> 미술에서 역시 추세는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미술전시에서 무용과 패션의 요소를 도입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경향 역시 증가추세이다. 이러한 장르의 혼합은 제3의 문화적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쳐 21세기적인 문화코드로 정착되었다.<sup>107)</sup>

소비성 및 가치변화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지향과 감성 지향적 소비형태의 변화로 소비자들의 패션에 대한태도와 트렌드의 수용도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의 실시 등으로 여가시간 증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기준의 변화에 의해 off time과 on time 모두를 고려하여 코디네이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강조된 스타일이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의 이런 사고방식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상품기획의 전환의 중요성을 더 하고 있으며 기존의 포멀한 수트개념에서 벗어난 스타일 혹은 스포츠웨어의 본래의 기능적 목적에 변화를 준 스타일 등 하이브리드 미래지향 룩을 등장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패션 마케팅에도 영향을 주어 콜라베레이션(Collaboration)<sup>108)</sup>이라는 21세기의 소비자 욕구변화의 결과가 탄생하게 되었다.

---

106) 홍정수, 오희숙(2002). 20세기 음악미학이론. 서울: 심설당, p.299.

107) 홍성욱, 앞의 책,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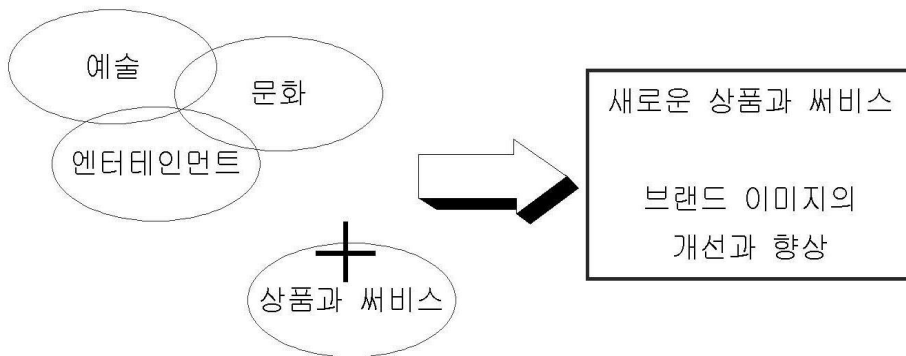
108) Collaboration이란 원래의 말 뜻 그대로 협동, 합작, 협조 등을 의미하며 동종업계 혹은 이종업계간의 협업을 통해 각 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말한다. 2001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업과 기업간 협업 비즈니스는 각 사별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패션 분야에서도 21C 패션 비즈니스의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Collaboration 비즈니스는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B2C에서 B2B, 내수에서 해외 비즈니스, 소호(SOHO)에서 기업 형태의 사업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협업 비즈니스는 여러 분야를 결합한 하이브리드(Hybrid) 형태를 띠면서 더욱 다양화,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Collaboration의 등장 및 확산의 배경은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에 따른 "패션의 라이프스타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유행'이라는 의미의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협업(Collaboration)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는 Collaboration이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소득, 고정보, 고감성, 고감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Collaboration이다.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콜레버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사업스타일이 새롭게 성행하고 있는데, 콜레버레이션의 사전적뜻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잘 연합되지 않은 기관과 기꺼이 협동하는 것"<sup>109)</sup>으로 21세기의 패션 마케팅 전략으로 주목되고 있다.

패션은 계속 진화하고 이에 따라 패션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 그 가치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간다. 기존의 패션 개념에서 갈수록 그 의미가 확장되고 소비자들의 욕구 역시 다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된 콜레버레이션은 향후 패션 뿐 아니라 타 업종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이다. 따라서 패션 제품의 디자인 및 이미지 컨셉, 매장의 역할과 활용, 소비자 서비스와 가치, 운영 시스템, 경영 전략 등에 있어 동종업계 혹은 이종업계간의 협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마케팅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sup>110)</sup>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패션 분야의 콜레버레이션 형태는 패션 상품이나 서비스, 마케팅 요소와 예술(art), 문화(culture),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문화마케팅의 맥락과 더불어 이러한 콜레버레이션은 기존의 브랜드 및 유통 이미지를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으로 활용될 것이다.

출처: 삼성디자인넷



<그림 3> Collaboration 형태의 구조모형

109)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1986), Springfield, Massachusetts, Merriam-Webster, p.250

110) 콜레버레이션(2004.6.23)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하이브리드 패션을 분류하는데 있어 기존에 사용되었던 전통적인 분류법이 무의미하여졌고, 21세기의 새로운 코드인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최소한 연간 2번 이상 새로운 스타일과 컬러가 선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레저웨어와 같은 특수한 마켓 분과에서는 독특한 패션 트렌드의 흐름이 연중 내내 영향을 미치며 빠르게 변화한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패션을 분류하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트렌드의 유행요소의 발표에 비중을 두어 분류하였다.

패션업계의 수요는 매우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이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에 관한 아이디어로 귀결된다. 물론 어느 시즌에나 적용될 수 있는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시스템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 편이지만, 어떤 상품을 주력 아이템으로 선택하여 생산해 낼지에 관한 세분화되고 잘 짜여진 옵션을 고려해야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실상, 대부분의 패션의류업체는 지난 시즌의 디자인 혹은 타사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 영감(Inspiration)은 다양한 곳에서 착안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소스(Source)들은 다음과 같다.

- 패션계의 역사(History) 및 디자인 古 자료들
- 국민들의 의생활 습관 (판초-남미 원주민의 외투의 일종, 볼레로-스페인 무용의상, 기모노-일본 전통의상, 파카-에스키모인들의 외투)
- 작업복 (청바지, 스웨트셔츠 Sweatshirt, 더플코트 등)
- 최근 패션(가까운 과거)의 재활용 (미니스커트, 일자바지 등)
- 스포츠웨어 (스키복, 럭비셔츠 등)<sup>111)</sup>

위와 같은 디자인 소스를 기초로 하여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11) 패션정보실, 자료검색일 2004/8/3. <http://www.samsungdesign.net>

## 2. 하이브리드 패션의 분류

하이브리드 현상은 19세기의 절충주의와 국제화의 규격화된 모더니즘을 거치며, 20세기 말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에 이르는 시대적 사조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 받고 있다.

21세기에 나타난 하이브리드 패션 체계는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서 나타난 것으로, 이전의 사조들은 하이브리드 패션의 여러 유형을 이루는 토대가 되었으며, 하이브리드 작업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하이브리드 패션 분류의 이론적 근거를 20세기 말까지의 사조에 관한 연구 중 다음의 글에서 도출하였다.

오승혜<sup>112)</sup>는 복식에 나타난 퓨전현상을 성의 퓨전, 시·공간의 퓨전, 동·서양의 퓨전으로 나누어 분석했고, 박연정<sup>113)</sup>은 이원론에 입각하여 복식을 형태, 소재, 양식으로 나누어, 고급과 저급, 상류와 하류 양식의 혼합으로 분류하였다.

양희영·양숙희<sup>114)</sup>는 절충주의 양식을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분류하여 두 양식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모색하는 것으로 고급예술, 고상한 취미, 고전주의 등의 기존개념을 탈피하여 모든 영역간의 조화로운 화해와 공존을 지향하고 있다.

나현신<sup>115)</sup>은 복식의 절충주의 양식을 조형성, 장식성, 기술성, 모호성으로 나누고, 분류된 4가지를 모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양식과의 절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송경자<sup>116)</sup>는 듀얼리즘적 복식특징을 성의 공존, 속옷과 겉옷의 공존, 이질감

---

112) 오승혜(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3) 박연정(1997). 복식디자인의 이원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4) 양희영, 양숙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4 No.4, p.538.

115) 나현신(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 나는 소재공존, 동·서양 양식의 공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공존으로 나누어 그 표현양식을 분석했다.

최혜정<sup>117)</sup>은 현대패션을 다문화주의와 연결시켜, 양성화경향, 제3세계와 결합, 테크노(미래)·사이버와의 결합, 복식에서의 하이브리드 결합으로 분리하고 하이브리드 복식을 하이패션과 스포츠의 하이브리드로 보고 스포츠와 하이브리드된 예를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유미<sup>118)</sup>는 21세기 전후의 퓨전 현상을 남성과 여성의 조화, 동·서양의 조화, 과거와 미래의 조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로 나누어 패션 트렌드의 퓨전현상을 제시하였다.

최수아<sup>119)</sup>는 패션에 나타난 퓨전을 시·공간·상황의 퓨전, 사회계층에 따른 퓨전, 성의 퓨전, 장르의 퓨전으로 나누어 패션에 나타난 예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박연정과 송경자는 싼소재와 비싼소재, 재질감에서 이질성을 띄는 직물로 나누어 분리하여 현대 패션을 소재의 혼합을 통하여 보았고, 최혜정은 분류목록에 하이브리드를 첨가시켜 광범위한 절충적 패션을 제시했다.

위 연구의 공통적인 분류의 예는 시·공간을 동·서양으로 분리한 것과 성의 퓨전과 상류와 하류층의 분류로 들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필자마다 포스트모더니즘적, 절충주의적, 퓨전적인 기본 개념하에 차별화된 시각과 이론 하에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분류의 근거를 토대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21세기의 패션 현상을 하이브리드로만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20세기와는 차별화된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패션 트렌드에 근거하여

---

116) 송경자(1999). 1990년대 복식에 나타난 듀얼리즘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17) 최혜정(1999).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8)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19) 최수아(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 현재, 상류, 주류의 개념은 현재 패션 트렌드의 고전적인 기본요소로 보고 그 특징을 명시하지 않고 전개하였다.

###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

세계 전역의 고유한 민속복식을 현대패션에 절충하는 다원적인 태도는 국제성 속에 지역성과 전통성을 강조<sup>120)</sup>하고 있으며, 특히 서양위주의 패션쇼에서의 동양문화의 차용은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현상에서는 그 지역을 극동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가로 한정하여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그 경향을 파악했다(그림8).

먼저 서양 복식에 나타난 동양의 영향을 간략하게 고찰해보면, 기원전 2세기 경부터 개발되었다고 하는 실크로드를 통한 인도의 보석, 진주, 면직물과 소량의 중국 실크 유입은 동서복식 문화교류의 전초역할을 했다.<sup>121)</sup> 십자군 전쟁(1096-1291)은 유럽인들이 중동의 화려한 의상과 접촉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궁정 복식의 발달에 큰 역할을 하였다.<sup>122)</sup>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화려한 직물과 직조, 복식의 길이와 폭의 확장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양 복식은 십자군 전쟁을 계기로 앞트임과 앞트임으로 인한 단추 사용, 자수, 금·은사를 꼬아 만든 허리장식 등의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다.<sup>123)</sup>

동·서양의 접촉은 동양의 직물과 복식뿐 아니라 동양 문화 전체가 서양 복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고,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문화적 범위도 확장되었고, 동양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요소와 직물, 의복 품목도 증가하였다. 16-17세기에

120) 김지연·이경희(2004), 현대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적 표현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권 1호, pp. 9-16.

121) 정홍숙(1981), 복식문화사: 서양복식사, 서울: 교문사, p.89.

122) V. Steele(1988), *Paris Fashion: A Cultural History*, N.Y: Oxford Univ. Press, p.19.

123) 은영자(1981), 십자군 원정시 서구의 복식에 관한 고찰,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pp. 6-21.

이르기 까지 나타난 오리엔탈룩은 대개 가면극 의상으로 착용되었다.<sup>124)</sup> 18세기 연회, 궁정의 가면극, 축제에 영감을 준 민속적 혼합물들은 터키풀과 중국풍을 모두 포함했고,<sup>125)</sup> 영국과 유럽대륙에 많은 부를 가져다 준 동인도회사를 통한 인도 직물은 면직물과 모직물의 주요 원천이었다.<sup>126)</sup> 동인도 회사의 주요 거점은 주요 직물 생산 지역과 일치했다.<sup>127)</sup> 또한 실내장식, 직물 등의 다른 분야와 함께 복식에서 중국풍은 중요한 요소였다.<sup>128)</sup>

19세기의 이국풍은 군사적 정복과 보호령의 설치와 고고학적, 문화적 발견, 세계 박람회 등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박람회는 일반대중이 처음으로 외국 제품을 직접 접촉할 수 있었던 계기였으며, 중국과 일본의 견직물과 기모노가 1878년 박람회에서 판매되었으며 골동품과 이국적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과 백화점도 생겼다.<sup>129)</sup> 1855년 일본은 서양에 문호개방을 하고 첫 번째 상업조약에 서명하였다. 일본과의 국제적 무역이 이루어지게 되자 일본의 기모노를 비롯한 복식과 직물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회화와 장식 미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sup>130)</sup> 1870년대 이후, 서유럽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은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며, 20세기 초반까지 동양을 포함한 비서양 지역의 대부분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되었다.<sup>131)</sup> 동시에 서양복식에 동양의 영향도 한층 심화되었다. 20세기에 들어 일본풍은 오프쿠튀르에서 변화가에 이르기까지 친숙한 것으로 자리를 잡았다.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동양에 대한 열광은 1899년 천일야화의 새로운 번역본의 출판,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성공, 모험적인 디자이너 뽀

124) B.B. Baines(1981), *Fashion Revivals: form Elizabethan age to the Present day*, London: B.T.Batsford, pp.149-159.

125) R. Martin and H. Koda(1994), *Orientalism: Visions of the East in Western Dress*, N.Y.: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p.10.

126) 위의 책, p.35.

127) J.M. MacKenzie(1995), *Orientalism: History, Theory and Arts*, N.Y.:Manchester Univ. Press, p.114.

128) B.B. Baines, 앞의 책, p.164.

129) M. Simon(1995), *Fashion in Art: The Second Empire and Impressionism*, Paris: Zwemmer, pp. 108-109.

130) 위의 책, p.115.

131) 민석후(1984), *서양사 개론*, 서울: 삼영사, p.570.

뿌아레(Paul Poiret)를 통해 다시 패션화 되었다.<sup>132)</sup>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패션의 강국으로 명성을 유지해온 유럽에서는 디자이너들 사이에 이미 있어 왔던 디자인 영감의 모티브였다. 20세기 초기 패션에서의 모더니즘을 표방하여 동양정취를 의상에 접목시킨 뿔 뿌아레를 시작으로 20세기에서 21세기를 넘어오며 표상적으로 보이는 디자인 차용에서 동양의 사상과 철학의 원류로써 동양의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로<sup>133)</sup> 철학까지 표현하려는 현대 서양 디자이너들에 이르기 까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이 시대의 패션계의 커다란 화두가 되어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의 경향을 살펴보면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세기의 첫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에서 홍콩의 Barney Cheng이 디자인한 구슬장식의 호랑이 줄무늬 청삼 의상을 입은 중국 여배우 Michelle Yeoh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양 배우들이 입은 서양 디자이너들의 동양풍 의상은 인종과 문화의 정서적인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볼 수 있다(그림7). 베르사체가 디자인한 동양풍 드레스는 Lucy가 입었고, 2003년 오스카 시상식 후보로 오른 Salma Hayek은 만다린 컬러가 달린 브라운 사틴 프라다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나타났다. 한편 리브 타일러(Liv Tyler)는 붉은색 구찌 기모노 의상을 입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 이후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과 세기말의 기조로 패션가에 오리엔탈리즘의 유행이 형성되고 있다.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와 까샤렐(Cacharel)등 유명 디자이너들은 고전 디자인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고전적인 튜닉, 일본의 화려한 실루엣, 인도의 섬세한 자수가 포함된다. 일본에 소재를 두고 있는 트렌드 컨설턴트이자 기고자인 니콜 훔(Nicole Fall)은 “동양은 문화와 전통이 견고하고 뿌리가 깊어 끊임 없이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원천”이라고 말한다.<sup>134)</sup>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 무언가 다른 영감을 찾기가 수월하고 특히 서양 디자이너들이 유럽 전통과 대조

132) B.B. Baines, 앞의 책, p.172.

133) 채금석(1995), 현대 복식미학, 서울: 경춘사, p. 241.

134) 한국무역협회 동향보고서(2003,7.21).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적인 것을 찾을 때 아시아가 그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다.

2003 S/S Collection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 향한 톱 디자이너들의 동경으로 가득 차 있다.

2002 F/W Collection에서의 Folklore Fashion이 몽골, 티벳, 라틴아메리카의 민족복식에서 영감을 얻은 에스닉한 무드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2003 S/S Collection에서는 치파오, 기모노, 한복의 절제된 라인과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를 응용한 오리엔탈리즘의 무드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4-2005의 Collection은 오리엔탈적 경향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상식화 되었을 정도로 당연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주제와 방법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양식, 매체가 수용되면서 고전적인 미의식이나 가치체계가 붕괴되고 각 문화영역들이 서로 침투하는 현상<sup>135)</sup>으로 보여지고 있는 다원화 양상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의 경향으로 동·서양의 하이브리드는 에스닉이라는 민속적인 경향과 함께 분류될 때도 있으나 현재 세계무대의 패션경향에서도 이국적인 에스닉 경향을 극동을 분리하여 유행경향에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패션정보 기자들과 바이어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미학에 따르면서도 서양의 실용성을 접목하여 독특한 패션 의상을 제작하는 아시아의 디자이너들을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아 디자이너들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서양 패션업계가 동양의 디자인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 가지 이유는 시장이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갈수록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높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디자인 브랜드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트렌드 & 뉴스 서비스업체인 Worth Global Style Network<sup>136)</sup>의 바바라

---

135) 김문숙·김현주(1997),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Vol.8, p.154.

136) Worth Global Style Network: 패션과 디자인 산업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정보 네트워크.

캐닝턴(Barbara Kennington) 편집장은 영국과 미국의 대학에서 개최하는 졸업 패션쇼에서 아시아 학생들이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유산과 서양에서 배운 교육내용을 접목하고 있으며, 이것은 이문화의 접목 이상의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37)</sup>

동양이나 서양이나 현대 도시사회의 문화는 어느 나라이건 자국과 먼저 선진화된 서구문화의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 있다. 이러한 서양의 구조적인 편리함에 익숙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느낌의 미학과 자연주의를 추구는 사람들은 서양사상이 아닌 동양의 사상에서 찾고자 한다. 서양에서 열광하고 있는 동양의 매력은 요가와 명상, 동양음식의 인기에 힘입어 그들에게 신비롭고 이국적으로 느껴지게 했다. 1990년대의 새로운 삶의 태도라고 지칭한 젠 스타일<sup>138)</sup>이나 현재의 웰빙도 동양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이미 하이패션에서는 동양적인 것의 가치가 최고급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에 따라 거리패션도 동양적인 취향으로 현대의 오리엔탈로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 (1) 중국

고대에는 여러 종류의 의복이 있었으나 현재 우리가 민속의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17~20세기 청왕조(淸王朝)를 지배했던 만주 민족의 고유한 복장에 약간의 한족적 요소가 가미된 의상이다. 특히 청일전쟁 후 여성의 의상은 다트를 사용하여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무릎길이의 기장과 짧은 소매가 새로 생겼다.

중국의 복식은 주로 실크를 소재로 하여 그 위에 금색 실이나 여러 가지 문양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여성의 실루엣을 그대로 살린 형태의 중국의상은 자수 장식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준다.<sup>139)</sup> 또한 전통복의 기본 재료도 실크로

137) 한국무역협회(2003. 7. 21.), 동양적패션 인기급증,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138) 조영아(2000), 현대패션에 나타난 동양모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5-46.

139) 이순홍 외7인(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서울: 교문사, p.114.

서양인들에게 동양에 대한 환상을 갖게한 요소로 작용했다.

대표적인 의상으로는 중국 관리의 복장인 "만다린", 남성 의복인 "창파오", 여성 의복인 "치파오" 등이 있으며, 이들 중국 민속의상의 기본적 특색은 컬러 모양, 상의의 트임, 치마 양쪽단의 슬릿의 세 가지가 있다.<sup>140)</sup>

중국풍의 문양으로 용과 나비, 연꽃, 한자 등 화려한 문양은 중국을 상징하는 주요디자인 요소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색상도 중국의 전통을 최대한 살려서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색,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는 빨간색, 고결함을 의미하는 검은색, 청나라를 상징하는 푸른색 등이 강렬한 조화를 이룬다. 이들 색들을 이용한 디자인은 다채로운 색감의 자수 꽃무늬, 전통 매듭을 사용해 동양적인 느낌을 살려낸다.

또한 2004년 디자지너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중국 상해에 플래그십 스토어 (Flagship Store: 해외 명품 브랜드의 대형 단독 매장)를 열었다. 이브 생 로랑을 떠나는 톰 포드는 고별 쇼 무대를 중국풍으로 뒀었다. 지난 4월 루이비통은 자사의 150주년 생일파티를 홍콩에서 성대하게 치러 냈다. 더불어 수교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 속 중국'에 이어 '중국 속 프랑스' 행사를 준비 중이다.<sup>141)</sup> 이러한 유명 디자이너들의 중국풍에 대한 관심과 행사는 잠재적인 중국 고객에 대한 전략도 있지만, 세계적 패션 무대에서 중국풍이 낯설지 않으며 국제적인 감각으로 인정받고 있는 트렌드로 자리잡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2 F/W 컬렉션에서는 비비안 탐(Vivienne Tam), 웅가로(Ungaro), 지안 프랑코 페레(Gianfranco Ferre)의 컬렉션에서 중국 전통복 스타일의 의상이 일부 발표되었다. 비비안 탐은 중국 전통복의 목선에서 어깨, 겨드랑이로 흐르는 트임을 응용한 탑, 차이니즈 컬러의 블라우스를, 웅가로는 중국 전통복 상의의 트임을 응용한 랩 스타일의 자켓을, 지안 프랑코 페레는 구조적인 목선과 어깨라인으로 중국 전통복의 감성을 표현하였다(그림9.10).

2003 S/S Collection에서는 스타 브랜드와 영(Young) 감각의 세컨드 라인을 중

---

140) 김혜숙(2003),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 분석,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5.

141) '오리엔탈리즘'(2004. 6. 30), 자료검색일 2004/8/10. <http://www.samsungdesign.net>

심으로 중국 치파오풀의 의상이 대거 발표되었다.

프라다(Prada)는 동양의 향기를 담은 스포티와 페미닌 스타일을 선보였는데 특히 차이나이즈 컬러의 블라우스를 미니스커트, 팬츠, 스웜 웨어 등과 코디하여 심플하면서도 섹시한 스타일을 연출하였다. 또한 세컨드 라인인 미유 미유(Miu Miu)에서도 플라워 프린트의 치파오 드레스, 크롭트 팬츠와 차이나이즈 블라우스 등 오리엔탈 감성에 큐트함을 더한 스타일을 제안하였다(그림13).

부르마린(Blumarine)은 "Oriental Evolution"을 주제로 오리엔탈 감성과 클래식 발레의상 스타일을 믹스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부르마린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전통복에서 힌트를 얻은 디테일이 고루 선보였다. 차이나이즈 블라우스와 마이크로 미니 팬츠, 가죽 소재의 오비를 코디한 레이스 코르셋 톱과 플레어 스커트, 여밈선에 플라워 자수를 놓은 한복을 연상시키는 랩 블라우스에 부르마린 특유의 로맨틱 감성을 곁들였다(그림11).

부르마린의 세컨드 라인인 블루걸(Blugirl)은 여성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페미닌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미니 팬츠, 슬립 드레스, 랩 블라우스 등 중국 전통복 스타일의 메인 아이템 발표하여 귀엽고 경쾌한 스타일을 제안하였다(그림11).

캐워크 무대 중앙에 진나라 시대의 황궁을 연상케 하는 모형 궁을 설치하였던 로버트 카발리(Roverto Cavalli)는 중국풍의 화려한 자수와 프린트가 놓인 치파오 드레스로 섹시함을 표현하였다. 용문양 자수의 가죽 블라우스와 팬츠 등은 동·서양의 절묘한 조합을 보여주었다(그림14).

<그림15>의 앤드류 지앤(Andrew GN)은 청조 시대의 중국풍과 동남 아시아풍 문양에 1960년대의 사이키델릭한 패턴을 믹스한 의상을 발표하였다. 나비와 작약 등의 모티브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컬러풀한 자수와 프린트를 만다린 컬러의 코트와 슬릿 넥라인의 블라우스, 마이크로 미니스커트 등으로 전개하였다.

<그림17>의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남성복 컬렉션은 중국복을 연상시키는 차이나이즈 컬러의 셔츠와 재킷을 발표하여 아르마니 특유의 엘리트한 감성을 보여주었다. 프라다는 차이나이즈 컬러와 중국 전통복의 트임을 응

용한 블라우스, 골드 컬러의 자카트 소재 셔츠를 발표하여 이국적이면서도 모던한 컬렉션을 보여주었다(그림16).

## (2) 일본

일본 남녀노소 민속의상의 총칭은 기모노(kimono)이다. (일본 복식사에서는 고소데(小袖)로 알려짐). 기모노는 전체적으로 몸에 밀착되지 않고 직선적인 재봉을 하여 품에 여유가 있으며, 전부 앞이 트여 좌우를 포개어 여미게 되어 있다. 앞자락은 겹쳐서 여미고, "오비"를 매어 고정시킨다. 18세기부터 사용된 오비는 시선의 중심이 되며 뒤쪽으로 여미는 형태로 배면의미를 나타내었다.<sup>142)</sup>

일본풍(Japanism)은 1970년대 이후 세계 패션이 다문화주의와 생태계 위기의 대안으로 등장한 동양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서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패션계에 일어나게 되고 이때 산업화된 명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션계에 진출한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면서 세계 패션계에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143)</sup>

19세기 중엽 서구 문화 전반에 일본 취미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가 서구 패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기에 1970년대 후반 일본 디자이너들이 산업화된 정부의 명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션계에 진출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일본의 독특한 미의식이 패션에 확대 재생산된 일본풍(Japanism)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풍은 오리엔탈패션 산업이 등장하면서 더욱 부각되었고, 동양적 가치관에 관한 논의는 동양의 사상과 문화가 서구 문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파구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양 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새롭게 부각된 공통의 관심사가 되었다.<sup>144)</sup>

20세기 이후에도 오리엔탈리즘은 복식과 예술사조에 지속적으로 반영<sup>145)</sup>되면서 패션에서 일본 전통복 기모노와 서양복과의 하이브리드한 패션은 여전히

142) 황춘섭(1997), 세계 전통복식, 서울: 수학사, pp.129-131.

143) 이은령·이경희(2004), Japanism디자인의 소비자 감정 연구, 복식, 54(3), P.74.

144) 이은령 외2인(2004), Japanism을 반영한 패션 디자인 전개에 관한 비교연구, 복식, 54(2), pp.40.

145) 성향숙(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3.

세계컬렉션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섬세한 색감의 일본풍 의상인 기모노 가운의 비대칭 여밈과 실루엣은 1980년대 이후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게이샤풍의 헤어메이크업은 컬렉션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 일본풍의 젠(ZEN)은 미니멀 패션 뿐 아니라 건축, 인테리어 트렌드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21세기의 일본풍 패션은 기모노에서 힌트를 얻은 여밈의 상의를 짧게 디자인하고 기모노의 오비를 벨트처럼 활용, 실내복 유카타와 같은 가운 형태의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2002 F/W 컬렉션에서는 발리(Bally), 구찌(Gucci), 나르시소(Narciso Rodriguez), 랑방(Lanvin), 노트(Dries Van Noten),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의 의상에서 일본 민속의상인 기모노풍이 표현되었다. 특히 <그림18>에서 구찌, 나르시소, 발리는 현대적인 라인 위에 기모노의 "오비"를 응용한 룩을 선보여 신선한 느낌을 전달하였으며, 존 갈리아노 또한 마치 가부키같은 새하얀 화장을 한 모델에게 기모노풍의 의상을 입힌 절묘한 에스닉룩 표현하였다. 발리는 가죽, 니트, 스웨이드 소재의 의상에 가죽 소재의 오비를 매치시켜 도시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오비 사이즈 실루엣과 고딕풍의 무드로 전개된 구찌의 컬렉션에서는 오비를 자켓에 매치하여 볼륨감 있는 상체를 표현하였다(그림19).

2003 S/S 컬렉션에서 구찌는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꽃, 나비, 새 등을 자수한 봄버자켓(Bomber Jacket: 주로 양가죽이나 부드러운 털의 안감을 댄 가죽재킷을 말한다. 미 공군의 비행사들이 입는 허리길이의 짧은 상의에서 응용하여 디자인한 것)과 화이트 컬러의 새틴 팬츠, 일본의 전통 문양을 프린트한 유카타(기모노의 일종) 풍의 가운 등 일본의 정서를 담은 의상을 선보여 신선한 멋을 세계 패션계에 소개했다. 구찌는 여성복 컬렉션에서도 스웬웨어 위에 새틴 소재의 기모노 가운을 매치시켜 섹시한 오리엔탈 무드를 연출하였다(그림20).

미유 미유는 마이크로 미니스커트에 오비를 매치하여 일본풍의 오리엔탈리즘을 풍겼다 . 지안프랑코 페레는 기모노 재단, 일본풍 프린트를 활용한 새틴 소재의 자켓과 원피스에 같은 소재의 오비를 매치시켜 세련된 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21).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샷갓

형의 모자가 존 갈리아노와 발망 컬렉션에 등장하여 이국적인 감성을 전달하였다(그림22).

발망, 구찌, 미유 미유의 컬렉션에서는 기모노에서 볼 수 있는 섬세하고 정교한 자수가 놓인 의상을 발표하였고 미유 미유는 브라운과 카키, 와인, 블루 그레이 등의 시크한 색상을 중심으로 한 의상위에 일본풍 자수를 넣은 보이시 스타일을 선보였다. 발망은 일본풍의 정교한 프린트가 들어간 새틴소재의 피트한 원피스와 슈트를 발표하였다(그림23).

### (3) 한국

복식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며 가시적으로 지각되는 구체적인 조형요소<sup>146)</sup>를 가진 입체감이 살아있고, 풍성한 형태미<sup>147)</sup>를 가진 한복은 현대 한국의 전통복식은 조선시대 복식의 형태를 이어받은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를 들 수 있으며 치마와 저고리로 구성되는 여성복식의 상박하후(上薄下厚)형태와 자연스런 실루엣,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곡선의 아름다움은 현대 패션에서 한국 전통미를 표현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요소이다.<sup>148)</sup>

형태면에서 한국복식의 미는 외형적 형태에서 나타나는 조형미와 민족정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미가 동시에 표출되어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부드럽고 편안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sup>149)</sup>

서구패션에 있어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전통적요소가 오리엔탈리즘으로 인식되어 빈번하게 도입되어 오고 있는 것에 반해 한국의 전통 요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이신우의 90년 도쿄 컬렉션, 93년 파리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데뷔를 시작으로 진태옥, 이영희, 홍미화 등 한국 디자

146) 금기숙(1988),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9-20.

147) 최세완(1992),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148) 여상미(1997), 현대복식에 활용된 한국복식의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경성대 논문집,18(2), p.72

149) 윤보연·배수창(2001), 현대패션에 반영된 전통 미의식의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5권 4호,p.59.

이러한 디자이너들의 국제 무대에서의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속에 한국적 조형미를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150)</sup>

21세기에 들어서 동양적 무드의 영향으로 기존의 일본과 중국풍 일색에서 한국의 모티브가 북방 고구려 복장을 중심으로 세계 패션계에 거론되고 있다.

2003 S/S 컬렉션에서 오리엔탈 발생(Oriental Evolution)을 주제로 극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의상을 총망라한 듯한 스타일을 선보인 부르마린 컬렉션에서는 여담선에 플라워 자수를 놓은 한복을 연상시키는 랩 블라우스와 복주머니 가방이 블루마린 특유의 로맨틱 감성을 보여주며 눈길을 끌었다(그림27).

존 갈리아노는 한복의 보와 흥배를 연상시키는 문양을 곳곳에 새겨 넣었고, 제니(Genny)의 비즈 장식의 의상은 한국의 나전칠기를 연상케 하였다(그림 24.25).

안토니오 마라스(Antonio Marras)는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긴 소매의 한복을 연상시키는 자켓과 한복 저고리의 디테일을 엿볼 수 있는 자켓과 블라우스를 발표하였다. 겐조(Kenzo)는 한복 저고리의 깃에 착안한 듯한 네크라인의 슬리브리스 탑을 선보였다(그림26).

아르마니는 한복의 깃과 단추를 연상시키는 디테일을 활용하여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였다. 아르마니 남성복 컬렉션에서는 한복 저고리와 같은 블라우스, 승려복 느낌의 장삼 블라우스가 발표되어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느낌을 전달하였다(그림28).

이상과 같이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 이미지가 차용된 컬렉션의 경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현실 도피적인 성향이 짙게 깔려 있는 가운데, 디자이너들은 이전과는 다른 영감을 얻기 위해 동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 발리 그리고 남지나해 등이 영감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성복 컬렉션에서는 극동 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특히 중국풍의 무드가 넘쳤다. 중국에서는 실크 직조 이전부터 대마, 아마 등의 줄기로부터 채취한 천

---

150) 박은주(1998),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0.

으로 다양한 색상으로 몸에 꼭 맞게 의장하는 관습<sup>151)</sup>의 영향으로 현대에도 화려한 컬러를 응용한 프린트와 패턴이 나타났다. 유명 디자이너들과 대형 유통업체들이 향후 확대할 시장으로 중국을 넘보고 있어서인지, 패션쇼에는 중국식의 프린트와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일본 기모노와 중국 치파오 풍의 심플한 실루엣이 많이 선보여졌다. 주요 컬러는 오리엔탈풍의 번쩍이는 컬러, 중국노랑색(Chinese yellow), 핑크, 남지나해의 블루(South China sea blue) 컬러 등이었으며 주요 소재는 중국풍의 샤이니한 새틴, 장식적인 브로케이드, 상통 실크<sup>152)</sup>, 주요 아이템은 기모노풍 탑, 기모노풍 드레스, 치파오풍 블라우스와 치파오풍 원피스 드레스 등을 꼽을 수 있다.

남성복 컬렉션에 나타난 오리엔탈 무드는 편안한 느낌의 캐주얼웨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 룩은 여름용 단품에 새로운 감각을 더하여 완벽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린넨, 새틴, 심플한 면이 기본 소재군을 이루고 있으며, 패턴과 프린트는 일본풍의 장식적인 수공예풍 프린트와 소용돌이 무늬의 자수, 불타는 용 이미지들이 보여지고 있다.

주요 아이템은 크로프 팬츠(cropped pants), 편안한 파자마 팬츠, 사롱, 카고 반바지(cargo shorts), 북고풍 야구 자켓 그리고 캐주얼 튜닉 셔츠 등 캐주얼한 여름용 단품들이며, 휴일복과 수영복을 위한 프린트와 패턴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주요 컬러는 부드러운 뉴트럴 컬러, 옅은 페일 컬러, 올리브 그린과 중간톤의 바렌 컬러 그룹 그리고 화이트 등이 보여지고 있다. 주요 소재는 다양한 두께의 린넨, 데님, 양복지, 반투명 직물, 저지, 공단 등이 보여지고 있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 가장 주목하여야 할 점은 바로 "한복" 스타일이 트렌드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3 S/S 컬렉션에서 스타급 디자이너들은 극동 아시아 지역의 앞 여밈형 민속의상 스타일을 연구, 변용하여 다양한 스타일과 소품을 선보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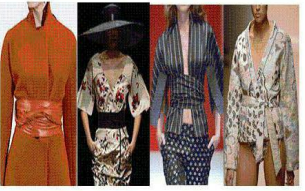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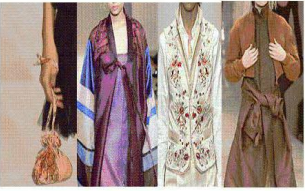
151) 임복임(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동양자수에 관한 고찰: 한국, 중국, 일본의 복식자수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6.

152) 상통 실크(shantung silk): 중국 산둥 지방에서 생산되는 평직의 견직물로 수직 실크라고도 한다.

디자이너들의 동양적 전통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전통 유산의 재해석을 통해 새로운 룩을 창조해 내게 될 것이다. 장식적인 요소의 부활, 원시적이고 지역적인 스타일, 수공예적인 감각의 동양적인 요소들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향후 몇 년간 확고한 트렌드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을 중국 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일본 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한국 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의 유형으로 나누어, 21세기의 패션현상, 전통복, 문양, 주요 디테일, 디자이너, 작품 이미지를 분류하여 <표1>에 정리하였다.

<표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유형 분류	중국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일본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한국전통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21세기 패션현상	중국의 17-20세기의 청시대의 고유복장 위주로 하이패션에 차용되고 있다	일본전통복인 기모노의 실루엣과 문양 원단의 서양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한국전통복 중 고구려 벽화의 긴 소매 한복을 위주로 서양복식과 병치, 혼합되고 있다.
전통복	만다린:중국관리 복장 창과오: 남성의복 치마오: 여성의복 쿨리: 노동복	기모노: 일본 남녀노소의 민속의상 총칭 오비: 기모노의 앞자락을 겹쳐 여미는 끈 하카마: 남자의복 유카타: 기모노의 약식스타일	한복의 깃과 동정 매듭단추 복주머니 한복의 보와 흉배 나전칠기
문양	용, 나비, 연꽃, 한자 등의 화려한 중국문양	기모노 특유의 문양(벚꽃, 열매, 기하학적 무늬)	고구려벽화, 용문양, 색동
주요디테일	컬러모양 상의의 트임 치마 양쪽단의 슬릿	오비형태의 허리벨트 오버사이즈 실루엣 일본 전통문양, 자수, 프린트, 염색 등	네크라인 슬리브스 탑 한국적 문양 복주머니 가방
디자이너	비비안 탐, 웅가로, 지안 프랑코 페레 프라다, 미유 미유, 부르마린, 부르걸, 로버트 카발리, 앤드류지엔, 조르지오 아르마니	발리, 구찌, 나르시소, 랑방, 노튼, 존갈리아노, 미유 미유, 지안 프랑코 페레	안토니오 마라스, 겐조 제니, 조르지오 아르마니, 블루마린, 미유 미유
작품			

##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레트로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는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 즉,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sup>153)</sup>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재조명되고 있는 레트로 현상은 패션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등장해온 테마<sup>154)</sup>로 이 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역사적인 것에 대한 차용 중 패션의 클래식 이 된 20세기 초기의 대표적인 스타일이 현대패션에서 어떤 것이 새롭게 하이브리드되어 표현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시즌마다 새로운 패션을 선보여야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에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옛 것에 대한 복습이다. 유행의 본고장으로 오랜 명성을 유지한 파리도 그들의 역사적인 것에 대한 모티브로 패션디자인의 창작을 유지한 것을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디자인을 위한 보고가 된다.

2001년 트렌드부터 레트로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행코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가을에는 여성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숙녀가 되어라"이고 2005년은 계속되는 50년대의 라인패션이 레트로 룩에서 영향을 받은 엘레강스하고 클래식한 무드가 강세를 이룰 것이다.<sup>155)</sup>

일반적으로 ‘복고 스타일’이라 불리는 패션의 레트로(retro)현상을 2000년대 이후 2005년까지의 패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1950년대

. 1950년이 시작되기 한 해전인 1949년은 대기업 기성복 메이커인 베이유사가

153) 이인자·양진희(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논집, 24, p.131-132.

154) 김후란·은영자(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레트로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1(2),p.295

155) 삼성패션연구소, 2005 S/S Fashion Trend.

<프레타 포르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시기<sup>156)</sup>이고 또한 다양한 실루엣이 등장했던 시기이다. 1950년대 기본 스커트 스타일은 주름이나 여러 폭을 이용해서 넓게 퍼지는 스타일과 직선적이고 타이트한 스타일로 나눌 수 있다. 크리스찬 디올(Christian Dior)이 1947년 뉴룩(New Look)을 발표한 이후, 1950년대에 들어서 이른바 알파벳 라인의 시대를 맞이하여, H, A, Y, F라인 등 여러 가지 실루엣이 탄생했고, S/S, A/W의 컬렉션이 시작되어 대중에게 라인과 룩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허리를 강조하는 아워글래스(Hour-Glass) 룩이 대표적인 유행이었다. 이 시대에는 발렌시아가, 지방시 등 오뜨 꾸뛰르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두드러져 라인과 룩(Line & Look)의 시대로 불렸으며,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패션 아이콘이었다<sup>157)</sup>(그림34).

사회적으로는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경제의 호황기를 맞이하여, 사치품과 기호품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신용카드의 등장으로 플라스틱 머니(Plastic Money)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대중매체의 힘이 커지고 할리우드에서는 마릴린 먼로, 록큰롤(Rock & Roll)의 황제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여 영화와 음악분야가 대중과 함께 크게 발전한 시기이기도 하다.<sup>158)</sup>

경제적으로는 산업발전의 영향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풍요의 시대가 열렸고, 대량 마케팅과 유통 경제의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사회 변화 및 기술 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졌다. 경기의 호황기를 맞이하여 쓰고 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소비주의 풍조로 인해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1957년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의 발사 실험을 하여 미국의 과학계를 고무시켰다. 또한 TV의 공급으로 TV를 통한 광고가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sup>159)</sup>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쟁의 공포가 예술가들의 사고방식을 현실의 세계와 자연적인 사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Action Painting과 추상 표현주의가 절정에

156) 이경희(2001), 20세기의 모드, 서울: 교학연구사, p.129.

157) Hamlyn(1988), *Key moments in Fashion*. Reed Consumer Books Limited, p.86-95.

158) 위의 책, p.89.

159) 한국패션 편찬위원회(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p.173.

달했으며, 현실 세계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내면세계를 추구한 잭슨 폴락(Jackson Pollock)의 실험적 시도는 60년대 초까지 이어져,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형태를 삼입하여 팝아트로 발전하였다.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커지고 할리우드(Hollywood)에서는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가 등장하여 영화와 음악분야가 대중과 함께 크게 발전하고, 이들의 스타일이 10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시기부터 젊은이들은 패션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재정적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고, 가정 내의 분위기도 점차 아이들 중심으로 변해 갔다. 영 패션 문화의 성립기인 50년대 중반에는 그들 특유의 패션, 음악, 댄스, 영화, 카페 등이 중심을 이루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레코드, 화장품, 잡지, 영 패션이 등장하였다.

50년대 패션에 나타난 기본적인 실루엣의 변화를 살펴보면, 가는 허리 → 하이웨이스트 → 로웨이스트의 순서로 변해 갔다. 그 후에는 허리선을 완전히 자유롭게 해방시킨 무릎 바로 아래 길이의 색 드레스(sack dress)가 나타나 유행을 선도하기도 했다.

발렌시아가(Balenciaga)에 의해 발표된 슈미즈(chemise) 혹은 싸끄(Sacque)로 일컬어지는 뉴욕 이후의 새로운 실루엣은 인체로부터 다소 분리된 것으로, 의복 안에서 몸이 움직였다. 슈미즈는 앞면이 상체의 형태에 따라 밀착되었지만, 등쪽에서는 컵처럼 감싸지거나 곡선으로 처리되어 신체로부터 약간 떨어져 있었다.

입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은 디올이 세상을 떠남에 따라 디올사의 모든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sup>160</sup>, 트라피즈 라인(Trapeze-line)과 커브 라인(Curve-line)을 발표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청소년 하위문화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다. 반항적인 젊은이들의 패션은 제2차 세계대전, 또는 그 이후 평화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었다.

1950년대의 컬러는 천연 염료의 색, 미묘한 색감, 에스닉 계열 등의 풍부한

---

160) 조향희(2000), Haute Couture에 나타난 섬유예술의 표현기법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13.

내추럴 톤이 주류를 이루었고, 이브닝 드레스를 위해서는 회록색( Sage Green), 붉은 오렌지(Burnt Orange) 등의 밝은 컬러가 사용되었다.

또한 섬유 혁명이 일어나 600여개 이상의 소재가 개발되었으며 특히 1950년대를 대표하는 합성섬유의 꽃인 나일론은 스타킹, 슬립, 원피스, 페티코트 등 다양한 아이템에 사용되었다. 면, 울, 마, 레이온(Rayon), 화인울(Finewool), 타푸타(Taffeta) 등이 널리 사용되었으며, 패턴으로는 꽃무늬 프린트, 점, 체크 패턴 등이 사용되었고, 트리밍은 끈장식(Braid), 바인딩(Binding), 가죽 단추(Leather Buttons), 그리고 수트나 코트에 커다란 단추를 다는 것이 유행하였다.

반면, 미국 디자이너들은 제 2차 세계 대전 중 미국 내 패션계에서 보여준 성공에 힘입어 캐주얼 한 고급 기성복을 제작하는데 주력하였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미국 디자이너들로는 앤 클라인(Anne Klein), 아딜 심슨(Adele Simpson), 올레그 카시니(Oleg Cassini) 등을 들 수 있다.<sup>161)</sup>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여성복에 나타난 두드러진 또 다른 변화는 바지 착용의 일반화이다. 자본주의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민주주의도 강력해져 남녀의 동등한 지위가 인정되면서, 기존의 여성에게 스커트만을 허용하던 가치관이 정장에까지 애호되어 새로운 유행을 일으켰다. 특히, 1951년 리바이스의 등장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을 패션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sup>162)</sup>

활동적인 운동복은 1930년대 발달한 스타일에 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캐주얼웨어는 당시의 일반적인 실루엣을 따랐으나 몸에 덜 피트되었다. 화려한 줄무늬와 프린트가 셔츠, 드레스, 스커트 등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50년대 스타일을 하이브리드한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은 다음과 같다.

과거의 노스텔지어를 느낄 수 있는 사랑스럽고 클래식한 50년대 스타일은 마크 자콥(Marc Jacobs), 디키니(DKNY), 루비통, 지춘희(Miss Gee Collection)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다.

---

161) Gertrud Lehnert(2000).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London: Universe Publish, pp. 42-45.

162) Hamlyn, 앞의 책, p.90-91.

마크 자콥은 hard & soft, past & present, good girl & bad girl 등 상반된 이미지를 mix & match시켜 『달콤한 복고풍』을 테마로 하였다. 1950년대 빈티지룩을 재해석하여 화사하고 단아한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허리선을 올린 하이웨이스트 드레스, 뒷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앰파이어 슬립 드레스, 핑크 물방울무늬 스커트, 치마폭이 좁은 펜슬 스커트, 샤넬풍 정장, 7부 소매의 쇼트 재킷 등이 선보였다(그림35).

지춘희(Miss Gee Collection)는 50년대를 장식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에 맞춰 마치 5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가는 웨이스트에 완만한 어깨, 볼록하게 부푼 스커트의 X자형 실루엣은 미스지 컬렉션의 페미니티와 로맨틱시즘을 선보였다(그림36).

디키니의 2003 S/S 컬렉션 주요 테마는 『Sweet Inspiration』으로, 밝은 핑크색과 흰색 물방울무늬를 사용한 로맨틱한 플레어스커트, 초미니(micro shorts) 등 생기 있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그림37).

루비통은 커다란 리본장식 스커트, 포니테일 헤어스타일과 블루 아이 메이크업, 멀티 컬러의 모노그램 가방, 플라워 패턴 등을 활용한 레트로 패션을 선보였다(그림38).

주목되는 스타일은 로맨틱시즘의 영향으로 허리라인이 늑골까지 높아지고 깎아 놓은 듯 슬림한 허리 라인이 강조된 모래시계 실루엣(Hourglass silhouette)을 통해 클래머러스한 여성의 느낌을 표현하였으며, 벨트를 이용하여 허리라인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경향은 스커트와 미니 원피스의 높아진 웨이스트라인과 재킷의 페플럼 라인(peplum line: 블라우스·재킷 등의 웨이스트 아래에 덧붙여 히프를 덮게 된 플레어 부분)이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sup>163)</sup>

그 밖에 주목 받는 스타일로는 마릴린 먼로와 오드리 햅번 스타일의 여성스러운 X실루엣(X-rated silhouette), 흰색 도트와, 고전적인 Polka Dot, 스케일 믹스나 패턴 믹스 모티브, 웨이스트 라인(waist line)까지 깊이 파여진 deep plunging과 허리선을 강조하는 벨트(belt), 플레어스커트(flare skirt), 땅을 닿을 듯한 긴 길이

163) 페플럼 라인의 기본의미로 여겨졌던 플레어가 힘을 덮는 디자인이 페플럼 라인이 올라감으로서 힘을 덮는 의미에서 게더분량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라인으로 변화되었다.

의 편안한 롱드레스, flippy skirt 실루엣의 긴 프롬 드레스와 펜슬 스커트, 치어 리더의 미니스커트, 플리츠 스커트, 개더 스커트, 트랜치 코트(classic trench)가 있었고 디자이너로는 도나 카란(Donna Karan), 마크 자콥(Marc Jacobs), 폴 스미스(Paul Smith), 미셸 코(Michael Kors), 발렌시아가(Balenciaga), 지방시(Givenchy), 셀린느(Celine)등 다수의 디자이너들이 50년대의 코드로 현대의 디자인을 하이브리드 했다.

## (2) 1960년대

1960년대는 패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로 새로운 창조력과 역동적인 발전을 이룬 시대였고 영 패션(Young Fashion)의 시대였다.<sup>164)</sup> 10대들이 주 소비자 대열에 합류했고, 젊은이들이 패션을 리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히피패션이 형성되었다. 또한 중류계층의 가치관과 규정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반항으로 젊은이들은 성별을 정의하는 표시를 희미하게하는 미의 양성적인 면을 발견하여 여성들은 짧은 머리를 남성들은 긴머리를 했다.<sup>165)</sup> 히피스타일은 1960년대 이르러 유행의 경향을 지배하는 주요트렌드<sup>166)</sup>가 되었고, 소녀들은 경박하지만 전통주의자처럼 화려한 꽃무늬의 집시풍옷,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혼여성들이 입는 술과 끈이 달린 튜닉, 매우 짧은 로브, 서로 어울리지 않는 바지등을 착용하였다.<sup>167)</sup>

1960년대의 패션 아이콘인 '재클린', 디자이너 '앙드레 쿠레쥬', '마리 퀴트'등의 영향을 받은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60년대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영 패션(Young Fashion)의 형성과 미니스커트의 대중화, 팝

164) 정현숙(2004), 1920년대와 1960년대의 패션에 나타난 유사성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2), p.229.

165) Gerda Buxbaum(1997), *Icons of Fashion*, N.Y.:Prestel, p.92.

166) 한수연(1993), 1960년대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3.

167) Jones Mabblen(1987), *Getting it on: The Clothing of Rock 'n Roll*, N.Y.: Abbeville Press  
 를 간문자(1995),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53에서 재인용.

아트에 의한 다양한 프린트는 이번 시즌에 재현되었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의 시대적인 배경과 패션의 특징을 알아보고, 이러한 레트로 패션이 2000년대 이후 가장 강하게 나타난 2003 S/S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적으로 60년대는 닐 암스트롱과 에드윈 알드린의 유인(有人) 우주선이 달 착륙에 성공하여, 우주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과 더불어 미래적인 아이디어 등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이 일어났으며, 베트남 전쟁의 비극을 경험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물질만능과 성공지향적 가치관에 대한 반항, 실리주의에 대한 갈등과 회의의 영향으로 히피(Hippie) 문화가 형성되었다. 또한 시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과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휴이 뉴턴(Hui Newton), 말콤 엑스(Malcom X) 등 흑인 세력이 부상하였고, 미국의 케네디 의원이 48세의 젊은 나이로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었고, 재클린 케네디(Jackline Kennedy) 여사는 여성 해방운동과 패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흑인 민권운동, 베트남전에 대한 반핵, 반전, 학생운동, 여권신장 운동, 사랑과 꽃, 마약과 일탈의 저항 문화, 스포츠에 대한 열광 등으로 끊임없는 변화가 있었다.<sup>168)</sup> 특히 작은 필박스, 올레 카시니의 깔끔한 수트, 단순한 A라인 실루엣 등 심플하면서도 가볍고 스포티한 모습의 '재키 룩(Jackie Look)'은 미국적인 스타일을 잘 반영하였다<sup>169)</sup>(그림39).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음악을 예술로 승화시킨 비틀즈와 롤링스톤즈에 의해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비틀즈는 존 레논의 긴 머리, 첼시 부츠, 장님용 안경, 깃발 무늬 목 수건 등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스타일을 유행시켰으며, 60년대의 독특한 청년문화를 형성하여 영 패션의 시기로 지칭되기도 한다. 그들은 에드워드 시대의 우아한 복장 스타일과 풍습을 초근대적으로 흉내 내면서 사회에 초연한 듯한 태도를 나타내는 모즈룩(Mods Look)을 유행시켰다.<sup>170)</sup>

168) 간문자(1995),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7.

169) 한국패션 편찬위원회, 앞의 책, pp. 210-211.

1960년대 중반에는 팝아트(Pop Art), 옵아트(Op Art), 미니멀리즘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성행<sup>171)</sup>했으며, 패턴이나 컬러에 영향을 주어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무늬나 강렬한 색의 배합이 나타났다(그림40).

60년대 후반에 환각적인 음악을 연주했던 가수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의 아프로헤어(Afro Hair) 스타일(전형적인 흑인의 머리스타일)<sup>172)</sup>, 현란한 보석 장식, 머리띠, 부적, 반다나(Bandana:머리에 두르는 스카프), 부츠, 동양풍의 장식은 히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패션의 모든 가능성이 자유롭게 시도된 60년대에는 수영복 위에 핑크랩 스커트를 입어 해변에서 곧바로 파티로 갈 수 있도록 연출하는 등 패션에서 레저와 스포츠, 파티의 개념이 최초로 믹스된 시기이기도 하다.

미니스커트가 자크 델라위(Jacques Delahays)에 의해 첫선을 보였으며, 65년 영국 디자이너 마리퀀트(Mary Quant)와 존 휴어(Joan Huir)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이 대중에게 소개했다. 이 시대에 미니는 노동계급과 중간 계층 출신의 여성들이 즐겨 입었는데, 패션 전문가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패션으로 창조되기도 하였다. 1965~66년을 통해 스커트는 점점 더 짧아졌고, 스커트 총 길이가 18인치되는 가장 짧은 미니스커트가 대량생산되어 판매되었다.<sup>173)</sup>

팝아트의 영향으로 60년대 중반에는 복식 소재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탈 패브릭의 경향이 가중되었다. 팝아트는 복식 디자인의 기존질서를 파괴하였고 고정관념을 정립시키려는 시도를 몰아내었다. 금속판이나 플라스틱, 비닐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였으며, 팝아트의 에로티시즘은 1960년대에 젊음과 생동감을 바탕으로 한 신체의 노출로 자연스러운 에로티시즘을 추구하여 노브라, 시스루 등 패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sup>174)</sup>

---

170) Hamlyn(1988), 앞의 책, pp.110-115.

171) 정현숙, 앞의 책, p.229.

172) 권혜기(2002), 1960년대 영국 하위문화 패션에 관한 연구: 대중음악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51-52.

173) Hamlyn, 앞의 책, p.115.

174) Seeling, Charlotte(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Konemann, pp. 186-190.

한편, 유니섹스 의상이 출현하였으며, 캐주얼 웨어로 스웨터가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단순한 운동복 형태의 캐주얼 세퍼레이츠(casual separates)가 점차 유행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팬츠 슈트가 입혀지기 시작하면서 팬츠의 판매량이 급증하였는데 주로 팬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좁아지는 스톱프 파이프(Stovepipe) 팬츠, 허리선보다 내려온 위치에서 벨트를 매거나 히프에 걸쳐 입는 힙스터(hipsters) 팬츠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 후반은 패션의 전환기로서 1940년대 후반부터 다양하게 변화를 거듭하던 라인(Line)이나 룩(Look)의 시대는 끝나고 개성의 시대로 접어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일과 자신이 좋아하는 옷길 이로 미니, 미디, 맥시, 숏 팬츠, 판탈롱 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대표적인 현상은 블루진과 블루종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 사이에 침투한 것이다<sup>175)</sup>

60년대의 디자이너로는 이브생 로랑으로 여성을 위한 텍시도 등 유니섹스 룩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고, 오퍼트, 팝아트, 에스닉 등 새로운 스타일들을 패션 속으로 이끌었다.

1965년 이브 생로랑은 몬드리안의 그림인 브로드웨이 부기우기(Broadway Boogie Woogie)를 응용한 몬드리안 드레스를 디자인해서 꾸뛰르 패션에 팝 아트의 운동을 도입했다. 이것은 오염되기 쉽고 뚱뚱하게 보이는 백색보다도 훨씬 입기 쉬우므로 많은 고객을 매료시켰다.<sup>176)</sup>

파코라반은 복식의 실험적 미학을 제창하였으며, 비닐, 종이, 셀로판, 플라스틱, 알미늄, 금속, 인조피혁, 합성수지 등 모든 가능한 소재를 대범하게 써서, 복식 디자인의 미래화로 주목되었다. 그의 소재는 점점 다양화되어 종이, 가죽, 부직포를 이용한 작품<sup>177)</sup>도 나타났다.

2001년 이후의 컬렉션에서는 1960년대 재클린 캐네디와 당시 대표 디자이너 꾸레쥬의 영향을 받은 스타일이 대거 선보였다. 60년대 패션 아이콘인 재키룩(Jackie Look)은 2001년 이후에 마일드한 패브릭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

---

175) 이경희, 앞의 책, p.138.

176) 위의 책, p.150.

177) 이봉덕·양숙희(2001), 파코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9(1), p.144.

로 표현되었으며 기하학적인 실루엣의 미래적인 스타일로 제안 되었다.

완성도 있는 꾸레쥬 룩을 표현하기 위해 A라인 미니스커트가 등장했으며, 도시적이고 저속한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마이크로 미니스커트가 선보였으며 주름장식을 하거나 셔링과 프릴 등의 디테일로 볼륨감을 살린 미니 페티코트 (mini petticoat), 풍성한 레이스 미니스커트(lace mini skirt), 여러 겹의 레이어링 (layering),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여성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큐트하고 경쾌한 스타일로 전개한다.

프린트와 패턴은 큐비즘의 영향을 받은 선명하고 강렬한 그래픽 아트 패턴 (Graphic Art Pattern)이 강조 되었으며 일상적인 모티브를 심플한 구성을 통해 사실적으로 표현한 60년대 스타일의 팝아트 프린트가 전개되었다.

가장 단순한 라인으로 이루어진 실용적인 의복 형태이면서도 우아함을 지니는<sup>178)</sup> 재키룩은 7부나 8부 소매, 슬리브리스 원피스와 커다란 단추는 재클린 스타일을 나타내고 있으며 마일드한 패브릭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표현되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샤넬과 마크자콥 컬렉션에 많이 등장했다(그림39).

인형 드레스처럼 귀여운 원피스, 옴파이어 스타일의 A라인 스커트 형태로 기장은 무릎 정도이다. 트렌드를 정의하는 요소인 피터팬 컬러와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트리밍장식이 사용 되었다. 안나수이, 크레멘트 리베로(Clements Ribeiro) , 루비통의 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그림42).

그 밖에 디자인으로는 초미니 스커트의 실루엣에 주름장식을 하거나 셔링과 프릴 등의 디테일로 볼륨감을 살린 미니 페티코트, 풍성한 레이스 미니스커트, 여러 겹의 레이어링, 얇고 부드러운 소재로 여성의 사랑스러운 매력을 큐트하고 경쾌한 스타일로 전개한다. 또한 스커트의 헴라인은 점점 더 올라가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짧은 길이의 초미니 스커트가 선보였다.

패턴은 옵티컬 아트(Optical Art)와 큐비즘의 모티브 같은 선명한 컬러 대비 그래픽 아트 패턴이 혈령한 블라우스 셔츠에 프린트 되고, 60년대 스타일의 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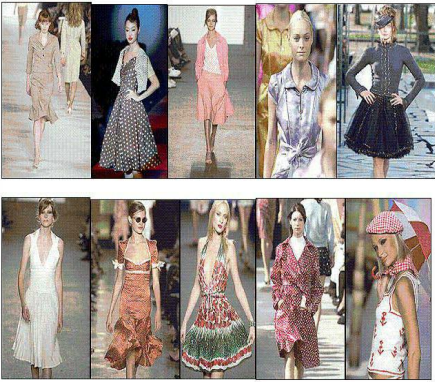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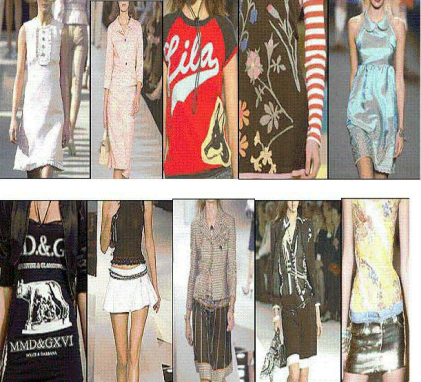
---

178) 이은영(2001), 재키스타일에 관한 연구: 1961-1963년 퍼스트레이디 시기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84.

아트 프린트가 올오버나 원포인트 구성으로 전개된다.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패션을 50년대 패션과의 하이브리드, 60년대 패션과의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누어, 21세기 패션쇼에 나타난 현상, 패션아이콘, 디테일과 디자인, 디자이너, 작품이미지로 분류하여 <표2>로 정리하였다.

<표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분류 \ 유형	50년대 패션과의 하이브리드	60년대 패션과의 하이브리드
21세기 패션쇼에 나타난 현상	“라인패션”의 시대인 50년대의 다양한 실루엣이 나타남. 알파벳 라인(A,H,Y,F)의 시대로 패션의 새로운 라인을 구축한 50년대와 현대패션과의 혼합된 하이브리드	라인과 룩의 시대가 끝나고 옷길 이(미니,미디,맥시,숏 팬츠, 판타 룩)의 다양한 변화와 패션의 미래주의가 나타나며 소재의 자유함을 가졌던60년대가 현대패션의 미래주의와 혼합된 하이브리드
패션 아이콘	오드리 헵번 그레이스 켈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마릴린 먼로 엘비스프레슬리	재클린 앙드레 쿠레쥬 마리퀸트 팝아트,옵아트 모델 튀기
디테일과 디자인	허리라인 강조(가는 허리라인과 완만한 어깨라인) 모래시계 실루엣 페플럼 라인이 높아짐 물방울 무늬, 리본장식,	재키룩의 미래적 재현 A 라인 미니 스커트 디테일: 셔링, 프릴, 레이어링, 페티코트, 그래픽 아트 패턴, 7부 8부 소매
디자이너	마크 자콥, 지춘희, 도나 카란, 폴 스미스, 루이비 통, 디키니, 샤넬, 장 폴 고티에르, 앤 켈빈 크라인, 미소니클라인, 카사렐, 안나수이, 비씨비지,	샤넬, 마크 자콥, 안나수이, 클레멘트 리페로, 루이비 통, 카사렐, 로버트 카발리, 알렉산더 맥퀸, 디엔지
작품		

###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유행은 인류문화와 더불어 상류층을 중심으로 하류층으로 수직 전파되어왔으나, 귀족 대 평민이라는 계급장벽이 서서히 붕괴되고,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새로운 신분구조가 등장하면서 특정한 사회신분을 상징하던 복식대신 금전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된 복식이 사회계층을 표시하게 되었다.<sup>179)</sup>

또한 패션에서의 상류와 하류의 개념은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분법적인 대립관계였다. 상류패션의 특징이 고급스런 소재, 고상한 무늬와 색상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이라면 하류패션은 조잡한 디테일과 싸구려 소재의 디자인으로 이루어졌고, 상류층의 의상과 대중들의 의상의 경계가 확실했던 대립관계의 해체는 1960년대의 영 패션이 등장하면서 그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의 스포츠룩(Sportive Look)을 시작으로 하이패션(High Fashion)에까지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포츠와 패션의 연관성은 근래 더욱 대중화, 다양화 추세를 보이며 스니커즈와 트레이닝 슈트는 더 이상 피트니스 클럽의 전유물이 아닌 시티웨어로 부상하였다. 스포츠는 오늘날 다방면에 걸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역으로 하나의 거대한 사업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며 앞으로의 문화를 이끌 대표적 유형<sup>180)</sup>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세와 명품, 정장과 운동화, 모던과 구식, 도시적인 것과 시골스러운 것, 천박한 것과 순수한 것 등의 패션에서 이미 정해진 상류와 하류의 개념 중에 2000년대 이후 가장 빈번히 나타난 스타일인 이지패션(스포츠, 캐주얼, 작업복)과 하이패션과의 혼합을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와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특수복과 작업복과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구분하였다.

이 가운데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디자이너와 스포츠 기업

---

179) 최영옥(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원주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권 5호, pp.453-464.

180) 이혜운(2003), American Classic Fashion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8.

간의 제휴를 만드는 새로운 마케팅 개념을 만들었다. 또한 스포츠 기업과 럭셔리 패션과의 통합은 25~35세의 스포츠스타일 선호층에서 새로운 스타일(Something New)로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콜라보레이션의 등장 및 확산의 배경은 소비자들의 욕구 변화에 따른 "패션의 라이프스타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한 '유행'이라는 의미의 패션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비자들의 욕구 역시 다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협업(Collaboration)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된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교류는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방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소득, 고정보, 고감성, 고감각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콜라보레이션이다.<sup>181)</sup>

#### (1)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트레이너 트렌드(Trainer Trend)가 새로운 시장 주도세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에 개최된 세계적인 트레이드 쇼(Trade Show)에서도 주요경향 가운데 하나로 스포츠룩과 트레이너 트렌드에 집중하고 있다. 런던의 대표적 스포츠웨어 샵에서는 잠재적 고객의 90%가 패션성이 가미된 스타일을 원하며 가장 인기있는 스타일은 Converse All Stars의 'Hi&Low-Tops, Adidas의 Stan Smiths & Vans와 같은 아이템으로 조사되었다. 나이키사는 2002년 도쿄 4개매장에서 2001개로 한정 판매로 출시된 'Air Jordan 1s'제품과 The Air Woven으로 스포츠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Prada Sport, DKNY, Hermes와 같은 Designer Fashion Company가 급증하고 있다.<sup>182)</sup>

요지 야마모토와 아디다스(Yohji Yamamoto for Adidas)의 협업<sup>183)</sup>, 미하라와 푸

181) Mary Lorraine(2002), Rethinking womens collaborative writing, N.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pp.32-39.

182) press room, <http://www.adidas.co.kr>

183) 김선미, 패션 스포츠 웨어, 동아일보 (2004.8.19)

마 (Mihara for Puma)의 협업, 와타나베와 리바이스( Junya Watanabe for Levis)의 협업, 크리스토퍼와 라코스테(Christophe Lemaire for Lacoste)와 같은 의상 디자이너들과 스포츠 트레이너(Sports Trainer)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은 디자이너와 패션기업 양측 모두에게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스포츠업계는 더욱 제품의 패셔너블한 측면에 주목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통계자료에 의하면 스포츠신발제품 구매사례의 90%는 실제 스포츠활동의 용도가 아닌 일상적 용도이다.

콜라보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의 시작은 스포츠에서 확연하게 나타난다.

디자이너 라벨이 결합된 Brand Identity은 패션 착장에서 핵심요소로서 상품의 대중화를 보장하는 기반이 된다.

아디다스(Adidas)의 혁신적인 일본 디자이너로 잘 알려진 요지 야마모토와 함께 「Adidas for Yohji Yamamoto」라는 이름으로 2001 F/W컬렉션의 생산을 전개함으로써 단지 스포츠용품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초월하여 최근 패션범주로 더욱 접근하고 있다.

아디다스는 리바이스사와도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통해 런던의 유명 Shop인 Cinch의 레트로풍 Trainer의 리런칭을 지원하였으며, 개성적이고 독특한 스포츠 스타일과 브랜드를 대표하는 4명의 유럽디자이너들과도 협약을 맺었다.

푸마(Puma)와 질 샌더(Jil Sander), 컨버스(Converse)와 존 리치몬드(John Richmond), 나이키(Nike)와 콤무데 가르송(Comme des Garcons)간의 전략적 제휴 역시 패션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마리아 첸(Maria Chen)과 푸마, 폴스미스(Paul Smith)와 리복(Reebok),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와 나이키(Nike)의 제휴도 대표적인 케이스로 꼽힌다.

패션과 스포츠, 스포츠와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주요 패션 트렌드를 이루고, 스포츠 웨어의 하이패션화, 하이패션의 스포츠화로 변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다(그림43).

## (2) 스포츠와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Athletic과 Leisure의 합성어인 아틸레저(Atheisure)는 액티브 스포츠웨어(Active

Sportswear)와 캐주얼 스포츠 마켓(Casual Sportswear Market)의 강세로 21세기의 새로운 유행 트렌드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견된다.

레저웨어가 이미 스포츠웨어와 혼합되고 캐주얼과도 혼합되어 레저, 스포츠, 캐주얼의 개념이 패션계에서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캐주얼웨어의 고급화의 지향은 정장의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sup>184)</sup>

이미 주니어 마켓(Junior Market)을 중심으로 벨루어 조깅슈트(Velour Jogging Suit)와 같은 대표적 스포츠아이템을 이용하여 트렌디한 룩으로 소개되었으며 작년 말 미국의 깁, 앤슬로폴로지, 베베(Gap, Anthropologie, Bebe)와 같은 브랜드에서는 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해석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2003 봄시즌 유럽 디자이너들을 중심으로 더욱 부상하고 있는 스포츠와 캐주얼(Sports&Casual)스타일은 여성과 남성부문 및 주니어, 아동복까지의 모든 카테고리들을 포괄하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70년대풍의 루즈하고 캐주얼한 감각을 살린 스포츠웨어가 차기 여름 시즌의 중요 유행(Hot Trend)으로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강한 컬러 브로킹(Color Blocking)과 스트라이프와 그래픽(Stripe, Graphic)효과로 스포츠감성<sup>185)</sup>을 극대화하고 있다.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개성주의(Personalism)의 영향으로 개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스타일이 중요성의 확대는 이를 새롭게 재해석한 빈티지풍의 안티 엘레강스 캐주얼(Antique Elegance Casual)이 대두되는 배경을 이룬다.

아틸레저(Atheisure) 테마는 미니 테니스 드레스(Mini Tennis Dress), 스포츠 드레스(Sporty Dress), 플리츠 골프 스커트(Pleated Golf Skirts) 등의 80년대풍 스포티 아이템의 재해석으로 기존의 캐주얼과 정장(Formal wear)의 경계가 완화된 편안한(Comfortable)감각의 주말복(Weekend Wear)으로서 폭 넓게 활용가능하며 골프, 테니스 등의 아웃도어 스포츠(Outdoor Sports)뿐 아니라 실내 스포츠(Gym Sports) 등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웨어를 응용한 스타일로 트렌디하게 소개되고 있다(그

---

184) 박혜원(1998), 패션디자인 발상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디자인 연구,3호, p.138.

185) 이천희(1992), 인간의 감성과 스포츠 미, 한국스포츠 무용철학회, 움직임의 철학, 1(1), p.2.

림44).

### (3) 특수복,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한 실용적, 유니폼(Utility/Uniform)컨셉은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Outdoor Wear)나 유니폼 등 특수복뿐 아니라 패션트렌드 전반에 걸쳐 캐주얼자켓의 디자인과 기능을 확대 시키고 있다.

지퍼나 끈으로 바지나 소매의 길이와 폭을 조정하는 디자인이나 구김이 가지않는 직물사용등 실용적인 디자인이 주목 받고있다.<sup>186)</sup>

밀리터리 블루종(Military Blouson)과 지퍼장식, 밴딩(Banding), 테입(Tape), 버클(Buckle)장식과 같은 요소와 함께 50년대와 60년대의 유니폼에서 영향을 받은 공장의 근로자들의 기능적인 의복에서 모티브를 찾을 수 있다.

대표적인 아이템인 새롭게 재해석된 카고 팬츠(Cargo Pants)는 직선형의 스트라이트 컷(Straight-Cut Leg)가 돋보이며 봄버 자켓(Bomber Jacke)과 점프 슈트(Jump Suit)와 같은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위한 스포츠웨어적 디테일로 발전된다.

밀리터리(Military)와 유틸리티(Utility)의 유행은 디자인 면에서 기능적인 아웃포켓의 사파리 점퍼(Safari Jumper)스타일과 블루종(Bloson)과 카고 팬츠(Cargo Pants)의 믹스로 스타일리시한 매칭이 제안된다(그림45).

또한 컬러나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친 감각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느낌으로 연출한 스타일이 해외 주요 컬렉션을 통해 제안되었다. 앞으로의 이지패션에서의 스포츠의류와 특수복(군복, 작업복 등), 웰빙의 영향으로 기능성 섬유와의 혼합은 패션계의 영향력있는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주얼 업계는 벌써부터 웰빙(well-bing)이란 단어를 버리고 웰루킹(well-looking)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웰빙이라면 웰루킹은 뽀짝뽀짝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2004-2005년의 스포츠 트레이닝복은 지난해보다 보디라인을 더욱 살리고,

---




186) 하지수(2002), 1990년대 절충적 기능주의 패션의 미적 가치, 복식, 52(5), p.156.

한결 컬러풀해졌다. 피트니스와 요가에서 풍기는 여유에다 섹시함을 뽐낼 수 있는 짝 끼는 스포츠룩이 앞으로의 패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현상인 스포츠, 캐주얼, 특수복, 작업복과 하이패션과의 결합을 사회 현상적으로 보기위해 디자이너 위주가 아닌 3가지의 현상이 어떤 스타일로 나타났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을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유형으로 나누어, 21세기 패션현상, 대표적인 현상, 디테일, 대표적 아이템, 디자이너, 작품이미지로 분류하여 <표3>으로 정리하였다.

<표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분류 \ 유형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전체적 현상	트레이너 트렌드(Trainer Trend) 잠재적인 고객 90%가 스포츠웨어의 패션성을 원한다. 스포츠기업과 유명 패션디자이너들과의 Collaboration 작업 스포츠신발구입의 90%가 스포츠를 위한 구입이 아니라 패션을 위해 구입함	Athletic+Leisure=Atheleisure 탄생. 레저, 스포츠, 캐주얼의 개념이 하이패션과 하이브리드 되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웰빙의 영향으로 포멀웨어에도 활동성부여.	Utility, Uniform 컨셉으로 보호적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웨어로 발전 특수복, 작업복, 유니폼 등의 디테일이 하이패션에 적용됨. 공장의 근로자들의 기능적인 유니폼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적용.
대표적 현상	Collaboration 작업의 예 *요지야마 모토와 아디다스의 협업 *미하라와 푸마 *와타나베와 리바이스 *크리스토퍼와 라코스테 디자이너의 스포츠회사 발족의 예 *프라다 스포츠, 디키니, 헤르메스	강한 컬러 브로킹과 스트라이프와 그래픽 효과로 하이패션에 그대로 적용하여 스포츠감성을 극대화함. 빈티지 풍의 안티 엘레강스 캐주얼의 대두. 캐주얼과 정장으로 공용화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등장.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한 실용적인 유니폼 컨셉.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웨어. 유니폼 특수복 등의 영향으로 캐주얼 자켓의 디자인과 기능이 업데이트됨.
디테일	유명디자이너의 로고 고급 트렌드 소재와 스포츠웨어의 접목 유명스포츠 로고를 하이패션에 사용	그래픽효과와 빈티지풍의 공존	지퍼장식 밴딩 테입 버클장식
대표적 아이템	*럭셔리한 스포츠 정장 *스포츠 운동화의 패션화 *스포티한 감각과 트렌드성한 이미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모든 아이템화	테니스 드레스 스포츠 드레스 프리즈 골프 스커트 정장풍에 스포츠 특징인 그래픽효과.	밀리터리 블루종 카고 팬츠 봄버 자켓 점프 슈트, 사파리 점퍼
디자이너	질 샌더, 존 리치몬드, 썸무데 가르송, 와타나베, 마리아 첸, 폴 스미스	안나수이, 헬무 랭, 베르사체	루이비통, 미유미유, 요지야마모토, 디앤지, 맥카트니
작품과 컬러이미지			

####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이 장에서는 앞장에 언급한 동·서양의 하이브리드에서 다루지 않은 민속적 경향을 비주류로 보고 21세기에 패션에서 표현된 에스닉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류에 관한 정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션현상으로 보고 따로 명시하지 않고 비주류의 현상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패션에서의 주류는 이미 문명화된 서구를 지칭하고 비주류는 서구인들이 그들 문화 이외의 모든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서양에서의 이국취향은 그들의 문화가 팽창하면서 비 서양화된 지역과의 접촉과 함께 나타난다(그림 29).<sup>187)</sup>

다문화주의의 상징인 글로벌 컬처(Global Culture)의 영향으로 이제 비주류가 주류의 입장이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동양에 대한 영감으로 재해석된 에스닉 테마는 인디아(Indian), 보헤미안(Bohemian), 집시(Gypsy), 동부 유럽과 중앙아메리카, 모로코(Morocco)와 같은 세계 각지의 이국적인 문화적 배경에 기인하며 에스닉 코스튬(Ethnic Costume)으로 표현되는 제3세계의 민속의상에 대한 매력은 지속적인 트렌드로 이어질 전망이다.<sup>188)</sup> 20세기의 에스닉 경향이 원시적 성격을 띠는 아프리카나 문명에서 떨어진 오지의 이미지<sup>189)</sup>를 가졌다면 21세기의 에스닉은 그 이전의 이미지에 궁정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알프스 소녀의 건강한 에스닉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서구 이외의 민속적 경향으로 해석되었던 에스닉이 북유럽과 스위스를 배경으로 알프스 에스닉의 등장이 가속화되어 2001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양을 보는 시각이 이제는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류와 비주류에 대한 시각의 변화로 하이브리드 경향에서 시작되었다.

이국적이고 신비스러운 문화와 글로벌 공동사회(Global Community)<sup>190)</sup>가 과거

187) 김수경(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11(3), pp. 61.

188) 삼성디자인넷, <http://www.samsungdesign.net>

189) 송명진(1991),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하며 이는 센세이션(Sensation)을 추구하는 감성적 소비자들의 정신과 문화적으로 한층 발전된 의류상품에 대한 요구로 표현되었다.

1980년대 에스닉 룩은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한 일본풍 의상을 시작으로 하여 러시아의 코사크 헛, 중국의 치파오, 인도의 사리와 초리, 모로코의 하렘 팬츠와 터번, 동남아시아의 아오자이와 사롱, 아프리카의 텍스타일과 장신구,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 룩 등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민속의상들이 복식에 융합되었다.

또한 90년대 전반의 레이어드 룩, 그런지 룩의 유행과 맞물려 네오 히피즘이 등장하였으며, 여러가지 지역과 문화 요소를 차용하여 믹스한 무국적 혹은 다국적 에스닉 룩이 탄생되기도 하였다.

이 때부터 현재까지 에스닉 룩은 이브 생 로랑과 켄조를 비롯하여 이세이 미야케, 요지 야마모토, 로메오 질리, 오즈벡, 토드 올드햄, 모스키노, 장 폴 고티에, 크리스찬 라크루와, 크리스찬 디올, 발렌티노, 에트로, 조르지오 아르마니, 드리스 반 노튼, 오스카 드 라 렌타, 안나수이, 블루마린, 돌체 & 가바나 컬렉션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sup>191)</sup>

이렇게 1980~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어 온 민속의상 패러디는 2000년대에 들어 두 가지의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0년대 이후의 에스닉은 그 이전의 양상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는 서양 기준의 이국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문화유산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풍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페인 풍을 비롯하여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극한의 기후를 지닌 티벳 고원, 몽골의 유목민, 고대 마야·잉카문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과 문화가 에스닉 룩에 등장했다는 사실이다.

---

190) 김운호(2001), 산업평화를 통한 지구공동사회 구현, 경희대학교 밝은 사회문제연구소, 밝은 사회연구, 22(1), p.309

191) Francois Baudot(1999), Fashion The Twentieth Century, N.Y.: Universe Publishing, p.234-236.

다음은 2001년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에스닉으로 부각하고 있는 알프스의 에스닉 패션이다.

둘째는 마크 제이콥스, 톰 포드, 마이클 코어스 등 "입을 수 있는 옷" 으로 정평이 난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컬렉션에 에스닉 감성을 디자인 모티브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오프꾸뛰르 취향의 디자이너들이 멤버로 있는 에스닉 록 동호회에 문을 두드렸다는 점이다. 이러한 에스닉패션의 고급화 시도로 세계 패션계는 이제 에스닉의 요소 없이는 국제적인 감각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기본 트렌드로 형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에스닉 패션 중 러시아, 모로코, 알프스지방의 민속적요소가 나타나는 2001년 이후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동남아시아나 몽골, 인도, 아메리카 인디아 등의 에스닉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지역은 이미 여러 연구가 있어 왔으므로 21세기 이후 새로운 의미의 에스닉으로 컬렉션으로 부각한 알프스 시골 지방의 에스닉의 대두를 중심으로 다루고 더불어 러시아의 에스닉과 새로운 아프리카 에스닉으로 해석되는 모로코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러시아 에스닉

러시아 에스닉의 시작은 1909년에 러시아 발레단의 공연은 파리를 열광시켰으며<sup>192)</sup> 러시아 모드의 컬러와 스타일에 충격을 받은 파리패션계가 러시아풍 패션으로 20세기 초를 장식했다(그림30).

이제 21세기의 초두에 디자이너들이 다시 러시아의 궁정패션을 패션 모티브로 삼고 있다.

2004F/W에서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러시아풍의 디자인을 컬렉션마다 발표하였다. 이전의 에스닉이 민속복 형태의 소박한 색다름이었다면 21 세기의 에스닉은 역사적 유물과 왕정, 귀족의 화려하고 격조있는 에스닉의 하나로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디자인 영감의 보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47>는 17세기말의 사제복으로 화려한 금사 자수문양으로 러시아

---

192) 조수연(1991), 벨 에포크 복식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17.

가 궁정과 귀족뿐만이 아니라 사제복에 이르기 까지 화려한 시대를 반영해 준다.

러시아 에스닉은 영화 *안나 카레리나*를 패션 코드로 상류층 여성의 화려함과 고고함, 궁정의 화려함과 고급성 등의 현대감각에 혼합하여 러시아의 궁정적 특성이 돋보이도록 하이브리드 했다.

블루마린은 로맨틱라인으로 골드 컬러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모피 트리밍으로 장식하며 미래 패션 코드를 제안했다. 러시아풍 문양과 적절한 보석으로 패션을 부각시키고 고급과 화려함의 무대로 만들었다. 골드 컬러가 가지는 궁정의 위엄을 견제하면서 핑크로 균형을 잡아 주었다(그림48).

오스카 드라 렌타는 코트아이템에 러시아의 축고 황량한 별판이 연상되도록 모피 트리밍을 소매 끝단과 헴 라인 끝단에 장식하였다.

돌체 앤 가바나는 목도리의 적절한 사용으로 멋과 실용성을 강조한 러시아풍의 패션을 강조했다(그림50).

로베르토 카발리는 추운 지방의 터프하고 강한 여성미를 의상과 소품을 통해 강조하여 부드러운 이미지와 상반된 여성미를 공존하도록 러시아의 재질감 있는 직물을 사용하였다(그림51).

프라다는 정리된 감각의 도시적 러시아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에밀로 푸치는 모자를 이용하여 러시아 여인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강조했다(그림52).

## (2) 모로코 에스닉

아프리카 대륙 북단에 위치한 모로코는 러시아와 같이 폴 포와레에 의해 20세기 초에 서양에 소개되었다.<sup>193)</sup> 종족과 문화는 이슬람권, 지중해 사이로 스페인과 연결되는 모로코의 독특한 매력은 이미 1900년대 초 폴 포와레에 의해 하렘 팬츠, 터번 등으로 거한 신고식을 마쳤다.

1970년대에 이브 생 로랑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목받았던 모로코풍<sup>194)</sup>은

193) B.B. Baines, 앞의 책, p.172.

194) Hamlyn, 앞의 책, p.132.

1980년대 초에는 별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서야 크리스찬 라크르와, 마틴 싯봉에 의해 장식적이고 고급스럽게 다시 태어난다.

또한 1993 S/S , 1994 S/S컬렉션에 바지와 함께 입는 파스텔톤의 긴 상의, 이색적인 모자, 수가 높이고 구슬이 달린 재킷, 비치는 시폰 팬츠, 가벼운 느낌의 벨벳 튜닉, 구슬 액세서리 등으로 모로코풍을 재현한 바 있는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모로코를 "아주 감미로운 아프리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2000년 들어 모로코 풍은 인테리어 트렌드로 각광받으며 2001년 5월 국내에 까지 모로칸 레스토랑의 오픈을 불러왔고, 미구엘 애드로버는 2001 F/W컬렉션에서 카프탄과 줄라바풍의 의상을 줄줄이 선보였다. 2003 S/S 컬렉션에서 모로코의 흔적은 게리에로(Guerriero), eldos지, 엠포리오 아르마니, 비블로스의 컬렉션에서 엿 볼 수 있다.

2003 S/S 컬렉션에서의 모로코풍은 상의 보다는 하의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밑으로 갈수록 통이 좁아지거나, 넓은 바지통의 아랫단만 조여 배기(Bagg)하거나 드레이퍼리한 느낌을 주는 샤르왈 실루엣의 팬츠를 선보였는데, 이 팬츠는 밀리터리한 감성으로, 혹은 로맨틱한 감성으로 표현되었다(그림53-56).

### (3) 알프스 에스닉(스위스산악지방)

시즌마다 다양한 양상으로 패션 트렌드에 나타나는 민속복(Folklore Look)이 2002 F/W부터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형성되고 있다.

지난 2002 F/W 컬렉션에서도 많은 디자이너들이 에스닉, 에조틱(Exotic) 무드의 아시아의 소수민족과 남미의 영향을 받은 이국적인 민속복을 선보였다.

그러나 가장 신선한 민속복은 디앤지, 돌체앤 가바나(Dolce & Gabanna), 마니(Marni), 안토니오 베라디(Antonio Beradi) 등이 선보인 알프스 지방의 대자연과 민속의상에서 영감받은 일명 "알파인 & 티롤리안 룩"이다.

지역적 특징으로는 알프스(Alpes)란 유럽 중남부에 있는 큰 산계(山系)로 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에 걸쳐 있다. 산을 뜻하는 켈트어, 백색을 뜻하는 라틴어가 어원으로 '희고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티롤의 여성복은 스커트 (던들 스커트), 가슴받이가 달린 끈으로 매는 보디

스, 골러(Goller)라는 목과 어깨를 덮는 옷깃이나 커치프가 기본이다. 모자는 티롤리안 햇, 띠 장식을 한 물결치는 폭 넓은 차양이 있는 모자를 많이 착용한다.

2002 F/W 컬렉션에서는 디앤지, 돌체앤 가바나, 마니, 안토니오 베라디 등 이태리 디자이너를 중심으로 알프스의 자연과 티롤의 감성을 표현한 의상이 발표되었다(그림57-60).

화려한 색의 자수, 소박한 느낌의 아플리케, 새로운 장식 기법, A라인 스커트, 앞치마가 붙은 스커트, 로맨틱한 블라우스, 니트 등으로 표현되는 알파인 티롤리안 룩(Alpine & Tyrolean Look)은 원색적인 컬러와 대담한 디자인으로 소녀적인 낭만보다는 화려한 이국적인 낭만을 풍긴다.

자수 및 프린트의 모티브로는 들장미와 에델바이스, 작은 꽃잎이 달린 야생화, 나비, 나무가지 등이 많이 쓰였다.

소위 말하는 "알프스소녀 하이디" 풍의 알파인 & 티롤리안 무드가 21세기를 시작하면서 에스닉이 가지는 이국적인 무드에 알프스의 새로운 에스닉으로 등장하면서 특히 2002 F/W 컬렉션에서 어떻게 강조되고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002 F/W 시즌의 패션 트렌드로 떠오른 알파인(Alpine) 과 티롤리안(Tyrolean) 룩은 최근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수공예 작업 열풍에 힘입은 바가 크다.

로맨티시즘, 빈티지, 수공예적인 느낌 등이 혼재된 알파인 과 티롤리안 룩은 디자이너들의 민속의상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이 더 이상 중국, 인도, 몽고, 페루, 멕시코 등 다소 서양기준의 변방 민족 (흔히 오리엔탈과 에스닉으로 표현되던) 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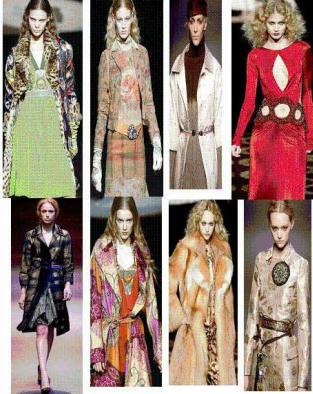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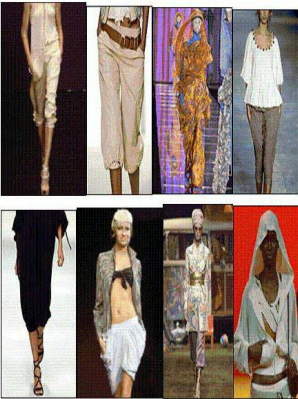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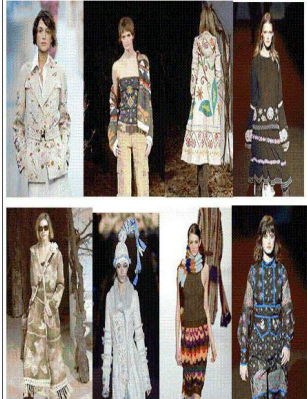
알파인 과 티롤리안 룩은 화려하고 정교한 자수가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며, 개더와 프릴, 에이프런 등의 디테일이 귀엽고 편안한 느낌을 전달하여 아동복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경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디자이너들은 과거의 유물과 문헌,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창조적이고 수공예적인 작업에 몰두하며 현대적 디자인의 차가움과 대량생산체제에 반기

를 들고 있다. 다양한 지역과 문화유산에서 영감 받아 재창조된 에스닉 룩은 모던함과 트레이디셔널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대인에게 호소력있게 다가온다. 진부해지기 쉬운 스타일에 장식성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친숙하고 화려하게 재탄생한 에스닉 룩, 시대를 초월할수록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에스닉 룩의 특징이다.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 유형을 러시아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모로코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알프스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로 나누어, 21세기 패션현상, 대표적 현상, 디테일과 직물, 대표적 아이템, 디자이너, 작품이미지로 분류하여 <표4>로 정리하였다.

<표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분류 \ 유형	러시아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모로코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알프스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21세기 패션 현상	2004-2005년 F/W 트렌드에서 러시아풍은 많은 디자이너에 의해 새로운 이국풍으로 각광.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적, 예술적 자원은 서구유럽에 식상한 고객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됨.	아프리카 대륙북단에 위치한 모로코는 20세기에 하렘팬츠와 터번을 유럽에 건내주고 21세기에 다시 인테리어로 유행 시작되어 패션으로 완성.	21세기 새로운 에스닉으로 부각. 알프스지방의 대자연과 민속의상에 영감을 받은 “알파인&티롤라인룩”
대표적 현상	영화 안나카레리나의 배경을 중심으로 러시아귀족의 풍족했던 삶과 화려함, 정교함과 고급스런 이브닝드레스와 모피의 다양한 활용이 돋보인다.	아프리카의 현대성을 그 지역의 토속과 만나 로맨틱감성으로 표출	알프스의 소년의 이미지와 화려하고 이국적인 낭만을 풍긴다. 소녀적 이미지와 에스닉이 가지는 섹시한 이미지가 양존.
디테일과 직물	모피 트리밍 러시아풍 문양, 보석사용 타이트 부츠 모자와 목도리의 다양한 사용	가벼운 느낌의 벨벳 구슬 악세사리 쉬폰 팬츠	개더, 프릴, 에이프런, 가슴받이가 달린 끈으로 매는 바디스, 커치프, 자수와 프린트(에텔바이스, 야생화, 나비, 나무가지)
대표적 아이템	골드와 핑크를 적절히 사용하여 외투와 자켓, 이브닝 드레스 등 아웃도워와 인웨어가 다양하게 등장.	카프탄, 튜닉 샤르왈 실루엣:통이 좁거나 넓은 아랫단만 조여매기 혹은 드레이퍼리로 처리하는 팬츠	A라인 스커트 앞치마가 붙은 스커트 로맨틱 블라우스 알프스 특유의 니트웨어. 티롤리안 모자
디자이너	블루마린, 베로니카 에트로, 돌체 앤 가바나, 로베르토 카발리, 프라다, 에밀로 푸치	아르마니, 미구엘 애드로버, 디앤지, 버블로스, 게리에로, 이브 생로랑, 마틴시몽, 크리스찬라크르와	디앤지, 돌체앤 가바나, 마니, 안토니오 베라디
작품			

##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패션

미래와의 하이브리드로 첨단산업이 이룬 과학의 가공할 위력이 주는 공포에서 미래의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장된 사회와의 하이브리드를 들 수 있다.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도 현재의 개념은 현대 패션의 기본 현상으로 보고 미래의 특징만을 명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패션에서는 섬유 발전이 이루고 있는 결과가 패션산업의 활로를 결정할 만큼의 큰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미래의 패션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웨어(Smart Wear)<sup>195)</sup>는 웰빙과 관련되어 패션과 과학의 이중적인 분야의 하이브리드로 그 발전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스마트 웨어란 의류 고유의 감성적 속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디지털 기능들이 부과된 고부가가치의 신개념 의류이다. 종래의 PC 부품들을 신체에 분산 부착하는 '웨어러블 컴퓨터(Wearable Computer)'와는 확연히 다른 개념으로, 착용자의 신체 상태 및 외부환경을 감지하는 기능이나 IT 기능을 단순 부착(adpated)을 넘어서 직물내의 한 요소로 편입(integrated)시킴으로써, 고도의 생활편의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sup>196)</sup>

스마트 웨어는 섬유나 의복 자체가 외부 자극을 감지하고 스스로 반응하는 '소재의 기능성(Hi-functional materials properties)'과 의복 및 직물 자체가 갖지 못한 '기계적 기능(Digitalized properties)'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의류를 총칭한다. 특수 기능의 섬유로 만들어진 옷 속에 초소형 컴퓨터 칩이 내장된 스마트 웨어는 각종 디지털 기기와 의류를 하나로 만든다.<sup>197)</sup>

---

195) 스마트 웨어(Smart Wear)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극소 나노단위(nanoscale)의 생산기술, 친환경 소재(ET)라는 4대 영역에 신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의류를 뜻한다. 고기능성 섬유 소재의 의복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센서나 초소형 통신기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MP3 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웨어는 이러한 기기들을 옷속에 내장시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착용 가능한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상호작용이 가능한 직물제품 (Interactive Fabric)에 까지 이르고 있다.

196) 자료검색일 2004/8/10. <http://www.abc.net.au/science/news/stories/s131388.html>

197) 손현석(2004), 공간 계획에 있어서 Ubiquitous Computing의 적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소재의 경향을 살펴보면 쾌적성과 편의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기능성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반화 되어지는 기능성의 개념은 이전에 개발되어진 소재들이 갖고 있던 소극적 기능에서 신체 기능을 조절하며 여기에 더해 스스로 에너지를 발산하여 신체를 치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최근 국내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웨어와 이러한 스마트 웨어를 실현하기 위한 건강(Health-Care) 관련 웰빙(Well-Being) 소재 및 국내외 스포츠 및 아웃도어(Outdoor) 시장을 이끌고 있는 보호(Protective) 소재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시장에 대해서 예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 웨어(Smart Wear)는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극소 나노단위(nanoscale)의 생산기술, 친환경 소재(ET)라는 4대 영역에 신기술을 결합한 미래형 의류를 뜻한다. 고기능성 섬유 소재의 의복에 디지털 기술이 결합한 것으로 여러 가지 센서나 초소형 통신기기,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미한 MP3 등을 내장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마트 웨어는 이러한 기기들을 옷 속에 내장시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이 보다 확대되어 착용 가능한 컴퓨터 (Wearable Computer), 상호작용이 가능한 직물제품 (Interactive Fabric)에 까지 이르고 있다.

미국의 Venture Development Corporation(VDC)社は 전 세계적으로 '착용 가능한(wearable) 컴퓨터 응용제품'의 판매규모가 2002년 이미 1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2006년까지는 5억 6,300만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나 유럽이 군사용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스마트 웨어는 현재 스포츠 웨어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sup>198)</sup>

당초 군용으로 개발된 이 셔츠는 플라스틱 광섬유가 일정 간격으로 직물에 섞여 광신호를 주고받으며 만약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총상 등의 부상을 감지하도록 되어있다. 의복 속에 부착된 특수센서는 군인의 심장박동,

---

테크노 디자인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0-31.

198) 자료검색일 2004/8/10. <http://www.wgsn.com>

호흡, 혈압, 체온, 칼로리, 소모량 등을 직접 측정한다. 현재 이 기술은 민간 업체로 이전되어 의료용, 스포츠용, 유아용 등 다양한 스마트 웨어로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 웨어는 기술융합을 시도한 대표적인 산물로, 비타민 캡슐이 부착된 셔츠를 땀이나 노폐물, 먼지 등의 박테리아를 이용해 자연적으로 세탁하는 옷, 환경을 생각한 생분해성 섬유 등 스마트 웨어 관련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sup>199)</sup>

현재의 스마트 의류는 인간친화성 강화 시기(1990년대 후반 이후)로 접어들면서, 사용자에게 더욱 편안하며 적합하고 패션성이 가미된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의류 개발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각 모듈을 경량화, 소형화 하는 것은 기본이 되었고, 딱딱한 기기의 형태를 개선하여 의복과 유사한 외관을 디자인하려는 노력과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스마트 의류의 인간친화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현재까지 시도되고 있다.

또한 착용자를 둘러싼 물리적 인터페이스로서의 의복에 대해 착용 편의성과 사용 편의성, 인체의 자세와 동작 등 인체공학적 측면에 대한 배려 및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진행되면서 기능과 디자인, 착용성은 물론 사용 편의성에서 보다 진보된 스마트 의류로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장에서는 패션의 미래와 현재의 하이브리드로 미래섬유가 IT산업과 웰빙 등과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컴퓨터 응용제품<sup>200)</sup>

<그림61>의 디지털 스웨터(Digital Sweater)는 인피네온(Infineon)사와 뮌헨 대학이 공동 연구하고, 나딘 마르코릴리에 N. Marcouillie가 디자인한 스웨터는 POP라는 글자 아래 전자 모듈이 숨겨져 있으며 MP3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림62>는 사우스 오스트리아(South Australia)대학의 'e-Suit'는 컴팩의 Microsoft Pocket PC 2000인 Window CE 3.0 기반의 iPAQ을 사용한 의복으로써,

---

199) 손현석, 앞의 책, p.30-31.

200) 컴퓨터 응용제품에 관한 자료는 삼성디자인넷 스마트 섬유자료에서 정리하였음.

<http://www.samsungdesign.net>

회의 중에 재킷의 어깨를 통해 약속시간이나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진동 알람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등 Microsoft Outlook 기능과 업무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이 제공되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스마트 의류이다.

<그림63>의 MIT의 'Puddle jumper'는 발광하는 레인코트로서, 빗속에서 작동을 한다. 물이 센서와 접촉하면, 램프가 빛을 내고 빗줄기의 리듬에 따라 반짝이는 패턴을 만들어 낸다. 'Puddle jumper'는 비 오는 날에 착용하여 안전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가지는 의류이다.

<그림64>의 Alexandra Fede의 'Joy Dress'는 이태리의 디자이너인 Alexandra Fede의 JoyDress는 Avantex 2002 Prize for Innovation 수상작인 소형 컨트롤 유닛에 연결된 와이어와 진동패드가 포함된 신개념의 비즈니스 수트와 이브닝 드레스를 디자인했다.

<그림65>는 Philips사의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는 모바일폰과 카메라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아니라, 게임이 가능하도록 패브릭 안테나(fabric antennas), 라디오(radio tagging)와 작은 이동 카메라가 달린 아이들의 의복으로써 다른 옷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림66>은 Nokia사의 'Medallion은 노키아(Nokia)사는 금속 프레임이나 가죽 끈으로 작은 디스플레이를 연결시켜 목걸이 형태로 착용되는 메달리온(Medallion)을 개발 등이 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다. 아마도 실용화되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까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러한 스마트 섬유 의 패션화로 인한 하이패션의 변화는 확실하고 가까운 미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2) 건강관리 및 스포츠 보조 스마트 의류 개발 사례<sup>201)</sup>

건강관리 및 스포츠 보조 스마트 의류 개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VivoMetrics사의 Vest형 Life Shirt는 의복에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 칩이 의료

---

201) 건강관리 및 스포츠 보조 스마트의류에 관한 자료는 삼성디자인넷 스마트 섬유 자료에서 정리하였음. <http://www.samsungdesign.net>

기관과 연결되어 신체상의 변화를 체크해주는 기술로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림67>의 Philips사의 Intelligent Biomedical clothing은 브래지어 등의 속옷이나, 허리벨트의 형태로 착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무선으로 착용자의 바이오 정보를 센터나 컴퓨터로 전송하여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위급상황 시 알람기능을 가지고 있는 개인용 건강 보조 기기이다.

Sensatex사의 유아돌연사 방지복, <그림68>은 Philips사의 New Nomads 'Perfect Performance'는 음악과 생체 신호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웨어를 선보였는데, 이는 섬유에 바이오센서를 부착한 의복으로 심박, 혈압, 체온과 그 밖의 다른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그림69>의 Corpo Nove사의 'Motorbike Jacket'은 온도 센서를 통하여 오토바이 운전시의 부위별 체온을 감지하고, 필요시 운전자의 신체에 열을 공급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켓이다.

<그림70>은 Burton Snowboards의 스노보드 자켓은 Sony Walkman mini-disc(MD) 시스템이 내장된 Analog Clone MD 재킷, headphone으로 구성되어 기계세탁이 가능한 이점을 가진다.

<그림71>의 Hugo Boss사의 'McLaren mechanics suits'는 카레이싱을 하는 도중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된 카레이싱용 의류이다.

<그림72.73>는 신 섬유 소재 기술 전기전도성, 유연성(flexible) 디지털 하드웨어 직물내부에 전자회로를 가지고 있는 직물로써 디지털 장치와 의류간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디지털 의류가 디지털 기능을 포함하면서도 의류로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스마트 섬유의 실용화 단계는 수년 내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의상이 새로운 신기술과의 하이브리드는 기능성과 활동성, 인체에 영향을 주는 영향력등과 함께 패션화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 패션의 한 영역으로 형성될 것이다.

## IV. 다문화시대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패션과 함께 그 양상을 추적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패션은 일부 지배층의 전유물이 아닌 다양한 계층이 영위할 수 있는 변화를 겪으면서, 메이크업도 대중들에게 일반화되는 개인의 취향으로 자리 잡는 시기를 가지게 된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알기위해 20세기의 메이크업 변화를 시대별로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20세기 초인 1900년대의 메이크업은 여러 가지 면에서 19세기의 연장으로 상류층여성의 잘 정돈된 성숙미를 가진 화장법이었다.

이러한 전형적인 서구 상류층의 화장이 러시아 발레단과 디자이너 뿔 뿌아레의 동양적 취향으로 메이크업에서도 의상의 영향과 함께 동양적 취향의 화장법이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1년 세르게이 디아길레프(1872-1929)가 인솔한 러시아 발레단의 선풍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페르시아, 터어키풍의 요소가 장식예술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1910년 파리는 동양풍의 유행이 일게 되었다. 동양풍에는 중국적인 것과 일본적인 것도 가미되었는데 유연하게 반쯤 감긴 눈과 조그만 입의 심술긋은 여자 등을 묘사하였다.<sup>202)</sup>

당시의 새로운 메이크업은 눈썹과 눈 사이에 황색 분을 발라 동양적 화장을 선보인 것으로서 아이새도를 최초로 사용한 것이다.<sup>203)</sup>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성해방은 가속화되어 진행되었고 계급간의 신분의 벽이 무너지면서 화장은 이전보다도 더욱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화장은

---

202) 조규화(199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1982. p.257

203) 春山行夫(1976). 앞의 책, p.70.

더 이상 특정 계급의 특권이 아니었고 대중화되었다.

1920년대 여성들은 그 동안의 속박에서 벗어난 해방감에서 자연스런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해방된 자유로운 여성들의 새로운 여성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려는 여성들도 동시에 있었다. 영화 스크린속에서 뱀프 스타일의 요부 역할을 하는 배우들의 화장은 커다란 어두운 색 눈동자를 검고 짙게 분장해 더욱 깊이 그늘지게 하고 눈썹까지 닿는 터번 밑에서 유혹하듯이 뚫어지게 응시하는 것이다. 눈이 메이크업의 초점이 되었지만 눈썹 쪽에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뱀프의 여성스러움은 19세기말 아르누보의 꽃이었던 비아즐리 여성의 계보에 있고, 20세기적인 상업 감각에서 태어난 그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sup>204)</sup>

또한 1920년대의 대표적인 스타일인 가르송(Gracons) 스타일의 영향으로 여성의 머리길이가 짧아지고, 그로인해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를 냈다. 이 시대의 화장의 특징은 눈썹을 뽑아 가늘게 그리고 눈 화장은 까맣게 표현하였고 속눈썹을 적극적으로 올렸다.

이러한 남성 취향의 패션스타일은 중성적인 메이크업을 유도했고 성의 혼합과, 극단적인 여성성과 여성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패션이 공존했다.

미국에서 에리자베스 아덴과 헤레나 루빈슈타인이라는 두 사람이 출현한 시기도 이때이다.<sup>205)</sup>

1930년대의 메이크업은 인조 속눈썹이 처음으로 사용되어졌던 시기였다. 또한 할리우드 스타들의 영향이 가장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로1938년의 보그의 전면 광고에서는 립스틱을 광고하면서 영화배우를 닮고 싶어 하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당신과 배우의 입술 차이는 당신은 단순한 립스틱을 사용하고 배우들은 립 브러쉬를 사용 한다”는 문구였다.

인조 속눈썹과 인조 손톱이 1930년에 발전했는데, 이 또한 할리우드에서 기원했다.<sup>206)</sup>

---

204) 라사라(1991). 20세기 모드의 역사. 서울: 라사라, pp.168-169.

205) 허준(1992). 크리스찬 디오르. 서울: 명진사. p.144.

206) 벨러리 멘데스, 에이미 드 라 헤이, 김정은역(2003). 20세기 패션. 서울: 시공사, p.98.

이 시대의 보그지에 의하면 영화배우인 그레타 가르보, 마를리네 디트리히 등의 스타일이 유행하였는데, 이들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피부색보다 약간 어둡게 표현하였고 아이쉐도우는 갈색으로 하고 아이라인을 어두운 갈색을 사용하여 슬픈 눈으로 표현했다. 또한 눈썹의 모양은 어두운 갈색 펜슬로 얇고 높게 화살같이 그렸고 입술은 작은 화살모양과 장미 봉우리 형으로 붉게 표현되었다.

1940년대의 메이크업은 2차 세계대전을 명시하여 세계 역사의 문화와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과 동양의 많은 나라가 파괴되었고 패션변화의 속도는 전쟁 전 보다 느려졌지만, 화장·머리 스타일과 옷에 대한 여성들의 흥미는 계속되었고 많은 여성들은 매혹적으로 보이고자 했으며,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담된 나라의 여성들까지도 잘 차려 입고자했다. 전쟁 중인 유럽과 대조적으로 미국은 화장과 매혹적인 머리스타일과 세련된 의상을 기꺼이 이용할 수 있는 패션의 유토피아였다. 뉴욕은 새로운 국제적인 패션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미국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치장하는 여성들로 부러움을 받았다.<sup>207)</sup>

유행하는 화장과 머리 스타일은 가끔 오히려 인위적인 모습이었으며 여성들은 걸치레만 한 모습으로 보였다. 화장은 진하게 하였고 밝고 반짝이는 빨간 입술과 어울리는 빨간 손톱과 발톱은 그 당시의 매우 눈에 띄는 화장의 특징이었다.<sup>208)</sup>

1940년 후반에는 입술이 가장 중요했으며 미용 평론가들은 짙은 빨강색을 호평했다 .

2차 세계대전 이후 메이크업은 립스틱과 메니큐어가 대중적인 화장품으로 자리 잡았고, 피부색은 창백해졌다.

1950년대 중반의 메이크업은 40년대의 창백하여 납 인형처럼 보이게 하는 화장과 외국에서 영입한 영화들의 영향에 의하여 자연스러운 모습의 화장법으로 바뀌었다. 눈과 눈썹은 강조되었으나 그리지 않았고 입술과 머리는 평범하게 했다.<sup>209)</sup>

---

207) David Bond, 정현숙역(1992). 20세기 패션. 서울: 경춘사, p.137.

208) 위의 책, p.137.

파리에서는 중국풍의 화장법이 시작되어 그 영향은 곧 번져 나갔다. 눈썹은 뽑고 위로 치솟고 바깥쪽을 향하여 새로이 그려졌으며, 화운데이션은 거의 분홍빛이 없이 창백했으며, 눈꺼풀은 흰색으로 칠해졌다. 아이라인은 눈썹의 라인을 따라서 바깥쪽을 향해 그려졌고 파우더는 순백색이고 윗입술은 작고 매우 날카롭게 묘사되었고 아랫입술은 매우 짝 차게 육감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습을 전체적으로는 따르지 않았고 그들이 마음에 드는 요소를 메이크업에 적용했다.<sup>210)</sup>

이 시대의 영화배우는 마릴린 먼로로 영화배우의 모습, 몸매와 예절이 여성들의 외모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버릇없어 보이고 애원하는 듯한 표정과 엉덩이를 흔들면서 걷는 먼로의 걸음은 많은 소녀들에 의해 모방되었다.

1960년대의 메이크업은 안토니오와 크레오파트라 영화화에 의해 이집트 룩이 시작되는데 입술은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대담하게 칠해졌고, 눈은 검정색으로 두꺼운 라인으로 처리하고 흰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주었다. 눈썹 역시 검정으로 두껍게 그려졌다. 이집트룩이 압도적으로 대중화는 못되었어도 메이크업의 일반적 경향에는 영향을 주었다.<sup>211)</sup>

진한 검은색 눈 화장은 1960년대 패션에 필수적이었다. 대비를 주기 위해 입술과 피부는 창백하게 표현했다. 1966년 메리 퀴트는 대담한 색상의 립스틱과 아이섀도를 도입했다. 또한 자신의 눈썹에 맞추어 잘라 쓸 수 있도록 긴 조각으로 된 인조 속눈썹을 소개했다.<sup>212)</sup>

이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으로 히피와 히피족의 세력은 가장 유행하는 예찬 운동 중의 하나였다. 히피 스타일의 드레스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남녀의 머리는 적어도 어깨길일까지 자랐으며 가끔 퍼머도 하였다. 구슬이 꿰어진 좁은 머리띠나 스카프는 남미의 인디안 스타일로 가끔 이마위에 걸쳐졌고 뒤에서 고정되었다. 덩수룩한 콧수염과 턱수염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소녀

---

209) Hamlyn(1988), *Key moments in Fashion*. Reed Consumer Books Limited, p.44.

210) 위의 책, p.46.

211) 위의 책, p.47.

212) 벨러리 멘데스, 에이미 드 라 헤이, 김정은역(2003). 앞의 책, pp.204-205.

들은 자주 머리에 꽃을 꽂았고 얼굴화장은 자연스러워졌으며 잔잔하거나 꿈꾸는 듯한 표현이 장려 되었다.<sup>213)</sup>

1970년대의 메이크업은 머리모양, 색상, 직물, 옷의 라인과 구두 디자인에서 패션은 남녀와 아이들 모두에게 더욱 적용되었다. ‘유니섹스’는 남녀가 같이 입는 경향을 묘사하기 위해 60년대 중반 이후 사용되었다. 유니섹스는 남녀같이 입는 경향을 묘사하기 위해 60년대 중반 이후에 사용되었다. 70년대 경 패션은 20세기 어느 때 보다 더욱 더 똑같은 미용사에 의해 같은 머리 스타일로 되었으며 유행하는 머리로 자름으로 인해 많은 청년세대의 외모를 상당히 향상 시켰다.<sup>214)</sup>

유니섹스의 경향은 메이크업에 자연스러움과 화장의 간소화를 가져왔고 다양한 컬러의 변화를 수용하는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

1976년 말 몇몇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핑크 고즈, 플럼을 즐겨 사용했다. 여성들에게 브라운 색조의 의상과 함께 산호색 립스틱(coral lips)이 대중화 되었다. 입술은 펜슬로 라인을 그리고 광택 있는 색상으로 표현하였다. 아이셔도우 색상은 은색, 구리빛, 황금색의 옅은 색조가 사용되었다. 1977년은 브라운 색상에서부터 플럼 계열로 이어 졌는데 진하고 어두운 빨강과 함께 어둡고 강한 색이 사용되었다. 1979년은 메이크업이 자연스러운 화장이 아닌 표시가 나는 화장법이 되었고, 여성들은 거의 쇼핑을 할 때도 메이크업으로 치장을 했다.<sup>215)</sup>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던 시대로 메이크업 스타일에서도 다양한 컬러와 기능적인 화장품 등 패션사업 전체가 부흥의 시대를 걸었고, 메이크업은 가까운 20세기 초반의 상류층의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이 유행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험적이 포스트 모더니즘패션의 영향으로 메이크업에서도 다양한 기법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태의 스타일도 시도되었다.<sup>216)</sup>

1990년대는 세기말의 현상인 혼돈과 불안한 대중심리로 패션에서는 극도의

---

213) David Bond, 정현숙역(1992). 앞의 책, p.213.

214) David, Bond(1992). *History of fashion*, New York : Universe Publish, p.234.

215) Hamlyn(1988), 앞의 책, p.136.

216) Mary Quant(1998). *Classic Make-up*. London: Dorling Kindersley, p.7.

미니멀리즘과 해체적인 장식성이 상반되며 나타난 시기로, 메이크업에서는 미니멀리즘의 단순화되고 절제된 기법과 컬러의 제한으로 현대적이며 미래감이 내포된, 세련되고 도시적인 메이크업이 정착되었다.

또한 상반된 메이크업으로 해체적, 비합리적인 장식성의 영향으로 키치적인 메이크업이 나타났고, 메이크업에 외부 물질인 오브제의 대담한 사용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현대의 메이크업은 패션성 즉 유행을 부여한 것을 패션 메이크업이라 한다면 단순히 얼굴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토탈패션으로서 의상컨셉에 맞는 헤어와 액세서리, 잡화 등과 함께 메이크업도 패션 트렌드에 부합되는 표현의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0세기 전반의 메이크업은 산업화로 인한 화장품 공업의 발달과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이상적인 여성미의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메이크업 경향을 주도하였고, 이는 일반인들에 의해 그대로 파급되어 미적 형식에 있어서 획일적인 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다원성과 불확정성 가치는 예술 전반에서 표현의 무제한성을 허용하고 있고, 예술의 한 분야인 메이크업에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미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 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예술의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메이크업도 다양한 양상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비주류 문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움의 충격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다가오고 있다.

<그림74>는 2002-2005 패션쇼 메이크업 이미지로 21세기의 메이크업 경향을 보여준다.

## 2.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분류

다문화 사회인 현대의 패션이 19세기의 절충주의와 국제화의 규격화된 모더니즘을 거쳐서,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해체주의에 이르는 시대적 사조를 이어 21세기의 새로운 현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유형으로 메이크업도 패션의 트렌드와 함께 변화되었다.

메이크업도 패션과 같은 방법으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분류의 근거를 삼고자 했다.

이원론에 입각하여 박연정<sup>217)</sup>, 송경자<sup>218)</sup>는 복식을 형태, 소재, 양식으로 나누어, 고급과 저급, 상류와 하류 양식의 혼합으로 분류하였고, 송경자는 이원론적 복식 특징을 성의 공존, 속옷과 겉옷의 공존, 이질감이 나는 소재공존, 동·서양 양식의 공존, 하이패션과 스트리트 패션의 공존으로 나누어 그 표현양식을 분석했다.

퓨전현상을 주제로 한 이유미<sup>219)</sup>, 최수아<sup>220)</sup>, 오승혜<sup>221)</sup>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 동·서양의 조화, 상위문화와 하위문화의 조화는 동일하게 분리하였고, 이유미와 오승혜는 과거와 미래의 조화, 최수아는 장르의 퓨전으로 전개하였다.

절충주의 양식을 패션에 적용한 양희영·양숙희<sup>222)</sup>, 나현신<sup>223)</sup>은, 전자는 고급문화와 저급문화, 고전주의와 모더니즘, 순수예술과 대중예술로 분류하여 두 양식간의 장벽을 허물고 화해를 모색하는 것으로, 나현신은 복식의 절충주의 양식을 조형성, 장식성, 기술성, 모호성으로 나누고, 분류된 4가지를 모두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양식과의 절충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

217) 박연정(1997). 앞의 글

218) 송경자(1999). 앞의 글.

219) 이유미(2001). 앞의 글.

220) 최수아(2003). 앞의 글.

221) 오승혜(2000). 앞의 글.

222) 양희영·양숙희(2000). 앞의 글.

223) 나현신(2001). 앞의 글.

위 연구의 분류방법은 연구자들이 공통되는 점이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각 필자마다 이원론적, 절충주의적, 퓨전적인 기본 개념 하에 차별화된 시각과 이론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위의 선행연구에서 복식은 여러 각도의 연구방법이 진행되었으나 메이크업의 연구는 복식만큼 독자적인 연구가 부족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의 분류의 근거를 토대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함께 나타날 수 있는 21세기의 메이크업 현상을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으로 한정하였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도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과 같은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20세기와는 차별화되어, 21세기에 새롭게 나타난 경향을 패션트렌드에 근거하여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상류와 하류, 주류와 비주류,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 전통적 메이크업

서양에서 동양의 일반대중 화장이나 치장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힘들었던 시대에 동서양의 교역이 시작되는 역사에서 가장 먼저 동양의 여러 취향을 볼 수 있던 도구는 아마도 공연문화였을 것이다. 공연문화는 민중 오락<sup>224)</sup>으로서 동양의 공연 문화인 경극과 가부키의 전통적 화장은 패션 컬렉션에서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차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동양의 공연예술 중에서 중국의 경극과 일본의 가부키 화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경극이나 가부키만이 아닌 한국의 전통 신부화장도 우리나라 디자이너에 의해 세계무대에 소개되고 있지만, 전통극 화장의 특징이 아니므로 제외시켰다.

서양에서는 연극, 오페라, 콘서트, 발레 등이 각기 다른 형식과 제작방법을

---

224) 김학현(1997), 가부키, 서울: 열하당, p.12..

정립시켰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러한 분화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동양의 연희는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총체적인 유기체의 형식으로 전승되었다. 그것은 반주 음악과 노래와 춤과 연기 와 대사가 유기적으로 조화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sup>225)</sup>

이러한 총체적인 형식은 공연예술과 공연에 필요한 부가적인 의상이나 소품, 화장 혹은 분장 등의 발전을 가져왔다.

동양의 전통극에는 중국의 가무극인 경극, 일본의 가면극인 노, 일본의 전통 코미디인 교겐, 일본의 서민 고전극인 가부키, 한국의 가면극인 탈놀이, 한국의 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음, 한국의 음악극인 판소리, 인도네시아의 가면극인 토팽과 바롱<sup>226)</sup> 등이 있다. 이 모든 공연에는 그 극에 맞는 화장법이 필요하다.

서구인들에 의해 북경 오페라고 불리는 중국의 경극은 1790년 건륭제의 80회생일 축하하기 위하여 지방 극단들이 북경에 모여 공연을 가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경극은 선진의 원시적인 연희로부터 한 위진 남북조 수 당 송 금 원 명 청의 시대를 통해서 발전해온 각종 연희, 특히 희문과 가무극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울러 경극은 전 시대의 연극에 비해 세련되고 총체화된 무대희극이지만, 반주 음악의 도움을 받아 배우의 분장과 노래와 몸짓(춤과 마임)과 대사에 의해 전개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중국적인 가무희극의 원형성과 특징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sup>227)</sup>

각 지역의 특징적인 전통공연은 일반인들에게 공연과 함께 배우의 화장과 의상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현대에 과거시절의 화장유행의 실재를 볼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수단이며 통로이다.

---

225) 서연호(2004). 동아시아의 공연예술. 서울: 살림출판사, p.3.

226) 바롱은 발리의 사자춤'이다. 바롱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로 '꿈'에서 나온 것으로, 수호자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무서운 여자 악마의 형상을 하고 있는 랑다와 싸우는 선한 힘의 상징이다 토팽은 인도네시아 자바와 발리 등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탈놀이이다.

토팽은 '나무의 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발리섬에서는 '가면'을 뜻한다. 토팽은 나 무가면을 쓰고, 거행했던 무속적인 매장의식이나 성년의식에서 기원하여 발달하였다

227) 양희석(1994). 중국 희곡. 서울: 민음사, p.5

경극은 청대에 새롭게 등장한 연극의 일종이다<sup>228)</sup>(그림 75).

경극의 탄생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휘반의 북경 진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휘반의 북경 진출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경극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청나라 건륭(乾隆, 1736~1795)과 가경(嘉慶, 1796~1820)연간에 북경의 연극계에는 삼경(三慶), 사희(四喜), 화춘(和春), 춘대(春臺) 등 네 개의 유명한 휘반이 활약하고 있었다. 사란들은 일반적으로 이들을 총칭하여 ‘4대 휘반’이라고 하였다. 휘반이란 안휘(安徽, 특히 안경(安慶) 지역)출신의 배우들로 구성된 극단을 일컫는다.<sup>229)</sup>

건륭55년 (1790), 건륭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에서는 갖가지 진상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였다. 연극을 통해 황제를 기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양주에서는 유명한 배우인 고랑정(高浪亭)을 단장으로 하는 삼경반을 북경으로 보내 황제를 위해 공연토록 하였다. 이것이 바로 휘반이 북경으로 진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경극은 형성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피황’ 또는 ‘이황’으로 불렸다. 그러다 1920년대에 이르면서 매란방이나 여숙암(余叔岩) 등과 같은 대 배우들이 등장하여 경극의 면모를 해외에 널리 소개하고, 세계 연극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이로써 중국의 경극은 스타니슬라브스키와 브레히트의 연극론과 함께 세계 3대 공연체계로 손꼽히게 되고, ‘국극’이란 호칭을 얻게 된다. 1928년, 국민당 정부가 북경의 명칭을 ‘북평(北平)’으로 바꾸자 경극 역시 ‘평극’으로 불리게 되었다. 아울러 서구문화의 유입과 함께 현대적 의미의 연극인 신극(新劇)-중국에서는 이를 화극(話劇)으로 부른다-과 문명희(文明戲)가 대두하자 경극은 상대적으로 ‘구극’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1949년 10월, 중화인민 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 정부는 북경의 이름을 되찾아 주었다. 따라서 경극 역시 본래의 이름을 되찾게 되었다.<sup>230)</sup>

경극에서 의상과 장식품은 공연 분위기를 강조하고 각종 인물을 생생하게

228) 송철규(2004). 경극. 서울: 살림출판사, p.7

229) 위의 책, p.8

230) 위의 책, pp.8~13.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학에서는 인물을 묘사할 때 ‘칠후 같은 눈썹,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앙두 같은 입술, 복숭아처럼 붉은 뺨, 사슴처럼 긴 목, 백옥같이 하얀 피부’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무한한 상상의 공간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연예술이자 시각예술인 경극은 관중에게 등장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극은 이를 위해 화장술을 활용하였다. 화장은 경극에서 배역의 성격을 표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일정한 규칙에 의해 그려진다. 특히 ‘정’과 ‘축’은 일정한 격식에 따라 얼굴 도안이 결정되는데, 이런 격식을 일컬어 ‘검보(臉譜)’라고 한다(그림78).<sup>231)</sup>

검보의 기원은 남북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제(北齊)의 난릉왕(蘭陵王)은 소녀보다 더욱 아름답고 하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장군의 신분으로 적과 전투를 벌일 때면 적군에게 여자 같다는 놀림을 당하기 일쑤였다. 난릉왕은 이런 놀림을 잠재우고 적군을 압도하기 위해 언제부터인가 흉악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출정하였다. 그 후 적군은 난릉왕이 나타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제풀에 낙담하여 앞 다투어 도망쳤다고 한다. 이후 검보는 오랜 시간의 경험과 발전을 거쳐 고정된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관우처럼 붉은 얼굴’과 ‘공평무사하고 강인한 포청천의 검은 얼굴’ 등과 같이 전형적인 캐릭터들이 생겨났다<sup>232)</sup>.

경극 배우들의 얼굴 화장은 크게 기초 분장과 색조 분장으로 나뉜다. 기초 분장은 ‘흰 얼굴(素面)’ 또는 ‘연지 화장’이라고도 부르는데, 먹으로 눈 화장을 하고 연지로 얼굴을 발라 간단한 화장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생과 단 역의 배우들이 많이 하며, 화장 순서도 비교적 간단하다. 색조 분장은 바로 검보를 그리는 것이다(그림78).

일본의 가부키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8세기 초엽이다. 이전의 연극인 노나 교겐, 니교조루리, 각종 전승 무용과 가창 등이 바탕이 되어

231) 위의 책, p.74.

232) 王元富(1974), 國劇藝術論, 北京: 明文化事業有限公事, p.2.

서 독자적이 연극으로 정립된 것이다. 가부키에는 무용을 위주로 한 형식, 낭송 혹은 성악적인 대사를 위주로 한 형식, 그리고 일상적인 회화와 몸짓을 위주로 한 형식이 공존하거나 혼합되어 있다. 이는 형성 과정의 유맥을 그대로 계승한 결과이다. 이러한 전통성을 토대로 서구식 프로시니움아치 무대<sup>233)</sup>를 바탕으로 한 장치기술, 회전 무대의 활용, 객석을 가로지르는 등장 퇴장로인 하나미치의 설정 등을 통해 가부키는 오늘날의 창조적이 연극으로 거듭나게 되었다.<sup>234)</sup>

기호학적 관점에서, 신체장식은 글을 쓰는 행위이다. 전통적인 일본인의 화장은 '의미가 씻겨진' 얼굴을 만들기 위해 표면을 흰색으로 채색함으로써 '얼굴'을 만든다<sup>235)</sup>. 가부키화장의 기초는 흰 얼굴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실행하는 메이크업사를 '카오시'라고 한다. 카오시는 일반 화장을 하는 메이크업사와 분리되어 전통적으로 가부키 화장만을 하는 기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부키에는 등장인물이 나왔을 때, 한 눈에 어떤 배역의 인물인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가부키의 각양각색의 등장인물들은 몇 가지의 유형적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역의 특성은 연기의 기본이며 그 특성에 의해 화장, 가발, 의상, 그리고 대사의 가락에서 걷는 법까지도 정해진다.

가부키화장의 기본은 우선 바탕색을 바르고, 그 후에 눈 크기 확장하기와 눈썹, 입술을 그리는 것이 기본이며, 각 부분의 색과 형은 배역의 특성에 따라 대체적인 윤곽이 정해져 있다. 가부키화장의 기본색은 백, 차색, 적, 청의 네 가지 밖에 없다. 가부키 화장이라면 우선 눈에 띠는 것이 백분으로 얼굴에서 목까지 하얗게 칠한 모습이다. 객군의 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이십세기에 들어서서부터, 그때까지는 납 성분의 독이 신체를 침범해서 죽음에 이르는 위험도

---

233) 프로시니움아치(**proscenium stage**) :관객석과 무대를 사진틀 모양의 프로시니움 아치로 구획한 무대. 관객이 객석에 앉아 액자 속에서 벌어지는 연극을 관람하게 되므로 액자무대라고도 한다. 1618~1819년 이탈리아 파르마의 파르네제극장에 처음 설치되었고, 오늘날 대부분의 극장이 이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무대는 특수조명이며 장치에 의해 실내장면 등을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사실주의가 주류를 이룬 19세기에 특히 유행하였다.

234) 서연호(2004), 동아시아의 공연예술, 서울: 살림출판사, p.5.

235) 제니퍼 크레이크(2002), 정인희외3인 역, 패션의 얼굴, 서울: 푸른솔, p. 276.

감수해야 했다. 그래도 백분을 진하게 바른 것은 조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에도 시대의 어두운 무대를 보충하려는 기술적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 이상으로 일본인의 색에 대한 미의식과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얀 피부를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느끼는 일본인의 미의식은 그들의 종교와 밀접한 관계로 시작하여 발전하였는데 그들의 신앙은 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본인의 더러움을 감추고자 얼굴과 손을 하얗게 칠한 것에서 유래하였다.<sup>236)</sup>

하얀색은 고귀한 색이며 청결함과 순결을 의미했고 신에게 선택되어진 자나 신과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서 더 선호되었고 현대까지 그 전통이 이어졌다.

가부키에서는 고귀한 자는 희게, 신분이 낮고 비속한 자일수록 검은색조인 차색(茶色)으로 바르게 되어 있다. 이 차이는 실제의 화장에서는 백분과 지분의 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여자역의 남자배우는 물론 남자역의 남자배우도 분장에서 제일 중요시 되는 것은 ‘성적매력’이다. 성적매력이 있다는 것은 아름다움으로 통하는 배우의 이상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되었다.<sup>237)</sup>

가부키화장의 기본색은 백색, 검정, 홍색, 청색의 네 가지이다. 남 성분이 신체에 유해한 위험도 감수하면서 흰색의 화장이 고수 된 것은 종교적인 이유 외에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무대에 배우의 화장으로 배우들의 몸동작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다(그림76-77).<sup>238)</sup>

위와 같이 중국과 일본의 전통극에 사용된 무대화장인 경극과 가부키는 20세기 말에는 존갈리아노에 의해 97-98년 컬렉션에서 홍콩의 중국반환을 계기로 경극화장만을 차용했으나, 21세기의 컬렉션에서는 혼합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21세기 패션 컬렉션에서의 전통적 메이크업 경향은 크리스찬 디올과 존 갈리아노의 무대에서 주목되기 시작했다.

---

236) 木村雄之助(1979). 化粧. 日本文化與隆會, p.3

237) 위의 책.

238) 김학현(1997). 가부키. 서울: 열화당, p.12.

2004-2005F/W 크리스찬 디올의 파리 컬렉션은 가부키의 화이트 베이스와 경극화장의 컬러베이스가 이용되었다.

<그림79>는 2002 S/S로 크리스찬 디올의 화이트 메이크업이다. 단순하게 페이스를 흰색으로 채우고 눈 부분만을 검정으로 메이크업했다. 다른 컬러나 기교가 없는 단순한 화이트 화장이나, 헤어스타일과 의상에서 일본 전통문화를 느낄수 있다.

<그림80>은 화이트 베이스에 다양한 문양과 컬러로 얼굴 전체를 디자인 했다. 에스닉한 의상과 시농 스타일의 헤어가 다양한 민족의 특징을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81>은 2002 F/W 존갈리아노의 작품으로 그가 즐겨 사용하는 모피를 헤어와 메이크업 이미지에 사용하였다. 화이트 베이스로 입술은 붉은색으로 가부키 입술로 표현했고 전체적으로 모피와 함께 동물적인 인상이 풍기도록 유도했다. 동물적인 이미지는 이 시즌의 패션 트렌드로 모피가 의상과 메이크업에 사용되었다.

<그림82>는 2003S/S 존 갈리아노의 이미지 메이크업으로 얼굴만이 아닌 바디 전체를 화이트로 표현하고 동양적인 모자로 헤어를 표현하였고 메이크업에 이국적인 느낌과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83>은 2003 S/S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뜨르 작품으로 지난 시즌의 음산한 분위기의 화이트 메이크업에서 한층 밝은 가부키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얼굴이 축소해 보이는 가면 화이트베이스로 처리하고 눈화장은 정통 가부키화장이 기법과 같이 처리하였으나 입술은 골드컬러를 사용하고 붉은 립라인으로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귀여운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84> 2003 S/S은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꾸뜨르 작품으로 전체적으로 전통 메이크업을 곡선과 직선을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재 디자인하여 전체 이미지의 인상을 전통적이면서 현대화 시켰다. <그림85>는 강한 눈썹처리와 그래픽적인 분할로 중국의 검보와 가부키의 무사화장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림86>은 존 갈리아노의 컬렉션으로 화이트 베이스에 붉은 기운과 푸른

기운을 파스텔기법으로 처리해 음산하고 심비한 동양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그림87>는 2003 S/S 크리스찬 디올의 컬렉션으로 화이트 베이스에 눈화장은 연두와 노랑으로 강하게 표현하여 의상의 색과 같이 사용하였다. 동양의 매듭을 귀걸이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요부적인 동양화장으로 완성하였다.

<그림88.93>은 화이트 베이스를 부분적으로 구성하고 의상을 메이크업과 연결하여 얼굴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경극의 검보 이미지가 현대화 되어 나타났다. 모피와 함께 번쩍이는 에나멜 소재와 희극화된 메이크업이 역사적인 전통과 현대의 혼합을 느끼게 한다.

<그림89.90>는 문양과 컬러에 있어서 강한 시대 차용이 되었고 문양과 연결하여 얼굴의 그래픽적 요소가 표현되었다. 강한 이미지로 상대의 기를 꺾고자 했던 검보와 가부키의 무사화장이 가벼운 시뮬헤어로 무게감을 덜었다.

<그림91-92>꾸뜨르에서의 크리스찬 디올은 다양한 소재와 기법을 한꺼번에 모두 사용한 듯한 메이크업과 헤어로 보여준다. 동양 모델의 이미지를 전통 화이트 메이크업으로 가볍게 처리하고 두건과 끈을 이용한 헤어로 동양의 상투를 틀기위한 머리형태를 변형하여 표현하였다.

<그림94>는 2004S/S 폼무데 가르송의 작품으로 무대 전체가 화이트와 붉게 변진 눈화장, 과장되게 표현된 원색의 모자, 흰색 쉬폰 의상등으로 겹쳐진 분위기가 표현되었다. 눈과 입술은 주황빛이 강한 붉은색 톤으로 같이 처리하여 단순화된 전통메이크업을 보여준다. 비치는 의상의 소재로 바디도 화이트로 페인팅하여 전통극의 화이트 메이크업의 확장을 보여주었다.

<그림95.96>은 2004 F/W 꾸뜨르 작품으로 역사적인 단편들을 이곳저곳에서 가져와 혼합하여 만들어낸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이다. 메이크업도 동양의 전통적 메이크업에 기초하여 다양한 색상으로 단순한 선을 그어 눈썹과 속 눈썹을 정교하게 처리하였다. 부푼 머리와 서양의 왕관과 액서사리를 이용하여 총체적인 하이브리드 패션을 완성하였다.

<그림97.98.99>은 크리스찬 디올의 2004-5F/W 로 꾸뜨르의 작품과는 다른 정돈된 메이크업을 보여준다. 고급스럽고 정돈된 메이크업으로 가부키와 경극의 혼합된 눈 화장을 보여준다. 현대적인 의상에 반듯하게 처리된 가부키의 머리

스타일을 표현하여 가부키화장에서는 볼 수 없는 긴 속 눈썹으로 확대된 눈을 표현하였다.

2002-2005년의 기간에 표현된 경극과 가부키요소의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디자이너로는 크리스찬 디올과 존 갈리아노가 가장 많이 표현하였고 그 밖의 디자이너들도 사용된 예가 보였으나 크리스찬 디올이나 존 갈리아노와 같이 계속된 시즌에서 보여 한 시즌에만 단편적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꼼무데 가르송은 매 시즌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2004 S/S에는 모든 작품의 원천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으로 가부키 메이크업과 경극 메이크업은 서양의 패션무대에서 화이트 메이크업으로 지칭되고 있으며 경향은 전통화장법에 충실한 화장법과 화이트 페이스만을 표현하는 단순화된 화장법, 다른 문화적 요소와 결합하는 화장법, 기본 화장에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표현되는 화장법 등으로 나타났다.

크리찬 디올의 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는 오프 꾸뜨르와 런 웨이 무대에서 전통적인 모티브와 에스닉의 모티브를 시즌마다 다른 각도로 표현하여 이 시대의 역사적인 유물과 장르의 혼합과 병치를 통해 패션 창조자로서의 역할과 입지를 굳혔다.

국소적 의미의 민족정서가 이제 세계화의 무대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주류문화에서 소외되었던 역사와 전통문화가 관심을 가진 디자이너들에 의해 패션의 창작 모티브로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디지털정보와 통신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빠른 정보화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디지털 하이테크화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레트로(retro)"현상이 21세기의 가장 비중있는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레트로는 라틴어로 회상, 회고, 추억의 의미를 가진 명사 레트로 팩트

(Retrospect)의 준말이다. 사전적 의미로는 옛날의 상태로 돌아감, 과거의 체제나 사상, 전통 등을 그리워하여 그것을 본뜨려고 하는 것을 뜻하며, 음악과 패션에서는 리바이벌(revival), 복고풍을 의미한다.<sup>239)</sup>

고도로 산업화된 현 사회에서 패션경향은 매 시즌 마다 복고현상이 트렌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21세기가 시작되면서 패션의 오랜 역사성과 함께 메이크업도 가까운 20세기의 복고에서부터 다양한 역사적인 스타일이 새로운 감각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과거와 현대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현상으로 21세기에 진입하여 패션 트렌드에 가장 강하게 표현되었던 50-60년대의 메이크업의 재현과 궁정시대를 회상하는 궁정메이크업을 중심으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현상을 레트로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레트로 메이크업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레트로 개념은 하나의 창조를 이루는 과정이다. 이는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들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 즉, 과거양식을 모방하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 현재의 유행 스타일로 재창조되는 것이다.<sup>240)</sup>

역사적으로 화장품 제조 기술이 가장 발달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던 1950년대와 할리우드 배우의 스타일을 모방했던 1960년대의 메이크업은 새로운 세기를 기대하는 21세기에 적절한 시대차용으로 패션컬렉션 무대에서 각광 받고 있다.

50-60년대의 사회상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새로운 역할 능력이 부여되었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으며, 새로운 발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매체가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제약과 궁핍에서 해방된 세계의 여성들은 활동적인 성격으로 사교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고, 여성미를 과시하

239) 한국영문학회(2001), 밀레니엄 새로나온 영한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p.2503.

240) 이인자·양진희(2001),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논집, 24, p.131-132.

며 멋을 즐기기도 했다.<sup>241)</sup>

화장품업계는 1950년대에 들어와 화장품 제조 기술의 과학화가 이루어졌고, 판매 기법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구매 동기와 경향을 분석하고 소비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학적 분석법을 활용했다. 1950년대는 레브론과 에스테 로테의 화장품업계의 남녀 2세대들이 혈전을 벌인 시기였다. 1953년 Max Factor는 최초의 Compact Powder를 출시해 여성들의 사랑을 받았다.<sup>242)</sup>

또한 패션계에서는 세계대전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패션의 중심이 옮겨져 갔으며 컬러TV의 등장으로 컬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전쟁 중 화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화장품이 개발되면서 눈썹 화장용 연필이 널리 사용되었고,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색조화장을 아이새도와 여러 가지 컬러의 립스틱이 등장했다.<sup>243)</sup>

이 시대의 화장의 특징은 백치 같은 아름다움에 섹시하면서도 세속적인 스타일로 여성성이 강조된 메이크업이었으며, 특히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이 인기였는데 컬러는 퍼플이 주(主)가 되어 톤이 다른 퍼플을 눈 두덩이와 언더라인에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하여 우아하면서 매력적인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한 화장은 이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보여 졌다. 또한 전후의 Baby Boom과 급성장한 여성의 취업인구로 20세기 들어 처음 겪는 호황을 화장품 업계에 안겨줬다.<sup>244)</sup>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달과 컬러 TV는 이 시대의 메이크업을 한층 발달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50-60년대의 메이크업 경향을 나타내는 그 시대의 패션 아이콘이 되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50년대 패션 아이콘은 배우인 '에바 가드너'와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을 들 수 있다(그림100.101.104).

---

241) 최민령외4인 공저(2004), 뷰티 메이크업, 서울: 예림. pp.34-37

242) Seeling, Charlotte(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Konemann, p.285.

243) Cosgrave, Bronwyn(2000). *Vogue beauty*. London : Carlton.pp.17-18.

244) Seeling, Charlotte(2000). 앞의 책. pp. 285-286.

60년대는 우아함과 지적인 외모로 미국의 여성상으로 인식되었던 '재키 케네디'와 탑 모델인 트위기(Twiggy)가 패션의 아이콘으로 작용되었다(그림103.105).

21세기에 다시 재현된 50-60년대의 메이크업은 지난 세기보다 더욱 가볍고 밝아진 컬러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레트로 메이크업 트렌드는 '걸리쉬(Girlish:여성성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 영향으로 다양한 러플, 프릴, 레이스 등의 로맨틱룩이 더욱 사랑스럽게 전개되면서 50-60년대의 패션컬러와 디테일 리본장식이 핑크, 그린, 스카이블루 등의 파스텔 컬러들과 함께 어린 시절에 대한 동경과 달콤한 소녀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며 컬렉션 무대를 장식했다.

레트로 메이크업의 모티브가 된 지난 시대의 패션 아이콘은 오드리 헵번과 마릴린 먼로가 대표적이다.

오드리 헵번은 영원한 패션의 아이콘<sup>245)</sup>이 되었고 “그녀가 2001년에 살았다면 이런 스타일을 즐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력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그의 스타일을 재현하고 있다.

레드, 퍼플, 러플 드레스를 입고 뛰어다니는 영화 <그리스> 속의 올리비아 뉴튼 존의 스타일은 그 시절의 대표적인 젊은이들의 메이크업이었다.<그림 102> 사랑스러운 50년대 십대들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패션 디자이너들이 50년대의 추억에서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한 가지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여성들의 모습과 바람에 흔들리는 스커트, 가는 허리를 강조하는 웨이스트 라인, 러플과 프릴 장식, 잔잔한 플라워 프린트 등으로 그 시대의 때 묻지 않은 낭만으로 나타났다.

핑크와 레드, 지브라 프린트의 깃털처럼 폭신한 목소리로 ‘미스터 프레지던트’를 읊어대던 마릴린 먼로와 그녀의 은밀한 섹시함으로 대표되는 50년대 글래머 룩과 캔디처럼 달콤한 컬러들과 다채로운 프린트들이 유행했던 50년대는 그 중에서도 블랙 앤 화이트의 지브라 프린트는 글래머러스(glamorous) 하면서도 도회적인 매력을 동시에 지닌 아이템으로 사랑받았다<sup>246)</sup>. 같은 프린트의 블

---

245) Hamlyn(1988), *Key moments in Fashion*. London: Reed Consumer Books Limited, p.95.

라우스와 스카프 매치를 즐겼던 마릴린 먼로처럼 지브라 프린트의 스카프를 함께 코디네이션하고 50년대의 메이크업을 21세기에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하는 레트로 메이크업이다.

위와 같은 50-60년대 메이크업 경향과 21세기 초의 레트로 메이크업 경향은, 화장품업체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보면 그 단어에서 레트로 메이크업이 20세기 복고화장의 어두운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화장품업체가 제안하는 21세기의 레트로 메이크업 이미지이다.

2003년 휠라가 제안하는 메이크업 트렌드는 어릴 적 비누풍선을 불며 인형의 집에서 소꿉장난을 하던 모습과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백마 탄 왕자님을 꿈꾸며 프릴 원피스에 꽃무늬 머리핀을 좋아했던 소녀시절의 핑크빛 추억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처한 상황을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247)

특히 방금 물에서 건져낸 듯한 워시드된 컬러들이 수채화처럼 잔잔하고 깨끗한 봄의 기운을 느끼게 해주며 21세기의 레트로 트렌드의 밝고 소녀적 이미지와 함께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이 장에서는 21세기에 나타난 50-6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을 2002-2005년의 패션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의 선정은 매 시즌마다 발표되고 있는 트렌드 경향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참고했다.

디자이너로는 세린느, 마이클 코어스, 캐롤리나 헤레나,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 빅터앤 롤, 안나 수이, 샤넬, 크리스찬 디오르, 알버타 페레티로 선정하여 매 시즌에서 가장 두드러진 경향을 나타낸 패션메이크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림106>는 2002 F/W 세린느의 메이크업으로 60년대 모델 튀기의 고전적인 숏커트와 중성적 이미지가 표현된 메이크업이다. 깨끗한 피부표현은 두꺼운 화장이 아닌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으로 강인한 여성상을 나타내고 있다.

---

246) 위의 책. pp.95-97.

247) Spring 2002 makeup trend. ecatalog, <http://www.fila.co.kr/Frame/fila.html>

<그림107>은 2003F/W 마이클 코어스의 메이크업으로 50-60년대의 여성스러움이 강인한 현대여성의 이미지와 합성되어 표현되었다. 아이라인을 선명하게 표현하여 큰 눈이 되도록 했고, 입술은 옅은 핑크색으로 표현하였다.

<그림108>은 2003F/W 캐롤리나 헤레나의 메이크업은 50년대 배우들의 화장처럼 눈썹은 각진 활모양으로 검정색으로 진하게 그리고 입술은 붉은 색으로 선명하게 그렸다. 아래 속 눈썹은 마스크라로 처리하여 흰 얼굴화장에서 돋보이도록 표현했다.

<그림109>은 2003F/W 캐롤리나 헤레나의 메이크업으로 의상은 60년대의 패턴으로 재현되었고, 자연스러운 피부표현과 눈썹은 밤색계통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내추럴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이다. 하지만 입술은 붉은 색으로 강하게 표현하여 60년대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림110>는 2003S/S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의 메이크업으로 50년대 그리스의 젊은이의 감각을 21세기의 젊음으로 표현하였다. 60년대의 복고적인 헤어인 어깨길이에 굽은 웨이브로 피부는 건강한 붉은 볼 터치로 표현되었고, 입술은 핑크빛 누드로 여성스러움을 나타냈다. 눈 화장은 섬세한 기법으로 아이라인을 가늘게 살짝 들여 올려 선명하고 크게 표현되도록 하였다.

<그림110.101>는 2002년부터 강세를 탔던 레트로 열풍에 2003S/S캐롤리나 헤레라와 다이안 본 퍼스텐버그는 쉬머리한 블루 아이섀도와 핑크 컬러의 립스틱을 사용하여 매력 있는 여성의 레트로 풍을 표현하였다.

이외에도<그림107>의 마이클 코어스의 모델들은 섹시하고도 도발적인 현대 도시여성의 이미지를 내세워 강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림113>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강조된 2003 S/S 안나수이의 패션과 메이크업으로 인형과 같은 예쁜 화장과 머리스타일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걸리쉬한 메이크업의 특징은 베이스를 피부색보다 하얗게 표현하고 인형 눈과 같은 마스크라의 처리와 붉은 입술과 볼터치에 있다.

<그림112>은 21세기에 주목받는 2003S/S 빅터 앤 롤의 작품으로 의상은 50-60년대의 물방울무늬 패턴과 리본으로, 헤어스타일도 50년대 초반의 퍼머넌트 스타일로 그 시대의 여성스타일을 가져온 듯 하지만 메이크업은 남성적인

느낌이 느껴지는 강인함과 함께 내추럴한 레트로로 표현되었다. 안나수이와 빅터 앤 톨의 메이크업이 패션과 함께 50-60년대의 레트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2004년에 표현된 레트로 메이크업의 특징은 매우 여성스러운 레트로와 강인함을 가진 여성성으로 표현되었다.

그 밖에 레트로 스타일은 2004F/W 세린느의 컬렉션<그림114>에서 볼 수 있는데

세린느의 룩들은 싱그러운 플라워와 나무 잎의 컬러 프린트 두건과 함께 밝고 내추럴한 피부 표현 및 글로시한 진한 핑크 립스틱으로 입술을 강조하여 카프리카 타히티 섬의 해변을 거닐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했고, 페레의 컬렉션은 매트한 핑크 컬러의 립라인, 인위적으로 과장한 속눈썹, 그리고 울트라 글로시한 볼터치 등 과감한 메이크업과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챙이 큰 레트로풍 모자와 매치 시켜 도발적이면서 매혹적인(알튀르룩:allurle) 룩과 메이크업을 완성시켰다.

2005 S/S의 레트로 메이크업은 성숙한 여성상과 소녀 같은 이미지의 여성으로 양분되어 나타났다.

<그림115>은 2005 S/S샤넬의 메이크업으로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여성을 표현하였다. 핑크 베이지 컬러의 베이스에 얼굴 윤곽을 명확히 나타나도록 볼터치를 하고, 눈썹과 입술을 갈색과 핑크색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안한 듯한 화장이지만 부분화장을 섬세하게 하여, 전체적으로 완벽한 얼굴 표현이 된다.

<그림117>은 2005 S/S 알버타 페레티의 성숙한 레트로 메이크업이다. 1950년대에 와서야 눈의 윤곽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가는 붓이 사용<sup>248)</sup>되었는데, 이러한 가는 붓의 사용은 눈의 윤곽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데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50-60년대의 레트로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인 섬세한 눈 화장으로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눈으로 표현되었다.

<그림116>은 2005 S/S 크리스찬 디올의 존 갈리아노는 전 시즌과는 전혀 다를 트렌드를 전개하였다. 역사적인 소재와 민속적인 모티브를 혼합하고 조합하

---

248) Beatrice Fontanel, 김보현(2004), 치장의 역사, 서울: 김영사, p.35.

는 그의 작업이 2005년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여성만을 표현하는 디자이너로 변신한 듯하다.

오랜만에 크리스찬 디올의 메이크업이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게 되었다. 너무나 투명하여서 빛이 나는 듯한 메이크업으로 색조화장도 밝고 투명한 컬러로 깨끗하게 표현하여 소녀의 순수함과 귀여움을 극대화하였다.

<그림118>도 2005 S/S 크리스찬 디올의 메이크업으로 소녀풍의 헤어스타일로 의상과 메이크업과 함께 천사 같은 소녀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하였다.

색조화장으로는 눈 화장을 짙은 블루톤으로 그라데이션하여 핑크빛 피부와 조화시키고 소녀풍의 캔디와 딸기 악세사리로 부유한 소녀의 이미지를 귀엽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50-60년대의 화장품의 발달로 인한 화장품사용의 급증의 시대에 소녀들이 행하던 짙은 블루컬러와 핑크빛의 퍼플로 눈 화장을 그라데이션하던 기법과 같은 스타일의 화장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21세기에 나타난 50-60년대의 메이크업은 다음과 같다. 2002은 다소 무거운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시작되어 50-60년대의 다양한 특징을 수용하는 메이크업으로 수용되었고 2004-2005년에는 그 시대 보다 더 밝고 화려한 메이크업으로 수용되고 있다.

50-60년대의 화장의 특징인 섬세하게 그라데이션하는 눈 화장을 21세기에도 같은 방법과 컬러로 사용한다.

## (2) 긍정적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이 가까운 과거인 20세기와의 결합이라면 긍정적 메이크업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패션 아이콘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 나타난 긍정적 메이크업은 과거의 풍요했던 시절의 긍정을 회상하며 낭만적인 요소와 사치스러움이 메이크업에 적용되어 고급스러운 레트로 메이크업도 나타났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역사와 접목하여 고급스럽게 표현된 메이크업을 긍정적 메이크업으로 정의하고 2002-2005년의 컬렉션에서 긍정적 메이크업을 표방하는 디자이너인 랑방과 바렌티노의 쇼를 중심으

로 살펴보았다.

궁정적 메이크업의 특징은 역사 속에서 보여 지는 궁정이미지로, 기법보다는 칼라이미지와 전체이미지(헤어나 악세사리) 안에서 살펴보았다.

<그림119> 2002 S/S 발렌티노의 작품은 2005년에 이르기까지 격조 높은 여인들을 표현하여 왔다. 메이크업의 특징은 고전적인 눈 화장을 중심으로 입술은 누드베이지로 표현하였다.

<그림120> 2002 F/W 발렌티노는 완벽한 얼굴표현과 간결한 업스타일 헤어와 눈 화장의 확대된 표현으로 궁정적 이미지의 카리스마를 강조했다. 입술은 붉은 톤으로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2002 F/W의 또 다른 메이크업에서는 고급함은 있지만 전 시즌 보다 자유스러운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2003년의 컬렉션에서는 앰파이어 스타일의 드레스에 고급스러운 보석으로 네크라인을 장식하고 다이아몬드 핀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얼굴은 갈색 톤으로 사용하고 입술은 붉은색으로 표현되었다. 발렌티노의 메이크업은 고급스러운 여성상을 지향해오다가 2005년의 컬렉션에서는 궁정적 이면서 요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122.123.129.130).

2001시즌 컬렉션 트렌드를 주도했던 페미닌한 레이디 룩은 좀더 파워풀한 카리스마 넘치는 스타일로 나타났고, 새로운 레이디 룩은 머스쿨린(Masculine)의 터치가 가미된 화려한 궁정생활이지만 절제된 느낌의 메이크업으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그림131>의 고티에가 디자인한 에르메스 쇼의 부유한 레이디들은 우아하면서도 다소 퇴폐적인 룩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sup>249)</sup>

<그림128>는 2004 F/W 고티에의 에르메스쇼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에 승마를 즐겼던 여성들처럼 에르메스의 레이디들은 모자 아래로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넘긴 룩을 선보였으며, 완벽한 피부 표현에는 어김없이 길게 그린 눈썹과 완벽한 립라이너가 뒤따랐고, 입술에는 레이디의 상징인 새빨간 립스틱이 발라졌다.

<그림127>랑방 쇼에서는 파워 레이디 룩의 21세기의 변화된 모습은 좀더

---

249) 패션정보실, Makeuptrend. 자료검색일 2004/8/20, <http://www.samsungdesign.net/Default.asp>

우아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강조된다. 혈통 좋고 부유한 가문의 여성들처럼 보이는 이런 새로운 스타일의 레이디 룩은 이전 시즌의 레이디 룩과는 분명 다른 점이 있는데 귀족적이면서도 감성이 살아있는 강한 여성의 표현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트렌드를 궁정메이크업으로 분류했다.

궁정메이크업의 대표적인 랑방 쇼는 러시아 궁정의 공주를 표현하고자 보수적이고 지적이면서 매력적인 스타일을 선보였다.

이러한 모던 프린세스들을 위해 <그림126>에서 러시아의 소라야 공주에게서 영감을 받아 완벽한 피부를 강조한 다음, 눈을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으로 존재감을 표현해 주었다.

보그 아시아퍼시픽의 뷰티 컨설턴트 수잔 어빈은 이러한 궁정적 레이디 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동안 트렌드 뒤쪽으로 물러나 있던 앤드로지너스 룩의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정돈된 머리와 레드 립스틱은 예전의 레이디 룩에 비해 좀더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풀한 여성들이 제시되고 있다.<sup>250)</sup>

궁정적 메이크업의 악세사리는 궁정의 고급스러움과 격조를 느낄 수 있는 보석이 등장한다. 부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레이디 룩이 도래함에 따라 90년대 말을 강타했던 핀족(pin:기능적인 핀의 역할과 함께 고급 보석으로 치장된 핀을 헤어에 장식하는 패션 그룹)의 재등장이 예고되고 있다. 2004년, 샤넬과 랑방, 돌체 앤 가바나 쇼의 부르주아 레이디들은 다이아몬드 핀을 머리에 장식한 채 캣워크를 행진했다.

레트로 메이크업, 궁정메이크업, 요부적 메이크업 등에서 레드 립스틱은 21세기의 메이크업 트렌드에서 여성성이 강조된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궁정적 메이크업에서는 발렌티노와 셀린, 루이 비통 쇼에서도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때 피부는 마치 도자기처럼 새하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가 사용되었고, 헤어 스타일은 변형된 업 스타일나 복고적인 웨이브로 요부적인 분위기가 표현되기도 하였다.

---

250) beauty trend(2004.2), E-vogue, 자료검색일 2004/8/10, <http://www.vogue.co.kr>

때때로 궁정적 메이크업은 다소 퇴폐적이고 에로틱한 정부(情夫) 스타일로 변형되기도 했는데, 소니아 리키엘 쇼나 로베르토 카발리, 블루마린 쇼에서처럼 풀 메이크업과 빅 헤어의 모델들은 레이디들의 일탈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그림124>은 로버트 카발리의 정부 스타일의 궁정적 메이크업이다.

<그림125>은 빌부라스의 메이크업으로 중세의 귀족부인의 중후한 느낌의 헤어와 고급스러운 귀걸이와 함께 자연스럽지만 눈·코·입의 윤곽이 명확히 표현된 현대화된 궁정적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전형적인 귀족메이크업의 기본은 자연스러움을 기초로 채도가 낮은 보라색이나 회색을 쌍꺼풀 라인과 언더라인에까지 꼼꼼히 채워 바르고 볼륨감이 풍성한 마스카라를 사용해 속눈썹까지 강하게 연출하는 것이 메이크업 포인트다. 반대로 입술은 옅은 은색 핑크가미된 누드 베이지색 등으로 바른다.

이처럼 깊어 보이는 색조를 사용한 메이크업은 풍성한 느낌과 고급스러움을 중시하는 낭만주의의 부활, 여성스러움과 자연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문화 요소 전반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궁정적 메이크업은 오랜 역사의 과거 코드와 현재의 유행 경향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 21세기에 표현된 궁정적 메이크업의 특징은 내추럴경향아래서 고급스러움이 전개된다.

###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 뱀프 메이크업

뱀프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의 역사에서 짙은 화장이 유행하였던 시절 사교계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이었다. 14-15세기에는 과도한 흰 피부에 대한 열망으로 유해한 납 성분의 분을 사용하여 얼굴과 인체에 해를 입히기도 했고 사망하는 극단적인 예도 있었다.<sup>251)</sup>

근대 유럽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후 짙은 화장이 사라지고, 낭만적인 문학작

251) 春山行夫(1976), おしいゆわの文化史, 東京 : 平凡社, pp.63-64.

품의 영향으로 젊은 여성들 사이에 창백한 얼굴이 유행하였다. 짙은 화장은 여배우나 고급 창녀의 표시로 간주되는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부터 20세기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화장은 하얀 피부 표현에 있었지만 과도한 뱀프화장의 특징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sup>252)</sup>

이러한 사회 전반의 영향과 서구 기독교 사회의 안정된 정착으로 뱀프화장은 일반적인 화장이 아닌 하류문화의 특별한 화장으로 취급받았다.

2004년 가을 메이크업의 강세는 ‘뱀프(Vamp)룩’, 즉 ‘요부(妖婦)’화장이다.

뱀프화장의 특징은 일반적인 화장에 비해 짙은 화장을 일컫는 것으로 티끌한 점 없이 완벽하게 연출한 피부, 짙고 깊은 스모키 아이, 짙고 붉은 입술 등으로 표현되나 현대에 와서는 붉은 입술과 빛나고 윤기 나는 누드 입술의 기법도 함께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뱀프 메이크업은 당당한 카리스마까지 갖춘 파워 뱀프룩으로 21세기에 오리엔탈리즘의 유행과 복고무드의 영향으로 훨씬 강력하고 성숙한 여성미를 강조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뱀프룩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완벽한 피부표현으로 잡티나 기미 등의 결점 커버용 컨실러와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을 총동원해서 티끌한 점 없이 매끈하게 만들어낸 피부이다.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내추럴한 투명 메이크업과는 다르게 공들여서 피부를 인위적으로 표현한 표시가 확실하게 나는 메이크업이다.

가장 큰 특징은 눈 화장으로, 번진 듯한 스모키아이(Smoky eye)와 눈을 짙고 그윽하게 표현하는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으로 펄이 든 퍼플과 골드, 브라운 색 등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스모키 아이의 표현방법은 검은색 아이라인용 펜슬 하나만으로도 표현하는 간단한 방법에서 공들여 원근법에 근거한 깊이감 있는 표현 방법등 기법은 스타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스모키 아이의 장점은 눈이 커 보이고 고양이처럼 요염하고 강렬한 눈매를

---

252) 泰早穂子(1974),スクリーンモードと女優たち, 東京 : 文化出版局, pp.24-25.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화장 순서와는 반대로 아이라인을 먼저 그린 뒤 아이섀도를 발라야 자연스러움이 살아나고 피부, 눈, 입술 순으로 화장을 마치고 볼 터치로 가볍게 마무리하는 기법으로 볼 터치는 베이지색으로 얼굴의 윤곽만을 살리는 정도로 표현되고 있다.

스모키 아이는 메이크업 트렌드의 가장 주된 요소로 다른 스타일의 메이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비비드한 컬러부터 딥한 컬러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계속해서 유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상은 패션 악세사리인 메탈릭한 컬러의 백과 슈즈의 등장과도 연관이 있다. 메탈릭 핑크와 블루의 등장과 더불어 아이 메이크업에서도 골드와 실버, 브론즈로 일관되었던 메탈릭 컬러에 펄 느낌을 강조한 그린과 블루, 바이올렛으로 새로운 느낌을 준다.

2001년 이후의 뱀프 메이크업은 다소 인위적인 느낌이면서 고풍적인 뱀프화장을 하는 입술화장으로 물기가 많아 번들거리는 립글로스 타입보다 고전적인 립스틱 타입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반질거리지 않으면서도 윤기가 감도는 정도로 표현하고, 트렌드에 맞춰 한동안 사라졌던 립 라이너가 다시 부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뉴욕의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스캇 앤드류는 “2004년 가을, 겨울에는 골드를 필두로 깊이 있는 퍼플, 중간 톤의 블루와 그린의 메이크업 트렌드를 주도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컬렉션 무대에서는 누드 메이크업과 스모키 아이를 강조한 뱀프화장이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다.

2002년도의 뱀프 메이크업은 베르사체, 고티에의 꾸뜨르에서 주로 나타났다(그림132.133).

2003년에는 다양한 문화와 소재를 섭렵한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은 요부적인 요소의 메이크업이 많이 보여진다(그림134-137).

2004에는 로베르토 카발리, 부디카, 장 프랑코 페레, 로베르토 카발리, 장 폴 고티에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그림138-142).

2005 S/S에서는 크리스찬 디올과 베르수스에 의해 표현되는 뱀프 메이크업은

특히 눈 화장에 강조점과 변형을 가져온다.

<그림142>는 장 폴 고티에의 오프 꾸뛰르 쇼에서는 고딕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의 헤로인 같은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스모키 헤어가 빅 헤어와 매치되었는데, 메탈릭한 퍼플 스모키 아이와 메탈릭 그린 네일 컬러의 극렬한 컬러 대비가 매우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한 <그림146>엘리 사브 쇼의 모델들은 드라큘라의 정부가 된 것처럼 브라운 색도로 아이홀을 강조하고, 언더라인에 속눈썹을 붙인 음산한 아이 메이크업과 고전적 올린 머리스타일로 호러퀸의 모습을 연출해 주었다. 또 <그림 129.130.147>는 발렌티노 쇼의 꾸뛰르에서는 레이디라이크 룩의 절정을 보여주는 50년대 풍의 빅 헤어가 선보였으며, 두 뺨도 넘게 틀어 올린 머리와 핏빛 붉은 입술은 레이디 룩이 나아가야 할 바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2003년 이후 한 층 더 발전된 메탈릭 스모키의 특징은 한 가지 컬러도 아니고 또한 매끈한 금속적 광택이 아닌 가공되지 않은 듯한 은은한 광택과 다양한 컬러를 믹스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림141>는 파워풀한 카리스마 레이디로 표현된 로베르토 까발리의 여성으로 멋진 카우보이 모자안에 누드 베이지 입술과 아이 메이크업인 블루 계열의 스모키한 눈매를 강조하여 역시 섹시하고 글래머러스한 카우 걸을 선보였다. 또한 눈빛에 더욱 신비스러운 힘을 담았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로베르토 카발리는 전형적인 글래머 룩으로 그린과 블루 블랙, 브라운 컬러가 믹싱된 스모키에 매트한 레드 립, 그리고 풍만한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매치했다. 작 포센은 블루와 그린, 실버의 믹스로 아이라인을 표현했다.

네오 핑크 룩을 멋지게 소화해낸 소니아 리켈<그림148>은 검은 가죽 베레모 모자와 투명하고 하얀 피부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여 요부적인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모자는 요부적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요부적 메이크업이 앤드로지너스한 메이크업으로 변화되는 동기가 된다.

또한 소니아 리켈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깊은 눈매를 강조하기 위해 회색 크림 아이섀도우와 블랙 아이 펜슬, 그리고 마스카라를 여러 번 사용

하여 그라데이션을 준 스모키 아이는 어느 때보다도 완성된 룩을 과시했다.

이와 같이 요부적 메이크업에서의 눈 화장은 전체적 유행인 스모키아이의 매혹적인 기법으로 더 세밀한 그라데이션이 이용되고 있다.

2004S/S컬렉션에서, 부디카는 오염하고 날카롭게 눈썹을 그리고 눈 주위를 회갈색으로, 입술은 브론즈 컬러의 오렌지 계열로 <그림83>과 같이 표현하였다.

<그림140>에서 장 프랑코 페레는 남성적인 모자를 이용하여 과장된 아래 눈썹을 부착하여 요부적인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004년 F/W에서의 뱀프 메이크업은, 오프 꾸뛰르의 패션쇼(장폴 고티에, 발렌티노, 엘리 사브)에서도 과장된 스타일로 변형되어 카리스마 넘치는 마담, 색기 넘치는 요부로 극단적인 여성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과장되었지만 결코 저속하거나 노골적이지 않는 뱀프 메이크업은 뱀파이어 영화 속의 달콤한 흡혈귀처럼 전율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메이크업을 하는 목적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패션에서 창조활동의 모티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프레타 포르테와 오프 꾸뛰르 컬렉션에서 선보인 이 같은 요부적 익스트림 뷰티는 컬렉션을 즐기는 또 하나의 매력이 된다.

이러한 뱀프 화장은 극단적인 여성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남성화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뱀프 메이크업과는 상반된 이미지로 여겨지는 캐주얼한 메이크업인 캐포츠 메이크업을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안에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 (2) 캐포츠 메이크업

21세기에 패션에서 주목 받는 단어는 캐주얼과 스포츠의 합성어인 캐포츠일 것이다. 캐포츠는 실용적이고 개성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젊은층의 취향을 잘 만족시켜 주는 트렌드로 일상복에서 스포츠 웨어로 또한 하이패션까지 그 영역의 확대가 무한한 21세기의 트렌드이다.

‘캐포츠(caports) 룩’이란 캐주얼과 스포츠 패션을 섞어놓은 듯한 세미 트레이닝복이 젊은층 사이에서 편하고 활동적인 의류로 각광 받으면서 확산속도는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다.

이러한 캐포츠 룩에 행하여지는 기능적인 메이크업을 캐포츠 메이크업이라고 정의하고, 캐포츠 스타일이 하이패션에서 적용된 예를 2002-2005 컬렉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2002-2003년의 캐포츠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은 클래식한 학생이미지가 강조되었다. 컬러의 사용은 한정되게 사용하였지만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였다(그림 149-154).

2004-2005년의 메이크업은 내추럴함과 스포츠웨어의 강세로 스포티한 이미지를 나타내기위해 기능적인 메이크업은 물론이고 깨끗한 피부톤 위에 옅은 컬러이지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그림155-163).

검게 그을린 듯한 피부톤에 어울리는 글로시한 메이크업부터 한 듯 안한 듯 자연스런 투명화장까지 캐포츠 룩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이다. 피부는 최대한 얇고 자연스러운 내추럴 메이크업을 강조하면서 자외선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sup>253)</sup>

2000년도 이후 스포츠의류의 패션화로 하이패션에도 스포츠 미니스커트가 유행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많은 디자이너들이 21세기의 유행 아이콘으로 미니스커트를 선택했다.

여기에 메이크업은 더 투명하고 글로시한 느낌을 주면서 펄이 주는 화려한 효과는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투명감 만 을 강조한 지난 캐포츠 메이크업과는 달리 색감과 질감이 살아 있으면서 투명하고 글로시한 메이크업이 적용되고 있다

패션에서의 아이템은 메이크업의 트렌드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 미니 스커트의 유행은 캐포츠 메이크업에 컬러사용과 강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다. 미니 스포츠 패션 메이크업은 미니를 더욱 빛나게 해주는 메이크업으로 예전

---

253) 정지은(2003.7.11), 화장품 신문, 캐포츠룩에 어울리는 메이크업.

에는 강한 메이크업으로 강조했지만 진한 아이메이크업은 21세기의 미니 스포츠 트렌드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내추럴을 기조로 기능성이 강화된 메이크업을 한다.

각 도시의 컬렉션에서 발표된 미니 스포츠, 섹시 스포츠 등에서 진한 메이크업은 이제 볼 수 없게 되었다.

화려하긴 하지만 너무 튀지 않는 스타일로 연출하였고, 아이세도의 경우 굵은 펄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전체적으로 은은한 펄 감이 살아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눈 전체에 퍼 발라 자연스러우면서 신비롭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립 메이크업은 캐주얼하게 하기위해 색감이 있는 컬러 글로스를 사용해 입술의 윤기와 광택을 더해 도톰하고 귀여운 입매를 연출 해주었다. 또 섹시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면 촉촉한 모이스처 타입의 립스틱을 이용해 너무 진하지 않게 입술에 발라주고 그 위에 투명 글로스로 처리했다.

<그림155>에서 도나카란은 스포츠와 레저와 하이패션을 혼합한 패션과 골드 베이스가 깔린 기능성과 패션성이 동시에 느껴지는 캐포츠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그림158>크리스찬 디올의 2005 S/S로 패션 트렌드가 투명하고 가벼운 소재를 중심으로 화이트와 파스텔 계열의 컬러가 중심컬러로 부상한다는 판단으로 '악상토닉(樂想tonic: 컬러를 음악의 액센트로 표현하여 쇼가 시작할 때 긴장감 있는 자동차의 합음을 선보였다.)'을 선보였다.

크리스찬 디올의 패션디자이너인 존 갈리아노가 바다의 조개빛과 황혼빛에 영감을 얻어 화이트와 황금계열의 조화를 시도한 결과 샤페이하면서도 스포티와 세련된 느낌을 강조한 색상을 표현했다.

<그림162>프라다의 2005 S/S는 밀짚 모자와 함께 노 메이크업에 가까운 누드 메이크업을 선보였는데 천연 타이다이 염색으로 인한 룩들과 조화를 이루어 나른하고 편안한 느낌을 선사했다.

<그림163>디 앤 지의 2005 S/S는 밝고 투명한 누드 페이스와 글로시한 누드 베이지 립 글로스를 매치하여 건강하고 스포티한 메이크업을 연출했다.

런웨이에서 보여진 모자는 더 이상 정돈되지 않은 페이스를 가리기 위한 수

단이 아닌, 모든 여성들에게 바캉스 시즌뿐만 아니라 계절을 초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패션메이크업 아이템으로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이용되고 있다.

####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 (1) 에스닉 메이크업

비 서양문화 사회에서의 얼굴과 체형장식은 서양문명 사회의 일시적인 화장과 비교해서, 보다 드라마틱하고 지속성이 강하다. 이러한 비 서양문화의 화장이 서양 사회에서는 영구적인 상처로, 그 밖의 장식은 비 문명으로 보여 졌다<sup>254)</sup>.

이러한 서양의 시각은 20세기가 시작하면서 동양의 복식이 소개되면서 상류층의 동양취향이 비문명적인 것이 아닌, 고급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에스닉 메이크업 또한 패션의 영향으로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다.

앞에서 분류되었던 전통적 메이크업은 동양의 대표적인 전통극 화장에 대한 메이크업으로 제한하였고, 이 장에서는 그 밖의 민속적인 에스닉 요소를 주류와 비주류 안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기본이 되는 에스닉 메이크업은 20세기 초 뿔 뿌아레의 패션에서 도입된 동양정취에서부터, 민속적 취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국가와 민족들의 이국풍(exotic:서양시각에서의 이국풍)이 포함된다.

서양 입장에서의 이방인들을 향한 트렌드는 신비한 동양의 무조건적인 모방에서 발전되어, 여러 민족적 컬러들을 다양하게 혼합시킨 민족융합적인 새로운 코드를 창조해냈다. 그러한 창조의 결과로 민족적으로 근원을 명확하게 갖고 있거나 민족융합적인 새로운 코드는 그 자체가 글로벌이 되어 가고 있다.

---

254) 早川律子(1979), 化粧の心理學, 東京: 週刊粧業, p.27.

이러한 민족 융합적 코드는 화장품의 컬러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해 동양과 서양의 대표 컬러인 붉은 컬러와 푸른 컬러가 섞여 빛어낸 심오한 퍼플 컬러가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심지어 블루로만 표현되던 스킨 자체도 약간씩 퍼플감이 섞여 좀 더 깊고 신비한 컬러코드로 변하는 추세이다.

이는 물을 주소재로 다루는 스킨케어 시장에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족적 융합의 하이브리드 코드는 화장품의 색상까지도 좌우 한다.<sup>255)</sup>

또한 감성적 다기능 제품들은 자연과 인간, 삶의 질 자체가 존중되고 있는 현재는 새로운 시도와 여성스러운 감성으로 포장된 신 개념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상품 이상의 가치를 전달해주는, 감성과 체험을 중요시하는 마케팅들이 성공하기 시작했고, 이 ‘another effect’<sup>256)</sup>를 전달해줄 수 있는 독특한 제품들의 수나 양이 늘어나면서 기존 카테고리를 변화시키기도 한다.<sup>257)</sup>

2002의 에스닉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크리스찬 디올, 존 갈리아노, 고티에 등을 들 수 있다. 기법은 다양한 민속적 정서를 현대와 혹은 다른 이 문화와 혼합, 소재에서 민속적인 패턴과 미래적인 소재와의 혼합 등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 기법에서는 원시적인 페인팅이나 과도한 장식으로 표현되었다(그림165-173).

에스닉 메이크업의 하나의 표현법으로 문신이 사용되었는데, 문신은 충성의 표시였고, 종교적 헌신의 상징이었으며, 전투의 용맹을 기린 훈장이었고, 성적인 유혹이었으며, 단체를 구분 짓는 표적이었고, 개성의 상징이었으며, 체벌, 노예, 추방자, 범죄자들을 표시하는 수단이었다.<sup>258)</sup>

2003년의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징은 문신을 다시 사용하였고 다른 컬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그림174).

---

255) 뷰티 트렌드, [http:// www.style.com/beautytrend](http://www.style.com/beautytrend)

256) another effect: 상품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외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이 가지는 상품이미지에서 보이는 상품포장까지를 포함하는 영향력. 메이크업에서는 다양한 화장품이 그 시즌마다 선택하는 기초화장품(메이크업을 행하였을때 얼굴에 컬러로 남지않는 기초화장품 郡)의 컬러로 인해 소비자가 인식하는 트렌드경향.

257) 뷰티 트렌드, [http:// www.style.com/beautytrend](http://www.style.com/beautytrend)

258) Steve Gilbert, 이순호 역, 문신, 금지된 패션의 역사, 서울: 르네상스, p.11.

2004-2005년 과거 역사의 흔적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메이크업 기법에서도 페인팅과 풀라주 등을 사용하였다(그림176-181).

<그림175>는 에밀리오 푸시의 작품으로 메이크업의 완벽한 베이스처리를 역행하여 수많은 주근깨를 찍어 자연스러운 에스닉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그림173>은 장 폴 골티에의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영 트렌드의 의상과 함께 밝은 파란색으로 눈을 표현한 짙시퐁의 에스닉 메이크업이다.

새로운 패션의 모티브를 찾는 디자이너와 고객들의 열정이 만든 패션의 관심이 21세기에 들어서 에스닉 브론즈로 표현되었다.

메이크업 트렌드의 모든 영역에 브론즈, 브라운, 골드 컬러가 기본 베이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영향은 오리엔탈리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란 동양을 타자화하여 비하하는 서구중심주의적인 인식<sup>259)</sup>으로 시작하였으나 패션에서는 일반적으로 동방적 취미, 동방적 정서, 동방적 예술의 애호를 말한다.<sup>260)</sup> 이러한 동방적 취향이 메이크업에서는 특히 근세유럽에 있어서 19세기 낭만주의의 한 경향인 이국취미를 관능적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내추럴함이 공존하는 브론즈 글로우 메이크업으로 에스닉을 표현한 21세기였다.

21세기의 여름 트렌드는 브론즈 메이크업이 에스닉과 함께 하이브리드 되면서 더욱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에스닉은 다른 시즌에 비해 훨씬 글로시하면서도 쉬머리(shimmery: 희미하게 반짝이는)느낌이 강조되어, 패션계는 이 새로운 브론즈 메이크업을 새로운 트렌드로 맞이하고 있다.

메탈릭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 21세기 브론즈 글로우 메이크업은 구리 빛 피부와 강렬한 햇빛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무엇보다 건강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에스닉 메이크업에 더하여 21세기의 에스닉은 골드컬러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

259) 박노자(2004), 하얀 가면의 제국, 서울: 한겨레 신문사, p.9.

260) 동아시아세계원색대백과사전(1983), 서울: 동아출판사, p.286.

메탈릭한 느낌을 주면서도 섹시함을 강조하는 ‘브론즈 글로우’룩은 한동안 지배적 이었던 페미닌한 룩에서 벗어나 당당하면서도 도도하고 섹시함을 연출하여 새로운 뷰티룩과 메이크업이 선보였다.

21세기의 골드는 결코 80년대의 골드처럼 사치스럽거나 오만한 느낌으로 표현되지 않고 에스닉이 가지는 민속적인 편안함을 포함한 골드로 표현되었다. 20세기초 혁신적인 모더니스트였으며 아름다운 방랑자였던 버지니아 울프의 자유로운 영혼, 30~50년대 추억의 필름 속에서 영원한 전설이 된 할리우드 글래머들, 과거 격식과 예절을 갖췄던 숙녀들의 고급스럽고 우아한 로맨티시즘과 에스닉의 정서를 담고 있다.<sup>261)</sup>

골드컬러가 브론즈와 혼합되면서 에스닉과 고급스러움이 절제된 메이크업의 기법으로 화려하지 않은,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는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눈으로 보이는 에스닉 이미지와 정서적인 에스닉이 화려한 트렌드 컬러였던 골드와 브론즈가 에스닉 골드 브론즈로 다시 태어났다.

런웨이에서 등장한 다양한 브론즈 글로우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그림182>의 안나 수이는 발랄한 스쿨 소녀다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브론즈 컬러로 광대뼈가 있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강렬한 오렌지 컬러의 립스틱으로 매치했다. <그림183>의 켈빈 클라인은 컬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인 대신, 인디언 핑크의 립, 마네킹의 매끈하고도 실키한 피부톤, 그리고 광택을 느낄 수 있는 글로시(glosser)한 부분을 살려 내추럴 룩을 강조하였다.

관능적이면서도 내추럴이 공존하는 브론즈 글로우 메이크업은 예전에는 여름에만 유행하였으나 이제는 계절과 관계없는 건강 과 에스닉 이미지와 결합되어 이국적이면서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내추럴 이미지까지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브론즈 메이크업은 21세기의 에스닉 메이크업에 골드 컬러를 첨가시켰다. 골드컬러의 역할은 에스닉 이미지를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변화시키는 역할과 앤틱과 결합하여 고풍스러운 이미지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

---

261) 김미리(2004.10.4). 2005 S/S 뉴욕컬렉션. 자료검색일 2004/10/20, <http://chosun.com>

21세기 여성들이 주목해야 할 골드는 ‘빈티지’ 또는 ‘엔틱’이란 수식어가 붙는 에스닉 골드이다

마치 유럽의 한 고성이나 벼룩시장, 다락방 등에 숨겨 있던 듯한 빛바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골드로 브라운이나 청동 빛을 살짝 머금고 빛바랜 듯 반짝이는 빈티지 골드는 2005 S/S 프라다, 안나 몰리나리, 돌체 앤 가바나, 에트로 등 수많은 패션쇼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모든 스타일의 의상, 메이크업 컬러들과 조화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요즘 할리우드 스타만큼이나 패션스타로 주목 받고 있는 록 황제의 딸들(믹 재거의 딸 엘리자베스 재거와 같은 어린 숙녀들)은 진즈나 가죽, 핑키한 티셔츠와 함께 빈티지 골드를 매치시켜 즐기며, 20~30대의 요조숙녀들은 빈티지 골드를 부드러운 시폰뿐 아니라, 니트, 트위드와 도 함께 스타일링하고 있다. 빈티지 골드는 지금 가장 패션스타들의 유행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이다.

또한 악세사리에서도 모던하게 재해석된 골드 백과 슈즈, 주얼리들이 메이크업 스타일과 연계되어 디자인된다. 그레타 가르보의 신비한 눈빛을 연출시켜줄 브론즈 골드 메이크업이 많은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 의해 주요 트렌드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그림178>은 디 앤 지 컬렉션의 작품으로 헤어스타일에서부터 적극적인 골드 브론즈 메이크업으로 펄로 부분적인 강조를 했던 화장과는 다르게 골드브론즈는 전체에 은은한 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화려한 컬러인 골드와 평범한 컬러인 브론즈가 혼합되어 새로운 에스닉 스타일로 디자이너들에게 활용되고 있다.

메이크업에서도 골드가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이후 골드 메이크업의 특징은 브라운 또는 블루, 퍼플과 같은 컬러를 더욱 고급스럽고 섹시하게 승화시켜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칫 단조로워지기 쉬운 컬러들에 우아함, 신비로움, 고급스러움 등의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골드 메이크업은 켈빈 클라인의 도회적인 레이디 룩, 구찌의 글래머 룩, 오스카 드 라 렌타의 요조숙녀 룩 등 여러 유명 패션 브랜드들의 캣워크에서 빛을

받았다(그림183).

이러한 골드컬러는 21세기 메이크업의 모든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클래식을 세련되게 재해석한 네오 클래식시즘, 우아하고 새침한 레이디라이크 룩, 신비롭고 섹시한 할리우드 글래머 룩, 그리고 노스텔지어 가득한 빈티지 룩에서도 지금까지 골드의 유행과는 차별화된 모든 트렌드에서 나타났다.

골드컬러는 패션 전반의 유행 컬러로 패션소재, 패션 악세서리, 메이크업 컬러로 초라하거나 화려하거나 어떠한 트렌드에도 어울리는 내추럴 컬러로 21세기에 새롭게 태어났다.

21세기로 들어서면서 골드의 이미지는 에스닉 메이크업과 결합하면서 고급함에서 저급함까지로 확대되었고 기본 컬러가 가지고 있는 컬러고유 이미지인 고급스러움도 하이브리드 현상에서는 전혀 다른 저급한 이미지로 변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 (1) 미래 메이크업

21세기의 미래 메이크업은 패션과 동일하게 밝은 컬러로 예측되고 표현되어졌다. 이 장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을 미래 내추럴, 미래 익스트림, 미래 판타스틱으로 구분하여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경향을 살펴보았다.

내추럴은 이젠 더 이상 새롭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다. 하지만 내추럴은 여전히 이상적인 꿈이며 지속적인 노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21세기의 사람들은 내추럴 성분에 대한 갈망, 유기농 식품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에 조금이라도 근접하기 위해 향과 성상에 있어서, 보다 자연스럽게 처방하려 노력하며 보다 매력적인 내추럴 성분들을 찾기 시작했다. 또한 좀 더 신선한 성분을 공급하고, 필수 불가결한 방부제의 함량을 줄여보기 위해 소형의 용기제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자연으로의 열망은 인간생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에

대한 갈망으로 다시 귀결되고 있는데, 물은 피부를 지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성분으로 얼굴에 부드러운 촉감을 더해주고 활성화시켜 환하고 밝은 피부 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메이크업에서는 미래적 경향으로 웰빙과 함께 미래이미지를 담은 투명 메이크업이 하이패션에 새로운 21세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나타난 미래 메이크업은 알렉산더 맥퀸, 구찌, 질 샌더, 준야 와타나베, 웬디등의 디자이너를 들 수 있다.

2002-2003년에는 미래 내추럴 메이크업으로 시대성을 가미하여 과거 역사적인 의상에 미래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메이크업의 특징은 내추럴을 기본으로 글로쉬함과 가볍게 번쩍이는 미래이미지를 표현하였다(그림185-188).

2004년은 미래 익스트림 메이크업의 경향으로, 헤어나 기법 등에서 극단적인 표현 양상을 보인다(그림189-193)

2004 F/W-2005 S/S은 기존의 미래이미지에 판타스틱한 기법과 상상력을 메이크업과 헤어 장식에 사용한다(그림194-199)(그림203-205).

베이지 컬러는 어떠한 유행 경향 중에도 여전히 패션에 존재해 왔다. 그 만큼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컬러로, 아무리 백인이라도 사람의 얼굴에는 베이지톤이 깔려 있기 때문에 머리컬러인 브라운이나 금발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어느 해의 가을 보다 뉴트럴 베이지들이 더욱 많이 등장했다. 이러한 베이지와 미래이미지가 혼합되어 미래 내추럴 이미지가 많은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소개되고 있다.

2004 f/W에서 구찌, 오스카 드라 렌타, 켈빈 클라인의 컬렉션에서는 베이지 컬러의 메이크업이 디자이너의 경향에 따라 밝은 베이지에서 핑크베이지에서 브라운 베이지로 표현되었다.

<그림209>페리 엘리스 쇼에 등장한 모델 아이 토미나가의 얼굴은 핏기를 잃은 듯 창백하게 표현되었다. 거의 모든 색조를 배제하고 매트한 베이지 립스틱

으로만 메이크업을 마무리 했다. 바비 브라운의 메이크업을 담당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피터 슝 역시 매트한 베이지 립 컬러를 선택하여 건조한 겨울철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으로 캐츠 아이와 베이지 립을 표현하여 이브 생 로랑 쇼를 장식했다.

매트한 피부 표현과 브러셔까지 베이지로 모두 통일하여 심지어 네일 컬러까지 베이지 누드톤으로 마무리했다.

<그림211>는 웅가로의 메이크업은 창백해 보이는 베이지 대신 전형적인 베이지 핑크와 브라운을 사용하여 웅가로의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의상을 돋보이게 하였다.

<그림207>에서 켈빈 클라인 또한 베이지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독보적인 디자이너로 2004년도 역시 모델 나탈리아의 매력을 베이지 메이크업으로 아주 은은한 브론즈 골드 컬러 아이 색도의 베이스로 베이지 컬러로 표현하였다. 여기에 지적인 누드 베이지 핑크 계열의 립스틱까지 더하여 베이지 홀릭 (beigeholic)을 나타냈다.

<그림187>는 2003 S/S컬렉션으로 구찌의 미래적 감각이 내추럴이미지와 함께 혼합되면서 브라운, 골드베이스가 긴장감있게 사용되어있다.

<그림188>의 질 샌더는 노 메이크업과 같은 베이스 표현으로 미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190>의 웬디의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되고 있다. 눈썹과 아이 홀 사이를 같은 브라운으로 처리하여 미래이미지를 강조했다.

베이지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메이크업 특징은 표정이 없는 미래 이미지를 담고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표현으로 다른 시즌의 매트한 딱딱함은 나타나지 않았다.

베이지로 표현한 미래 내추럴 메이크업은 각 디자이너들의 메이크업 베이스에 미묘한 컬러이미지를 형성하게 하여 사진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나 실제 이미지에서 새로운 디자이너 특징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미래 메이크업은 미래 익스트림 메이크업으로 미래 익스트림 메이크업이란 미래이미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메이크업으로 헤어를 포함한 메이크업 기법에서 미래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누드 페이스와 내추럴 헤어가 의미하는 일상에서 극단적인 상상력을 더해 익스트림 메이크업이 미래이미지를 담고 디자이너들의 제한 없는 상상력을 열어놓고 있다. 백스테이지의 익스트림 룩을 통해 뷰티의 아름다운 상한선을 감상하고 멋진 크레이지 페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21세기는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파트너십이 이뤄낸 결과물들은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인다.<sup>262)</sup>

오프 꾸뛰르와 일부 프레타 포르테에서 선보여지는 익스트림 뷰티의 세계는 비록 트렌드와는 상관없다 해도 아티스트들은 물론 뷰티 마니아들의 아드레날린까지 용솟음치게 하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비록 리얼리티 세계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현상일 지라도 미래의 패션코드로 청중에게도 일상에서의 지루함을 벗어날 수 있는 상상력과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극단적인 메이크업으로 2004F/W 의 알렉산더 맥퀸의 무대를 들 수 있다.

뮤지컬이나 판타지 무비에나 등장할 익스트림 뷰티는 우주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변종을 낳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베이비 페이스의 에일리언들이다. <그림194.195.196>은 새로운 에일리언으로 묘사된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이다. 모델 모두가 짧은 퍼머먼트 헤어 스타일로 (조각상의 머리를 응용) 무표정하고 장식성을 배제한 21세기의 미래 익스트림 메이크업으로 표현되었다.

21세기 강력한 트렌드 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누드 룩이 맥퀸 쇼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선보여진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주름살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는 마치 갓난아기의 얼굴을 연상시키고 외계인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런가 하면 헤어 스타일은 외계인과 네오 클래식시즘을 접목시킨 독특한 컬리 헤어를 선보였다. “마치 양털이 돌돌 말린 셔링 코트를 연상시킨다.

---

262) 박윤정(2004), 익스트림 페이스, 2004-2005 S/S 보그 트렌드 정보지. p.8.

맥퀸은 두상이 작아 보이는, 시뇽(chignon: 뒷머리에 땀아 붙인 쪽)이 아닌 헤어 스타일을 원했고 메이크업 팀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헤어를 모방하기로 했다. 퍼머 약 없이 퍼머 로트를 말아서 풀어 머리카락은 마치 모자처럼 두피에 딱 달라붙었고, 머리카락에 파우더를 뿌려 텍스처를 마무리했다.

<그림195>는 특이한 아름다움의 소녀 모델들이 백스테이지와 캣워크를 점령해가는 가운데 특히 눈 사이가 먼 모델 쟀마의 매력을 극대화시킨 알렉산더 맥퀸 쇼의 헤어와 메이크업은 모델들을 ‘외계 소녀’처럼 보이게 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발 갈란드는 눈 사이가 멀어 백스테이지에서는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이름인 ‘네모(NEMO)’란 별명으로 불린다는 쟀마의 얼굴에 ‘보톡스 뷰티’를 시도했다. 그는 “모든 모델들의 얼굴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고 눈꼬리도 약간 올라가게 만들었다.

맥퀸의 외계인 메이크업으로 표현된 미래이미지와 또 다른 미래 표현은 캐츠아이의 표현이 있다.

아이라인을 강조한 날렵한 느낌의 캐츠 아이가 또 하나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림196>는 2004F/W로 발렌티노, 미소니 안토니오 베라르디, 아이스 버그 쇼에서 등장한 얇게 빠친 듯이 올라간 아이라인은 카리스마 넘치는 여전사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sup>263)</sup>

<그림189>은 준야 와타네베의 메이크업으로 단순한 캐츠 아이로 표현하였지만 과장된 헤어스타일이 모델을 미래 익스트림 스타일로 극단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게 한다.

<그림191>는 공포와 혼합된 팬디의 메이크업, <그림192>은 블루컬러로 표현된 과장된 스모키 아이로 요지 야마모토의 작품이다.

패션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창작이미지는 어느 시즌이나 있어왔었다. 21세기의 미래이미지는 극단적이지만 내추럴을 기본으로 80년대에 표현되었던 과장된 표현에서 벗어났다.

세 번째 미래 메이크업의 표현으로는 극단의 뷰티를 표현한 크레이지 페이

---

263) 위의 책, p.9.

스와 달리 21세기의 판타지 랜드 속의 모델들은 동화 속 요정처럼 순수하고 평화로운 얼굴들이다. 공통적으로 화이트, 페일 핑크 등의 컬러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헤어스타일은 예외 없이 천사의 머릿결처럼 사랑스러운 컬을 이루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그림197).

팻 맥그래쓰는 프레타 포르테의 빅터 앤 로프 쇼에서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익스트림 뷰티를 선보였다. <그림203.204.205>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사슴’을 표현하였는데, 디자인 영감은 밤비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화이트로 커다랗게 그린 아이 메이크업과 누드 립. 그리고 눈에는 마스크라를 발라 작은 삼각형으로 만든 긴 인조 속눈썹을 세 가닥 붙여서 포인트를 주었다. 모델들은 사슴 소리를 가르릉 대며 백스테이지에서 장난을 쳤고, 덩불처럼 부풀린 머리엔 작은 뿔이 장식되어 밤비니 룩을 완성해주었다.<sup>264)</sup>

크리스찬 디올의 존갈리아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팻 맥그래쓰의 작품은 이 시대의 판타스틱 메이크업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익스트림 뷰티의 선봉자는 존 갈리아노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팻 맥그래쓰의 팀워크이다. 판타지 랜드의 제왕과 여왕을 꿈꾸는 그들의 상상력은 프레타 포르테와 오프 꾸뛰르를 넘나들며 환상의 ‘크레이지 페이스’를 선보인다.

먼저, 지난 2004년 A/W 프레타 포르테 쇼에서 팻 맥그래쓰가 디올 쇼에서 선보인 룩은 20년대의 유명 일러스트레이터 비노(Binot)에게 영감을 얻은 것으로, <그림198.199>은 모델들이 옥빛 아이 메이크업에 작은 자줏빛 입술을 하고 모델들이 일러스트에서 현실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특히 인조 속눈썹은 이번 쇼를 위해 특수 제작한 것으로, 어떤 것은 20cm가 넘는 것도 있다. <그림179.180.181>은 갈리아노의 시그니처 쇼에서 선보인 룩으로 머리에 커다란 가방을 이고 다니는 예멘 부족의 페이스 페인팅을 에드워드 시대의 인형 모습과 교배시킨 룩이다.

눈가에 그린 작은 점들은 갈리아노가 속눈썹이나 반짝이 없이 좀더 ‘순수한’ 모습을 표현했다.

갈리아노 쇼를 더욱 돋보이게 한 것은 '올란도 피타'의 헤어이다. <그림199>

---

264) 최영은(2004.2). 21세기의 판타스틱메이크업, 엘르메가진.

는 어디까지가 헤어이고 어디서부터가 모자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땀은 머리카락이나 엷두는 물론 모피나 담쟁이도 있고, 심지어는 비닐 랩이나 탬버린이나 모자 상자, 나이프와 포크로 머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림179>는 과거 예멘의 여인들이 머리에 가방을 이고 다니며 길에서 주운 것을 담고 다녔다는데서 착안하여, 코카콜라 캔을 뒤집어쓴 괴상한 헤어스타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새로운 것을 찾고자하는 디자이너에게는 무리한 발상은 아닐 것이다.

팻 맥그래스는 지난 7월 파리 오프 꾸뛰르 쇼에서도 그의 특기를 발휘했다. 비엔나의 궁정 파티에 어울리는 거대한 드레스를 선보인 디올 오프 꾸뛰르 쇼의 크레이지 페이스는 화이트 파우더를 귀까지 두껍게 바른 후 화이트 펜슬로 눈썹을 그리고, 블루 색도로 눈두덩을 칠한 다음 핑크 빛 볼연지와 핑귄 같은 작은 입술로 해학을 더함으로써 중세 유럽 귀족풍의 메이크업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림197>에서도 화이트 눈썹은 여전히 길고 가늘었으며, 때로는 화이트 컬러의 긴 인조 속눈썹으로 대치되기도 했다. 특이한 것은 다소 코믹한 메이크업에 매치된 보글보글한 웨이브 헤어와 커다란 크라운이다.

<그림191>의 2004 F/W 웬디는 레이디 라이크 룩의 익스트림 스타일을 히치콕 영화 속의 신경질적인 여주인공이나 흑백 공포 영화 속의 호러퀸처럼 날카로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춘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공통적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흰 피부에 핏빛 붉은 입술로 음산한 분위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그림193>의 2004 S/S 웬디는 아주 가벼운 느낌을 주는 피부에 진주나 화이트, 골드를 사용하여 마치 베일에 사여 있는 것같이 투명하면서도 우아하게 피부표현을 연출했다. 눈은 브라운과 블루 색상에 진주 펄 파우더를 이용해 눈썹 뼈 부분에 하이라이트로 발라주어 투명하고 섹시한 메이크업을 연출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미래메이크업의 3가지 경향 중, 미래 내추럴 메이크업은 디자이너들이 제한하는 21세기 경향으로 패션쇼 현장과 일반인들을 가장 가깝게 연결시켜 주는 메이크업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다. 미래 익스트림과 판타스틱 익스트림은 21세기 메이크업 트렌드 중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의 이벤트성 쇼 현장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공연처럼 나타나고 있다.

현재와 미래라는 시·공간 사이에서 확인되지 않는 미래이미지를 무대를 통해 표현하고, 단편화된 과거의 이미지를 재해석하여 미래 이미지로 조합하여 표현하기도 하였다.

21세기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막연한 미래이미지가 아닌 구체적인 요소가 혼합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맥퀸의 외계인 이미지는 머리스타일에서부터 메이크업의 표현에 이르기까지 실제의 외계인을 본 뜬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이전의 미래적인 표현 방법이 재료에 의한 사이버 이미지나 컬러에 의한 미래 이미지였다면 21세기의 미래이미지는 구체적인 표현방식으로 손에 잡힐 듯한 미래 공간과 인물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존 갈리아노의 에스닉과 미래이미지로 표현된 2005 S/S 무대는 다양한 민족의 특성을 단편화시켜 조합하여 의상과 메이크업에 글로벌화 된 세계가 표현되었다. (2005 S/S 존 갈리아노의 메이크업은 미래 이미지도 가지고 있으나 표현분류 상 에스닉 이미지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분류하였다.)

<표5>는 위에서 분류한 5가지 유형의 하이브리드 경향 메이크업의 특징을 년도 별로 분류한 것이다.

### <표 5>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분류

(2002 S/S-2004 F/W 패션쇼 메이크업을 중심으로)

양 상 분 류	메이크업유형	2002년 메이크업 특징	2003년 메이크업 특징	2004-2005년 메이크업 특징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전통적 메이크업인 가부키와 경극 메이크업	기본메이크업에 한 가지 현상만을 첨가한 화이트 메이크업	화이트메이크업 기법을 응용하고 재조합	서양의 역사성과 다른 문명과의 혼합된 양상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레트로메이크 업 (50-60년대)	강인한 여성으로 표현	지적인 여성성강조	소녀이미지와 성숙한 여성의 이미지가 함께 나타남
	궁정메이크업	내추럴한 고급스러움으로 표현	여성성을 강조한 고급스러움	우아하면서 퇴폐적인 이미지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뱀프 메이크업	얼굴의 한 부위만을 강조하는 뱀프 메이크업	헤어를 포함 얼굴 전체에 요부적요소로 메이크업	단순화된 메이크업으로 모자나 악세사리를 사용하여 요부적표현
	캐포츠 메이크업	고전적인 소녀이미지	스포티함이 강조된 남성적 이미지	내추럴 스포티이미지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에스닉 메이크업	다양한 문화의 단편화된 특징이 혼합되어 과도한 표현으로 나타남	원시적인 페인팅과 문신의 사용	페인팅과 이물질 을 첨가하는 폴라쥬가 나타남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미래 메이크업	과거의 스타일에서 미래경향을 표현	일상적 표현에서 탈피하여 극단적인 기법	기존의 미래 이미지에 판타스틱요소 부여

## V.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 비교분석

다문화시대를 중심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유형과 양상은 5가지 유형으로 분리하였다.

패션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유형은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 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등 5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패션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유형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로 5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패션은 하이패션에서 중국 전통복, 일본 전통복, 한국 전통복과의 하이브리드로 표현되어 각 나라의 전통복의 특징인 직물 문양과 디테일, 실루엣 등이 21세기 패션 현상에서 나타났다.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패션은 스포츠와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캐주얼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패션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현상은 스포츠사와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으로 스포츠 의류의 패션화와 캐주얼과 스포츠의 혼합으로 하이패션에 강한 컬러 블로킹과 스포츠 스트라이프, 그래픽 효과로 하이패션에 스포츠 감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한 작업복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 패션은 작업복의 기능성을 살린 디테일을 도입하여 실용적인 유니폼 컨셉과 고 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가 나오고, 유니폼과 특수복의 영향으로 캐주얼 자켓의 디자인과 기능이 향상되고 있었다.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러시아풍, 모로코풍, 알프스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로 러시아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는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와 예술적 자원이 서구유럽에 식상한 고객에게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로 작용하여,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이브닝 드레스와 모피의 다양한 활용이 보여졌다. 모로코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는 하렘팬츠와 터번아이템이 다시유행하

고 아프리카의 토속성과 현대성이 혼합되어 로맨틱한 모로코 패션으로 나타났다. 알프스풍과 하이패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알프스 소녀의 이미지에 화려하고 이국적인 낭만이 첨가되어 소녀적 이미지만이 아닌 여성성이 강조된 섹시한 이미지가 포함된 패션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패션에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극소 나노 단위의 생산기술, 친환경 소재라는 4대 영역에 신기술을 결합한 미래 의류인 스마트 웨어로 나타났다. 스마트 웨어의 종류에는 컴퓨터 응용제품과 건강관리 및 스포츠 보조 스마트 의류로 나타났고 컴퓨터 응용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의 종류는 사우스 오스트리아(South Australia)대학의 'e-Suit', MIT의 'Puddle jumper'는 발광하는 레인코트, Joy Dress,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 Medallion이 있다.

건강관리 및 스포츠 보조 스마트 의류의 종류에는 VivoMetrics사의 Vest형 Life Shirt,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Philips사의 Intelligent Biomedical, Sensatex사의 유아돌연사 방지복, Philips사의 New Nomads 'Perfect Performance, Corpo Nove사의 'Motorbike Jacket', Burton Snowboards의 스노보드 자켓, Hugo Boss사의 'McLaren mechanics suits'가 있다.

20세기 말까지는 한 문화권 내지 문화계층에 중심을 두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이분법,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는 이분법, 고급예술의 시각에서 고급과 팝-아트로 나누는 이분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문화권과 문화계층의 패션경향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타났다.

메이크업의 전개도 패션과 같은 5유형으로 분류하여, 21세기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5유형의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알아보았다. 1)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통 메이크업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뱀프 메이크업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었다.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전통적 메이크업으로 일본의 가부키

와 중국의 경극 메이크업이 일반 메이크업과 혼합되어 과장된 표현으로 21세기 컬렉션에 나타났다.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레트로 메이크업과 궁정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어 50, 60년대 패션 아이콘인 유명인과 연예인의 모방 패션과 궁정의 향수로 나타났다. 레트로 메이크업의 특징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유명스타의 스타일이 현대 메이크업의 포인트 스타일로 작용하였다.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뱀프 메이크업과 캐포츠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어, 뱀프 메이크업은 완벽한 피부 표현과 눈화장으로 나타났고, 캐포츠 메이크업은 내추럴한 메이크업에 클래식한 고급스러움과 함께 기능성이 강화된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기존의 민속적인 에스닉에서 탈피하여 고급화된 이미지의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양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브론즈 컬러의 에스닉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은 미래 메이크업으로 웰빙의 영향으로 내추럴 투명 메이크업으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여 일상에서의 탈출을 경험하도록 하는 컬렉션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21세기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은 몇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니라,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곧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유형이 채택하는 양상은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로 인한 트렌드가 메이크업 트렌드와의 완전한 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이 인간의 외형미를 표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트렌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크업이 코디에서 패션의 부속, 보조적인 역할로 항상 패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현상을 통해 불협화음과 같을 수 있는 장르와 장르, 트렌드와 트렌드의 혼합과 병치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 해석의 코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라는 커다란 장르가 이미 많은 분야와 섞는 일을 시작한 이후에, 21세기의 다문화주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어울리지 않으며 조합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어울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 패션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나누어 동·서양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중국풍, 일본풍, 한국풍으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에서는 50년대 패션과 60년대 패션으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스포츠와 하이패션, 캐주얼과 하이패션, 작업복과 하이패션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러시아풍 에스닉, 모로코풍 에스닉, 알프스풍 에스닉으로 나누고,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스마트 웨어로 패션유형을 분류하여 21세기 패션쇼 이미지와 그 특징을 <표6>에 정리하였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양상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양상으로 나누어,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전통적인 메이크업으로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 경극 메이크업으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과 궁정 메이크업으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뱀프 메이크업과 캐포츠 메이크업으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메이크업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유형을 나누어 21세기 패션쇼 메이크업과 그 특징을 <표7>에 정리하였다.

패션과 메이크업의 각각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종합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양상은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줄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양상에서 현대 패션의 하이브리드 양상,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유형, 하이브리드 패션 유형, 디자이너,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계성, 패션사진과 메이크업 사진으로 분류하여 <표8>에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정리하였다.

<표6> 하이브리드 패션 현상

양상 \ 분류	패션 유형	21세기 패션쇼 이미지	특 징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중국풍	중국의 17-20세기의 청시대의 고유복장	용, 나비 연꽃 한자등의 화려한 중국문양 컬러모양, 상의 트인, 치마 양쪽단의 슬릿
	일본풍	기모노의 실루엣과 문양 원단	기모노 특유의 문양(벚꽃, 열매, 기하학적 무늬) 오비형태의 허리벨트 사용 오버사이즈 실루엣 일본 전통문양, 자수, 프린트, 염색
	한국풍	고구려 벽화의 긴 소매 한복	고구려벽화의 의복에서 문양과 형태, 색동등을 차용, 네크라인 ,슬리브스 탐, 문양, 복주머니 가방등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50년대 패션	라인패션, 다양한 실루엣의 시대 알파벳라인이 21세기 패션에 다시 접목	가는 허리라인과 완만한 어깨라인과 모래시계 실루엣 페플럼 라인이 높아짐. 물방울 무늬와 리본장식의 부활.
	60년대 패션	라인과 룩의 시대가 끝나고 헬라인의 다양한 변화	재키룩의 미래적 재현과 A라인 미니스커트. 셔링, 프릴, 레이어링, 페티코트, 그래픽 아트 패턴과 7부 8부의 소매길이가 21세기 패션으로 새롭게 부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와 하이패션	스포츠 기업과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콜라보레이션작업이 활발	유명디자이너의 로고가 아웃웨어에 노출되게하여 패션성을 부가. 반대로 유명 스포츠 로고를 하이패션 무대에 노출. 고급 트렌드의 소재를 스포츠웨어에 접목.
	캐주얼과 하이패션	캐주얼과 하이패션과 경계가 불분명. 웰빙의 영향으로 포멀웨어에도 활동성 부여.	비티지 풍의 안티 엘레강스 캐주얼의 대두. 캐주얼과 정장으로 공용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 등장.
	작업복과 하이패션	유니폼 컨셉으로 보호적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로 발전. 특수복, 작업복, 유니폼등의 디테일이 하이패션에 적용됨.	작업복의 디테일을 도입한 실용적인 유니폼 컨셉, 고기능성과 보호적인 특성이 강화된 아웃도어 웨어. 지퍼장식, 밴딩, 태입, 버클장식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러시아풍 에스닉	러시아의 풍부한 역사적 예술적 새로운 디자인의 모티브로 작용됨.	모피트리밍 사용, 러시아풍 문양과 보석사용, 타이트 부츠, 모자와 목도리의 다양한 사용.
	모로코풍 에스닉	토속적인 로맨틱 감성으로 표출	가벼운 느낌의 벨벳과 구슬 악세사리 쉬폰 팬츠로 나타나고 있다.
	알프스풍 에스닉	알프스 소녀의 이미지	A라인 스커트와 앞치마가 붙은 스커트 로맨틱 브라우스, 니트 웨터와 티롤리안 모자.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스마트 웨어	정보기술, 생명공학,극소 나노 단위의 생산기술,친환경소재라는 4대 영역의 신기술이 결합한 미래형 의류.	디지털 웨터, e-슈트, 아이들을 위한 위치추적기가 내장된 의복, 건강과 관련된 웰빙 의상등.

<표7>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양상

분류 양상	메이크업 유형	21세기 패션쇼 메이크업	특 징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전통적 메이크업	일본의 가부키와 중국경극의 화장	가부키나 경극의 무대화장은 일반 화장과 달리 과장되어 표현. 21세기 컬렉션에서는 경극과 가부키의 혼합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레트로 메이크업 · 궁정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그레이스 켈리, 오드리 헵번, 재클린 등의 메이크업 스타일이 재조명 궁정과 귀족스타일이 절제되면서도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으로 헤어스타일과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로 부각 황금색 컬러의 유행이 진행되면서 고대 화장의 골드메탈이 다시 유행트렌드로 부각.	20세기 패션코드가 21세기의 코드와 혼합되어 재구성 대표적인 유명스타의 포인트 스타일이 현대적 감각으로 혼합 고급스러운 장신구와 함께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귀족의 품위를 느낄 수 있는 보라와 황금색이 이용. 현대적인 이미지 메탈의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면서 눈 코 입의 부분화장도 충실하게 공을 들여 표현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백프 메이크업 ·케포츠 메이크업	하류층의 화장을 명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하이패션에서 차용하여 메이크업 트렌드로 자리잡음 완벽한 레트로로 시대성을 강조하지 않고 내추럴에 절제된 고전미 내추럴 특수메이크업	완벽한 피부표현과 눈화장이 번진 듯 하면서도 크게 과장되지 않게 스모키 아이로 표현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이지만 공들여 눈코입의 화장을 하고 클래식하고 지적인 이미지로 표현 캐포츠 패션에 어울리는 스포티함과 우아함이 함께 느껴지도록 가벼운 피부표현이지만 기능적인 자외선 차단은 완벽하게 처리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에스닉 메이크업	기존의 민속적인 에스닉에 고급화된 이미지가 포함된 에스닉. 동양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킬수 있는 브론즈컬러 에스닉.	기본페이스는 갈색이나 브론즈로 처리하고 헤어는 전혀 신경쓰지 않은듯한 이미지로 부분화장으로 강조(눈썹, 주근깨, 아이라인) 에스닉 메이크업에 글로시함 첨가.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미래 메이크업	웰빙의 영향으로 내추럴투명 메이크업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극단적인 표현 환상적인 이미지로 일상에서의 탈출을 시도한 컬렉션 메이크업	미래이미지로 피부투명,회색글로시사용 과장된 헤어, 단순화되고 극단적인 화장이 복고이미지와 혼합 메탈적이면서도 새로운 세대의 환타스틱한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강조. 다른 오브제의 사용으로 미래이미지와 극단적인 이미지 표현.

<표8>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양상

양상 분류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현대 패션의 하이브리드 양상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메이크업 유형	전통적 메이크업 (경극,가부키 메이크업)	레트로 메이크업	뱀프 메이크업 캐포츠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	미래 메이크업
하이브리드 패션 유형	전통복에서의 차용(중국,일본, 한국의전통복 과의 결합	가까운 과거와의 결합.(50.60년대 와의 결합)	이지웨어(캐주 얼,군복,작업복, 특수복)와 하이패션의 결합	(러시아,알프스, 모로코)이질적 인 나라와의 결합	프로그램의 치환과혼합으 로 새로운 의복의 개념 확립
디자이너	미유 미유 프라다,로베르 토 카발리, 앤드로 엔지, 발렌티노,에트 로	디키니.마크 자콥,루비통,지 춘희,안나수이, 샤넬,빌브라스, 발렌티노	미유미유,루비 통,구찌,보떼가 베네타,장폴 폴띠에,부디카, 스캇 앤드류	파코라반,발망, 크리스토퍼,디 엔지,알렉산더 맥퀸.안토니오 마레스,카스텔 마작,존갈리아 노	질샌더,웬디,발 렌시아가,존갈 리아노,크리스 찬디올, 아디다스,나이 키,마모트,비보 메트릭,보웬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계성	독립된 장르로 나타남	50-60년대의 패션아이콘이 동일하게 나타남	장르에 따라 혼합되고 병치됨	단편화된 정보가 이질적 결합으로 나타남	과학적 미래이미지와 혼합
패션사진					
메이크업 사진					

## VI. 결론 및 제언

### 1. 요약 및 결론

20세기까지의 주류문화는 서구문화였다. 비록 여러 민족, 문화권의 문화가 공존했지만, 주류와 비주류가 존재했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인 서구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의 내려졌다. 예컨대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의 시각으로 동양의 문화를 바라본 비교학적이고, 이데올기적 세계관이었다.

21세기에 들어서자 이러한 시각에 변화가 일어났다. 문화를 보는 패러다임이 전환되었고, 다양한 민족, 문화권, 계층, 형태의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하게 되었다. 주류라는 관점이 사라진 것이다. 변두리문화가 주류문화를 변방에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겼고, 모든 문화가 주류문화로서 위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곧 다문화주의라는 사조로 자리매김하였다.

다문화적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가 상대화되고 다원화됨으로 인하여 어떠한 단일의 가치도 지배적이거나 우월한 것이 되지 못하고 모든 가치들이 단편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와 문화의 단편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체의 상보다는 단편화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되어, 전체는 그 결과에 불과한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단편들이 동질적으로 혹은 이질적으로 조합되어 하나의 현상이 되어가고 있으며, 각기 다른 시대와 장소에 따른 수많은 경험들이 단편화되어 개개인의 기억 속에 각기 다른 영상으로 존재하고 표현되고 있다. 곧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조합, 병치, 중첩시킴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하고자하는 하이브리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당대의 사회적-문화적 현상은 패션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패션에서 다문화주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20세기말의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를 지나 한 가지 사조로는 경향을 설명할 수 없는 하이브리드 현상으로 설명되어진다. 곧 하이브리드 현상에 의한 혼합과 병치는 21세기 하이패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하이패션이 오랜 세월 누렸던 상류

의 개념을 하류개념의 작업복과도 혼합되고, 주류라고 자부하는 패션무대에서 비주류로 취급되던 모티브들이 주류로 취급되었다.

본 연구는 21세기의 정치, 사회, 문화, 예술의 경향을 살펴본 후, 다문화주의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채택하여 이미 연구가 이루어진 다른 분야의 하이브리드 현상을 살펴보고, 패션에서의 트렌드 분석을 통해 패션과 메이크업의 하이브리드 현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고찰과 생물학적 용어로 시작하여 이 시대 정치, 문화, 예술, 과학과 공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과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패션에서 전개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유형은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 등 5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20세기 말까지는 한 문화권 내지 문화계층에 중심을 두고 다른 영역을 비교하는 이분법,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서구와 비서구로 나누는 이분법, 고급예술의 시각에서 고급과 팝-아트로 나누는 이분법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21세기 들어서는 여러 문화권과 문화계층의 패션경향이 동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둘째, 메이크업의 전개도 패션과 같은 5유형으로 분류하여, 21세기 이후 컬렉션 중심의 5유형의 하이브리드 현상 안에서 살펴보았다. 1) 동양과 서양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통 메이크업 2)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레트로 메이크업 3)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뱀프 메이크업 4)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 5)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분류되었다.

21세기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현상은 몇몇 가지의 현상의 조합이 아니라, 동질적이면서 이질적인 것들과의 잡종과 같은 현상으로, 기존의 분류법으로 구분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현상, 곧 다문화주의와 하이브리드의 이론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이브리드 유형이 채택하는 양상은 절충적인 혼합을 기본으로 과거에 있어왔던 스타일이나 장르와의 혼합과 병치로 나타났다.

넷째, 패션에서의 하이브리드로 인한 트렌드가 메이크업 트렌드와의 완전한 일치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패션과 메이크업이 인간의 외형미를 표현하는 전체 틀 속에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독립된 트렌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메이크업이 코드에서 패션의 부속, 보조적인 역할로 항상 패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개양상을 전제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다문화주의적 하이브리드의 다섯 유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양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고전스타일의 응용되어 패션에서는 전통복에서의 차용 즉 중국, 일본, 한국의 전통복과의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에서는 전통적 메이크업 즉 중국의 경극,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 등과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거와 현재의 하이브리드는, 지난 시대의 패션 코드와 메이크업 코드가 같은 트렌드로 만난다. 즉 21세기에 복고 트렌드로 50-60년대에 유행한 패션과 메이크업의 기법과 아이콘이 현재의 패션코드와 결합하여 패션과 메이크업에서 레트로 패션 나타났다.

셋째, 상류와 하류의 하이브리드는 상호 텍스성을 통한 타 분야와의 결합으로, 융합하고 저항하며 하이브리드된다. 패션에서는 이지 웨어 즉 캐주얼, 군복, 작업복, 특수복 등과 하이패션의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에서는 뱀프 메이크업과 캐포츠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류와 비주류의 하이브리드는 구성적 요소와 형태적 요소들의 이질적 결합으로, 패션과 메이크업이 다른 코드와 만나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만드는 이질적 결합으로 나타난다. 패션에서는 이질적인 문화권의 결합으로 나타났으며, 메이크업에서는 에스닉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재와 미래의 하이브리드는, 패션에서는 과학적 기술과의 혼합으로

새로운 의복의 개념이 성립되고 있고, 메이크업에서는 미래 메이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션과 메이크업의 유형 비교를 통하여 패션에서의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패션 트렌드 만큼이나 메이크업의 트렌드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패션 트렌드에 어울릴 정도의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메이크업이 이제는 패션 트렌드와 상이한 트렌드로 적극적인 장르로도 발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현상을 통해 불협화음과 같을 수 있는 장르와 장르, 트렌드와 트렌드의 혼합과 병치가 이 시대의 새로운 패션 해석의 코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패션이라는 커다란 장르가 이미 많은 분야와 혼합된 이후에, 21세기의 다문화주의에서의 하이브리드 현상은 어울리지 않으며 조합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어울림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하이브리드란 다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등장한 과학과 문화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21세기 들어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도 트렌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는 아직 시도의 차원으로, 이러한 시도들을 체계적으로 정립, 전개될 수 있도록 이론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과거 오리엔탈리즘으로 대표되는 동·서문화의 만남이 이(異)문화간의 대표적인 결합이었다면, 21세기 다문화시대에는 오리엔탈 외에도 전 세계 소수 민족의 독특한 문화까지 범주에 넣고 있다. 따라서 패션과 메이크업에서의 하이브리드 전개를 위해서는 오리엔탈 외에도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여러 민족의 전통의상 및 메이크업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셋째, 향후 패션 및 메이크업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하이브리드 패션은 다양한 변화 유형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유형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앞으로 섬유공학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소재가 개발될 것이다. 새로운 소재의 기능성은 새로운 하이브리드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전통적인 복식문화의 연구 이외에도, 첨단 섬유공학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그것을 실용화되고 패션화 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이브리드는 다문화시대의 복잡한 패션의 트렌드를 해석할 수 있는 코드로, 21세기 다문화시대의 패션과 메이크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후속 연구로 패션과 메이크업만이 아닌 헤어가 포함된 패션 코디네이션의 영역으로 확장된 하이브리드 현상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 문헌

<단행본>

- 권택영, 윤도근(1991). *포스트모더니즘과 문화*. 문예출판사.
- 금기숙, 김민자, 김영인, 김윤희, 박명희, 박민여, 배천범, 신혜순, 유혜영  
최해주 (2002). *현대패션 100년*. 교문사.
- 김민수(1994). *모던디자인 비평*. 안그라픽스.
- 김옥동(1998). *전환기의 비평논리: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  
식민주의, 다문화주의*. 현암사.
- 김춘득(2002). *동서양 미용문화사*. 현문사.
- 김학현(1997). *가부키*. 서울: 열화당.
- 김형진(2003). *문화예술의 퓨전적 해석*. 한솜미디어.
- 김희숙, 이연희, 이화진(2002). *뷰티& 스페셜 메이크업*. 신정출판사.
- 김희숙(2000).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 라사라(1991). *20세기 모드의 역사*. 라사라.
- 박길성(1996). *세계화: 자본과 문화의 발전과제, 사회비평사*.
- 박명진(1993). *청소년과 새로운 미디어문화-포스트모던의 관점*. 현실문화연구.
- 송철규(2004). *경극*. 살림출판사.
- 서연호(2004). *동아시아의 공연예술*. 살림출판사.
- 양희석(1994). *중국 희곡*. 민음사.
- 염승호(1995). *하이브리드*. 홍익출판사.
- 이경희(2001). *20세기의 모드*. 교학연구사.
- 이순홍, 이경순, 조선희, 최경희, 권현주, 김옥경, 손희정, 김경희, 김희정  
(2002). *세계복식과 패션정보*, 교문사.
- 이정호(1998). *포스트모던 문화 읽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종성(1994). *Review*. 문예마당, 제1호.
- 정시화(1991). *산업디자인 150년*. 미진사.

정흥숙(2002).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한국철학회 편(2003). 다원주의, 축복인가 재앙인가. 철학과 현실사.  
 함재봉(1998), 미국의 탈 근대주의, 미국학연구소, 미국학 총서 I. 서울: 서울대  
 학교 출판부.  
 허 준(1992). 크리스찬 디오르. 서울: 명진사.  
 홍성욱(1998). 잡종, 새로운 문화읽기. 창작과 비평사.  
 홍성욱(2003). 하이브리드 세상 읽기. 안그라픽스.  
 뷰티& 헬스 연구회(2001). 미 100년사. 현문사.

<외국문헌>

泰早穂子(1974), スクリ-ンモ-ドと女優たち, 東京 : 文化出版局.  
 春山行夫(1976), おしいゆわの文化史, 平凡社.  
 廣田康生(2001). 多文化主義と多文化教育. 東京 : 明石書店.  
 日本記號學會(1996). 多文化主義の記號論. 東海大學出版會.  
 木村雄之助(1979). 化粧. 東京 : 日本文化與隆會.  
 王元富(1974), 國劇藝術論, 北京: 明文化事業有限公事.  
  
 Aucoin, Kevyn(1996). *The Art of Makeup*. New York : Callaway Editions.  
 \_\_\_\_\_(1997). *Making Faces*.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_\_\_\_\_(2000). *Face Forward*. Boston : Little, Brown and Company.  
 Bamford, Laura(1998). *Key moments in Fashion*. London : Hamlyn.  
 Barber, B.R.(1993). Global Multicultural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 *Ethnic and  
 Policy Journal*, Vol.10  
 Barnard, Malcolm(1998), *Art, design, and visual culture: an introduction*, N.Y: st  
 Martin's Press.  
 Bertin, J.(1986). *Le Grand Livre de L'histoire du Monde*. Paris: France Loisirs.  
 Boucher, F.(1987). *A History of Costume in the West*. New York: Thames and  
 Hudson Ltd,

- Buxbaum, G.(ed.)(1999). *Icons of Fashion, The 20th Century*. New York : Prestel.
- Charles Jencks & Nothan Silver(1972), *Adbocism*, New York : Doubleday & Company, Inc.
- Cordwell, J. M.(1985). Ancient Beginnings and Modern Diversity of the Use of Cosmetics. in *The Psychology of Cosmetic Treatme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 Konemann.
- Cosgrave, Bronwyn(2000). *Vogue beauty*. London : Carlton.
- Craik, J.(1994). *The Face of Fashion*. New York : Routledge.
- David, Bond(1992). *History of fashion*, New York : Universe Publish.
- Egyptian Art(2001). *The Metropolitan Museum Art*.
- Filor, Anna May(1992). *Multiculturalism*. New York : New York State Council of Educational Associations.
- Harvey(1996). *Hybrids of modernity : anthropology, the nation state and the universal exhibition*. New York : Routledge.
- Lehnert, Gertrud(2000). *A History of Fashion in the 20th Century*. Cologne: Konemann.
- Mendes, V. & De La Haye, A.(1999). *20th Century Fashion*. London : Thames & Hudson.
- Nars, François(2001). *Makeup your Mind*. Nars Cosmetics, Inc.
- Pankratz, David B.(1992). *Multiculturalism and the Arts*. Ohio : The ohio state university.
- \_\_\_\_\_ (1993). *Multiculturalism and public arts policy*. Connecticut : Bergin & Garvey.
- Penelope, H.(1996). *Hybrids of Modernity, Anthropology, the nation state the universal Exhibition*. New York : Routledge.
- Quant, Mary(1998). *Classic Make-Up & Beauty*. London : Dorling Kindersley.
- Schlesinger, Jr.A.M.(1991),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flations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hittle Book.
- Seeling, Charlotte(2000).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Cologne:

Storey, John(1996). Cultural Studies and the study of popular cultural: theories and methods,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Fredric Jameson(1994). 윤희병 외(역), 반 미학: 포스트모던 문화론. 현대미학사.

John A. Walker, 정진국 역(1990). 대중매체시대의 예술. 열화당.

R.Ventury, 임창복 역(1990).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기문당.

John Story, 박모 역(1994).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현실문화연구.

David Harvy, 구동희 역(1994). 포스트모더니티의 조건. 한울

Calinescu, M., 이영욱外 역(1998). 모더니티의 다섯얼굴. 시각과 언어.

Connor, S., 김성곤,정정호 역(1997). 포스트모던 문화. 한신문화사.

D.Kellner, 김수정, 정종희 역(1997), 미디어문화, 서울: 새물결.

Lipovestsky, G., 이득재 역(1987). 패션의 제국. 문예출판사.

Martiniello, Marco.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한울.

Dominique Paquet. 지현 역(1999).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Jennifer Craik. 정인희 · 함연자 · 정수진 · 김경원 역(2002). 패션의 얼굴. 푸른솔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이화연 · 민동원 · 손미영(1988). 의복: 제2의 피부. 까치

Beatrice Fontanel. 김보현(2004). 치장의 역사. 김영사.

David Bond. 정현숙역(1992). 20세기 패션.

D.Kellner. 김수정, 정종희 역(1997). 미디어문화. 새물결.

Richard Appignanesi(1995). 이소영 역,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이두.

프랑수아 지콥, 이정우 역(1994). 생명의 논리 유전의 역사. 서울 : 민음사.

도미니크 파케(1999). 지현 역, 화장술의 역사, 시공사.

벨러리 멘테스. 에이미 드 라 헤이, 김정은역(2003). 20세기 패션. 시공사.

히데오 아오키. 유태순 · 조기여 · 이화순 역(2004). 서양화장 문화사. 동서교역.

하루야마 유키오. 임희선 역(2004). 화장의 역사. 사람과 책.

<논문>

김원갑(1991). 현대건축디자인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정환(1996). 현대건축의 하이브리드적 표현양상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Vol.27, No.3. pp.29-53.

권기영(1995). 현대 복식 디자인에 나타난 Asian ethnic fashion.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권유진(1998). 오리엔탈리즘의 패션체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I). 복식. 36, pp.103-119.

김민자(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 (II). 복식. 38, pp.369-392.

김민정(1998). 20세기말 패션에 나타난 Crossover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희(2002). 에스닉스타일을 응용한 아트 메이크업 작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예술평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경(2003). 이국취향의 요인과 현대패션에 나타난 이국취향. 복식문화연구, Vol.11 No.3. pp.387-403.

김육동(1998).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한국아메리카협회, Vol.30, No.1. pp.24-49.

김윤경(2000). 퓨전디자인의 속성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후란·은영자(2003). 패션에 나타난 퓨전 이미지에 관한연구. 복식문화연구.11권 2호. pp.293-319.

김혜숙(2003). 현대 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 분석. 한성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균(2000). 현대 복식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나현신(2001). 복식의 역사적 절충주의 양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현기(2000). 현대 건축에 내재된 예술적 퓨전(fusion) 경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류호창(2002.2). "新문화코드, 퓨전." Design. pp.124-127.
- 명 일(2003). 디지털건축에 있어 하이브리드 성향을 나타낸 Greg Lynn과 Marcos Novak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연구.
- 박상오(2002). 오리엔탈리즘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경(2001). 20세기 테크놀로지 패션 이미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달(1999). 보드리야르: 탈현대의 문화이론, 한국프랑스학 논집, no.26, pp.813-833.
- 성향숙(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진(1992).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재룡(2002). 현대 패션에 반영된 퓨전(Fusion)이미지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학미(1999).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패션에 나타난 혼성모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희영 · 양숙희(2000). 20세기 후반 패션에 나타난 절충주의적 경향. 한국의류학회지, Vol.24 No.4. pp.538-548.
- 오승혜(2000). 20세기 후반 복식디자인에 영향을 미친 Fusion현상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령·이경희(2004). Japanism 디자인의 소비자 감성 연구. 복식, Vol.54, No.3 pp.73-85.
- 원선아(2000.6). 퓨전 커뮤니케이션 열풍! 크로스믹스로 승부한다. 패션비즈. pp.82-85.
- 유정석(2003). 세계화 시대의 다문화주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2001).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퓨전스타일에 대한 디자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선(2001).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적 정체성. 사회와 철학. No.1. pp.139-168.
- 이운성(1998). 탈식민주의와 다문화주의 그리고 불협화음. 안과 밖. No.4. pp.365-378.
- 이주현(1998). 현대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춘희(1999). 현대복식에 반영된 동양적 이미지의 기호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주·김계연(2002). 생활환경에 나타난 퓨전문화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vol.15, pp.165-177.

<인터넷>

<http://marmot.blogs.com/korea/2004/05/ohmymarmot.html>

<http://www.giikorea.co.kr/korean/new>

<http://www.fila.co.kr/Frame>

<http://www.samsungdesign.net/Total/Search>

<http://www.esteelauder.com/whats-new/nutritious,code:A01>

<http://www.vogue.co.kr/fashionshow/runway>

<http://www.sanmart.co.kr/shop/shopdetail.html?brandcode>

[http://ktnews.com/login/join\\_info.asp](http://ktnews.com/login/join_info.asp)

[http://www.anasports.co.kr/mall/mall\\_view.asp?gobak=mal](http://www.anasports.co.kr/mall/mall_view.asp?gobak=mal)

<http://www.outlast.com>

<http://www.polartec.com>

<http://www.sbclub.co.kr/info/wondan2.html>

<http://www.schoeller.co.kr>

<http://www.seacell.com>

<http://211.234.105.89/pages/data/1856/D2855586.html>

<http://www.sensortex.com>

<http://www.textopia.co.kr>

<http://www.wgsn.com>

<http://www.wips.co.kr> : US 특허검색

<http://www.xybernaut.com>

[http://www.fck.or.kr/di/common/di\\_co.asp?gotopage=%202&](http://www.fck.or.kr/di/common/di_co.asp?gotopage=%202&)

[http://www.textopia.or.kr/textopia/intro\\_eng.jsp](http://www.textopia.or.kr/textopia/intro_eng.jsp)

# ABSTRACT

## A Study on Expression of Hybrid Fashion and Make-up in Multiculturalism in Fashion

Kim, Gyung Ran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Hybrid is the coordination of a different items and the ideas of opposite elements from other themes and art. The hybrid at the end of 20th of fashion and make-up is concerned with a repulsion of Eclecticism and Post-modernism.

The hybrid can be defined in many variables, such as area, nation, genre, age, space and other idea. In multiculturalism fashion reflects the spirit of 21th century society and culture, and performs various fun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how hybrid fashion and make-up responses to multiculturalism condition and how expression of hybrid.

Today, every culture has taken on the compromise form by means of the cultural difference, variety, and pluralis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ization and the advance. In accordance with this current of the times, this study observed the hybrid found in the multiculturalism of the 21th century.

The fashion and make-up trend of hybrid expression are oriental and western of hybrid ,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The expression of hybrid in multiculturalism of contemporary fashion and make-up combination of difference.

Second, the society development and a generalized knowledge of multiculturalism and hybrid and history of make-up.

Third, characteristic of fashion about multiculturalism and characteristic of fashion about hybrid classify a divide into five according to fashion trend.

Oriental and western of hybrid ,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 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Fourth, characteristic of make-up about multiculturalism and characteristic of make-up about hybrid classify a divide into five according to fashion trend.

Oriental and western of hybri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 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take measures too.

As a result make-up trend of hybrid traditional make up, retro make up, court make up, metal make-up,

vemp make-up, neo-classic make up, caports make-up, ethnic make-up, bronze ethnic make up, future nature make-up, future extreme make-up, fantasitic extreme make-up.

Fifth, hybrid phenomenon of multiculturalism fashion and make-up make an analysis compare the two, fashion with to make-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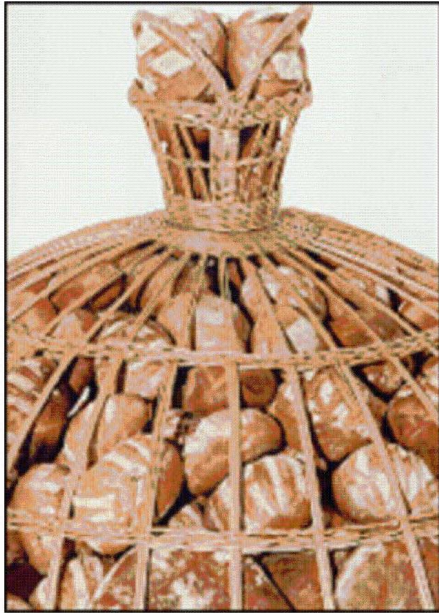
The hybrid trends that appeared before and after modernism as past and present hybrid trends that appeared before and after modernism as past and present hybrid trends each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era. Hybrid trends that appeared in the past can be classified into that of a compromising hybrid of pattern; a hybridization of the western of hybri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the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 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Fashion and make-up an as pet look unusual equal hybrid about application of an old style, accidental association of genre, reciprocal text to filed to different filed analogical inference, disparate combination of form, transposition and admixture of programme.

Hybrid in fashion and make-up, means the practice of selecting techniques or styles from a variety of sources, rather than adhere to one system.

Lastly, approaching methods to the hybrid which is based on the above are as follows; each elements of the above would be the source for of the oriental and the western of hybrid, the past and the present of hybrid, high society and the lower classes of hybrid, the main current and non main streamers of hybrid,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hyb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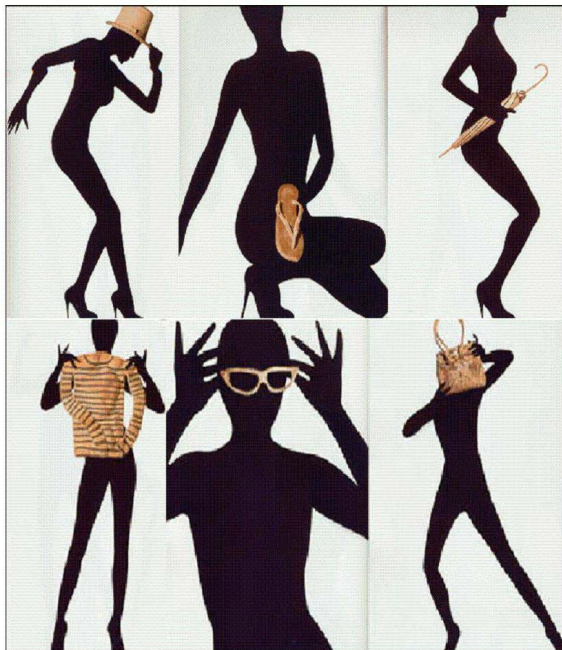
# 도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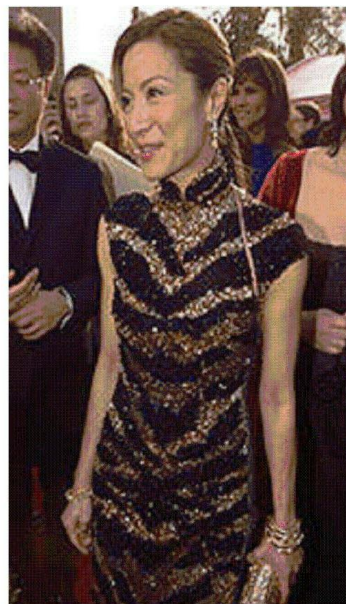
<그림4> 장 폴 고티에  
출처:<http://www.samsungdesign>



<그림5>장 폴 고티에



<그림6> 장 폴 고티에의 빵을 소재로 한 전시  
(프랑스 파리, 장소:Fondation Cartier, 2004,6,6-2004,10,9)



<그림7> MICHELLE YEOH Barney Cheng.  
The 73rd Annual Academy Awards



일본의 벚꽃

가부키

예술품

도자기

섬세한 자수



중국의 건축

중산복

경극

도자기

화려한 용문 자수



한국의 한옥 격자문

한복을 입은 노부부

신윤복의 미인도

고려청자

단학홍배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8>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문화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Vivienne Tam      Vivienne Tam      Vivienne Tam      Vivienne Tam  
 <그림9> 상의의 트임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중국 전통복 디테일      Ungaro      Ungaro      Ungaro      Gianfranco Fer  
 <그림 10->2002 F/W Collection



Blugirl      Blugirl      Blugirl      Blumarine  
 <그림 11> 2003 S/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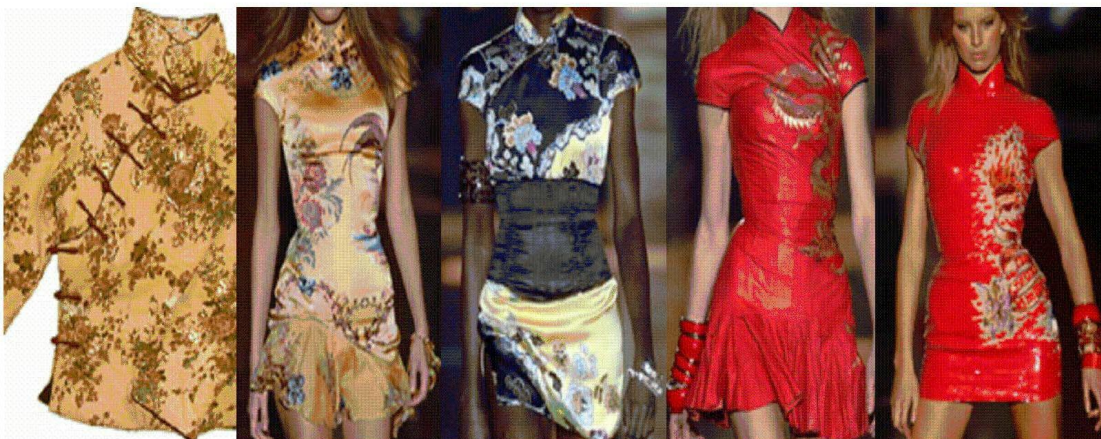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Miu Miu                      Miu Miu                      Miu Miu                      Miu Miu  
 <그림12> 치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Miu Miu                      Prada                      Rovertto Cavalli                      Rovertto  
 <그림13> 치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Rovertto Cavalli                      Rovertto Cavalli                      Rovertto Cavalli                      Rovertto Cavalli  
 <그림14> 화려한 칼라문양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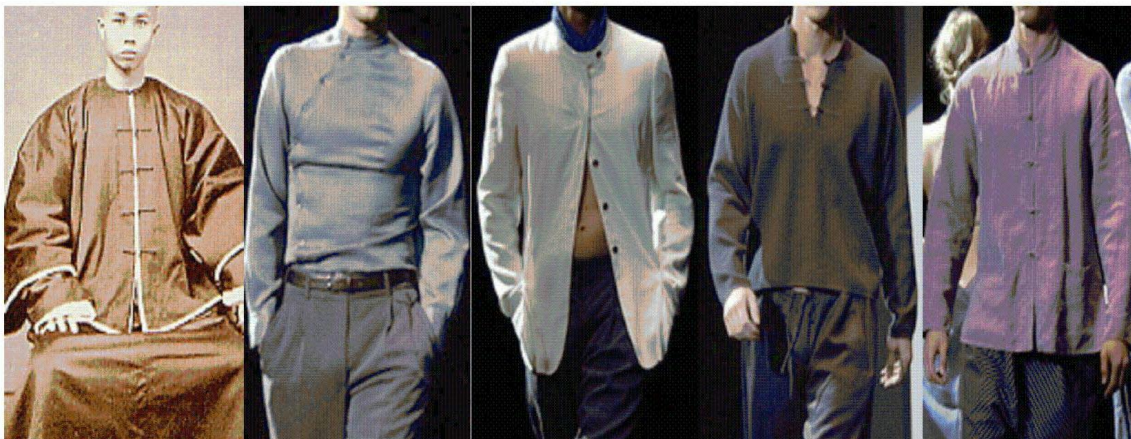
Andrew GN      Andrew GN      Andrew GN      Andrew GN

<그림15> 중국의 화려한 수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Giorgio Armani      Giorgio Armani      Prada      Prada

<그림16> 중국 서민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Giorgio Armani      Giorgio Armani      Giorgio Armani      Giorgio Armani

<그림17> 창파오를 이용한 디자인 2003 S/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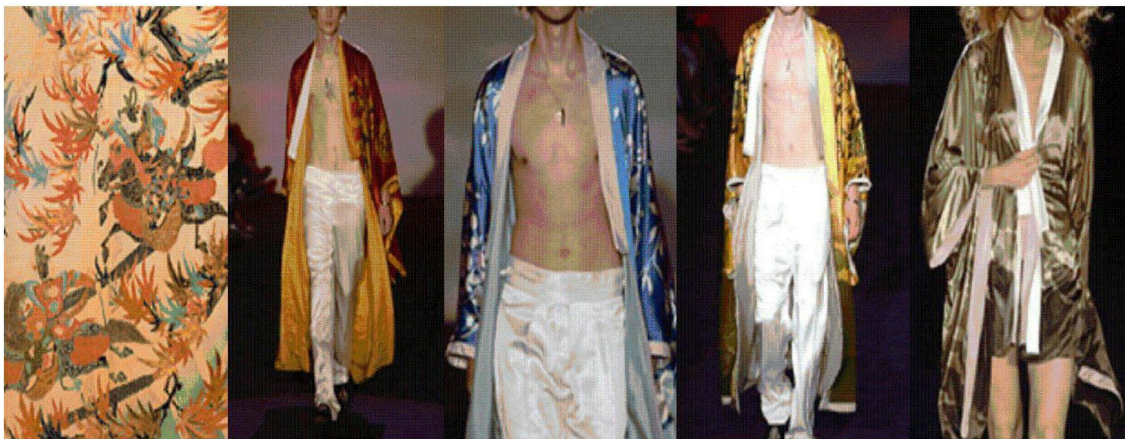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Gucci Narciso Rodriguez Bally Lanvin  
 <그림18> 오비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John Galliano Bally Gucci Bill Blass  
 <그림19> 오비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Gucci Gucci Gucci Gucci  
 <그림20> 2003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Gianfranco Ferre      Miu Miu      Miu Miu      Blumarine  
 <그림21>      2003 S/S Collection



John Galliano      John Galliano      Balmain      John Galliano  
 <그림22>      2003 S/S Collection



Gucci      Miu Miu      Balmain      Balmain  
 <그림23>      2003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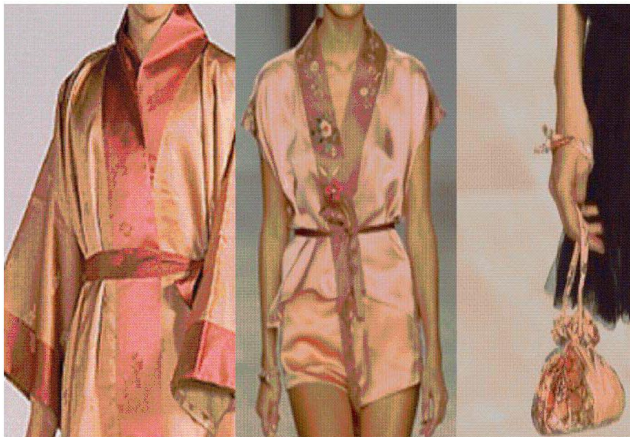
<그림24> 보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John Galliano



<그림25> 나전칠기를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Genny



AntonioMarras      AntonioMarras      Kenzo      Kenzo  
<그림26> 고구려복을 이용한 디자인 2002 F/W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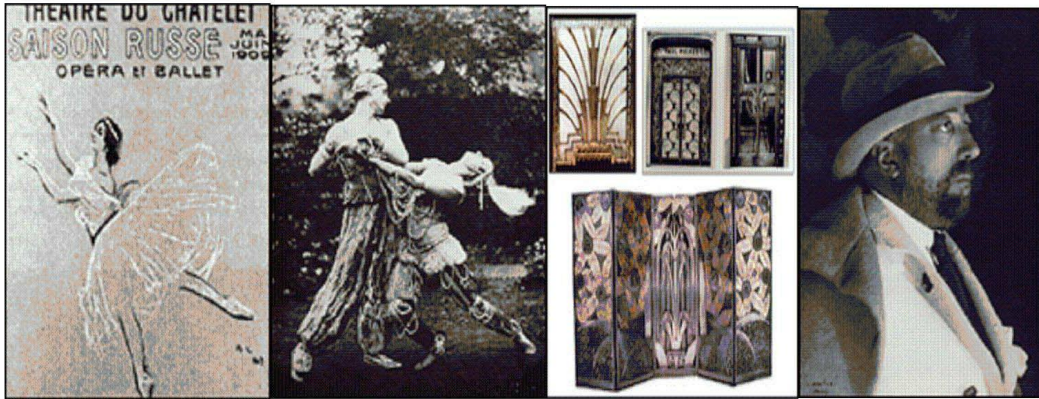
Blumarine  
<그림27> 고구려복과 복주머니를 이용한 디자인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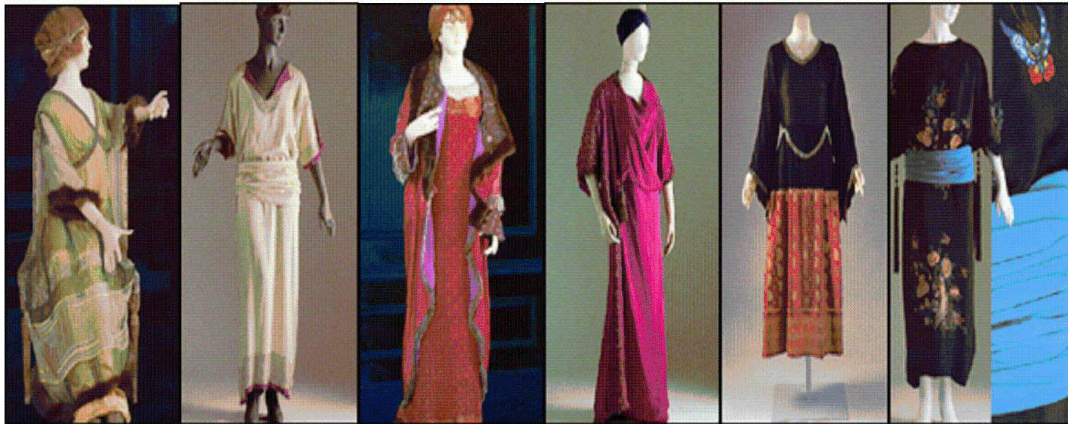
Giorgio Armani  
<그림28> 장삼 느낌의 남성복



<그림29>이국취향에 영향을 준 비잔틴의 달마티카



<그림30> 러시아발레단 공연포스터, 의상, 아르데코 양식, 폴 푸아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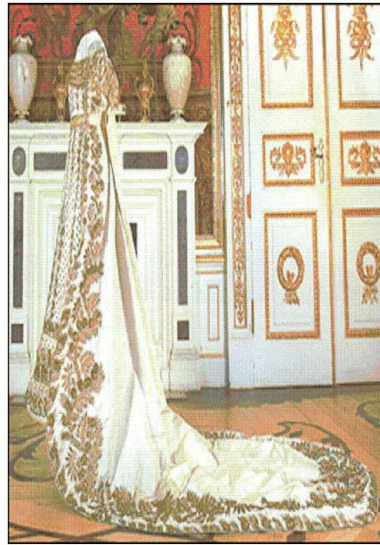
1908년      1911년      1912년      1913년      1921년      1922년

<그림31> 폴 포와레의 이국 취향 의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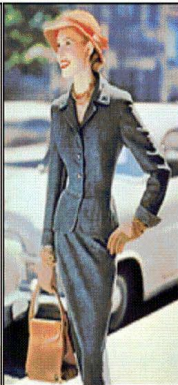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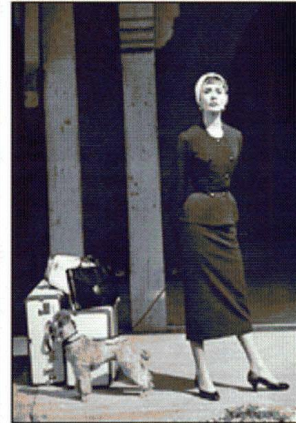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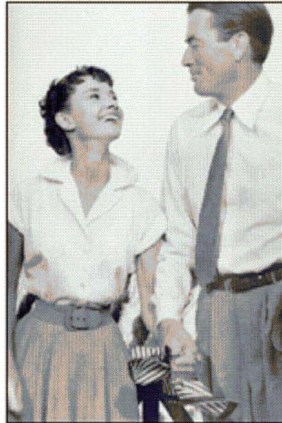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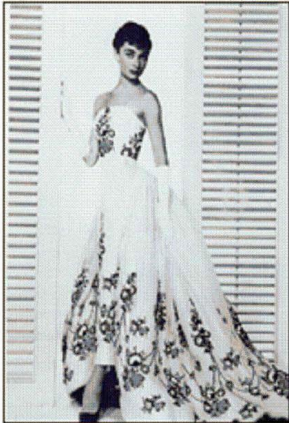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32>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누이 크세니아 알렉산드로브나 대공후의 예복. 벨벳,비단, 1894년



<그림33> 황제 파벨 1세의 아내인 마리아 표도로브나의 예복. 견,레이스,파문견포, 금자수 1810~18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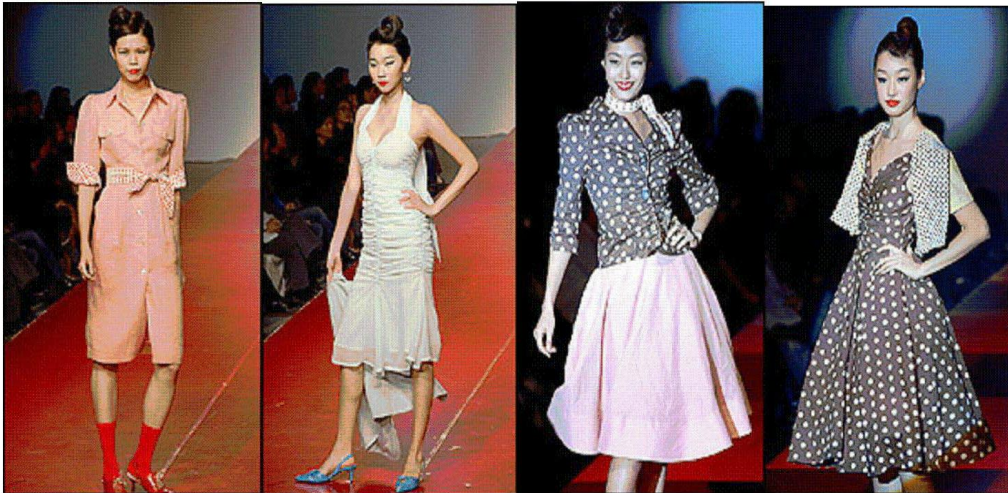


<그림34> 50년대 패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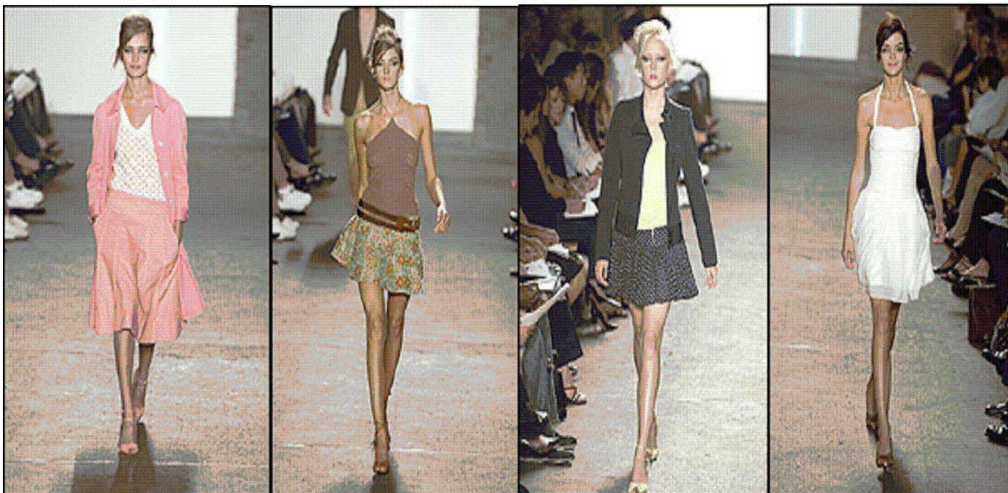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35> Marc Jacobs 2003 S/S Collection



<그림36> 지춘희 2003 S/S Collection



<그림37> DKNY 2003 S/S Col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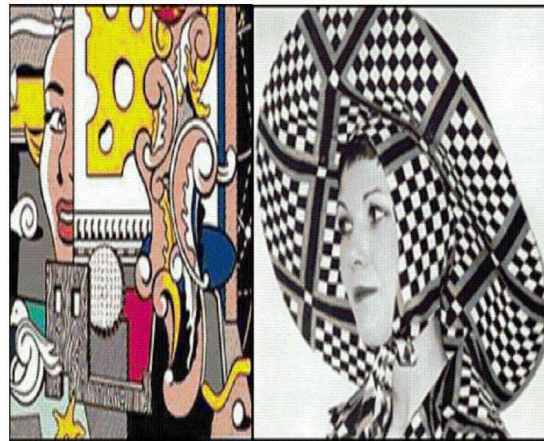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38> Louis Vuitton 2003 S/S Collection



<그림39> 60년대의 재키룩



<그림40> 60년대의 팝아트와 옵아트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Chanel

Chanel

Marc Jacobs

Marc Jacobs

<그림 41> 2003 S/S Collection



Anna Sui

Clements Ribeiro

Louis Vuitton

Marc Jacobs

<그림 42> 2003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43> 스포츠와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2003-2004 F/W



<그림 44> 스포츠, 캐주얼과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2003-2004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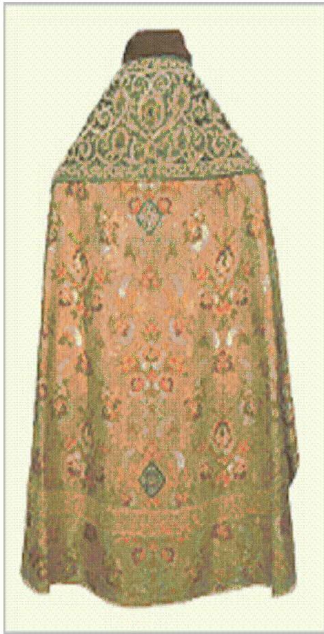


<그림 45> 스포츠, 특수복, 하이패션과의 하이브리드 2003-2004 F/W



<그림 46> 아디다스를 위한 요지야마모토 작품. 2003-2004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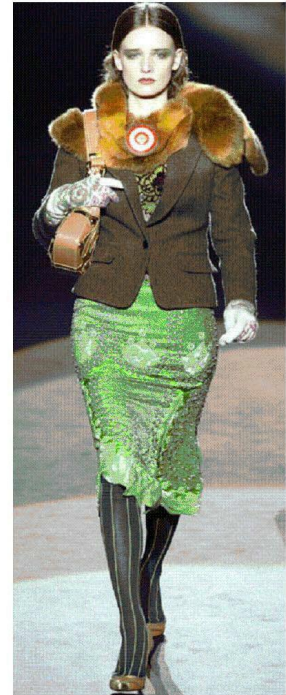
출처: 동아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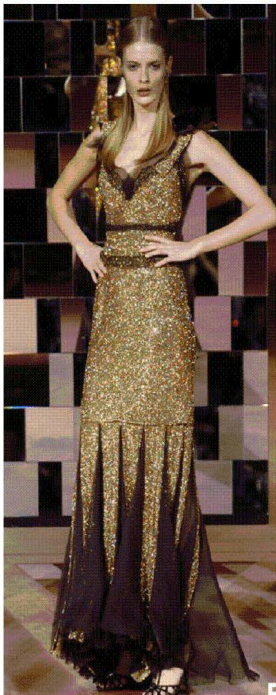
<그림 47>  
사채복-양단,새틴천,견,면,벨벳,진주  
보석,금속,금사,자수,직조  
17세기말-18세기초



<그림 48>  
블루마린 2004/2005F/W  
밀라노 컬렉션



<그림 49>  
에트로 2004/2005F/W  
밀라노 컬렉션



<그림 50>돌체앤가바나  
2004/2005F/W 밀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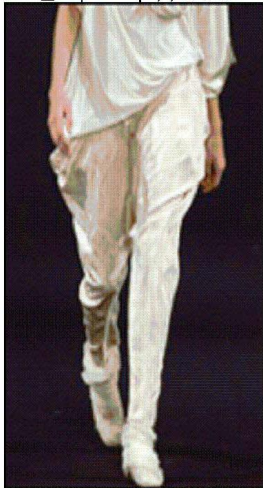


<그림 51>로베르토 카발리  
2004/2005F/W 밀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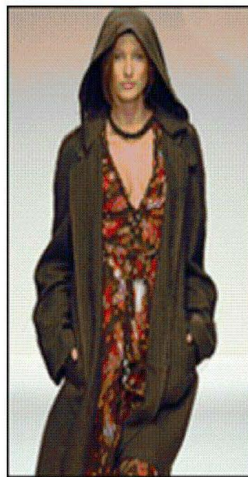


<그림 52>프라다  
2004/2005F/W 밀라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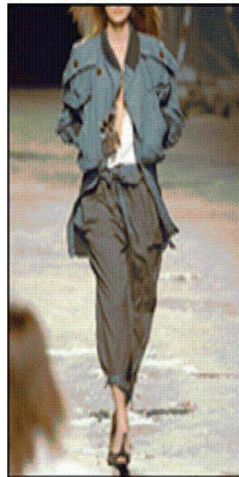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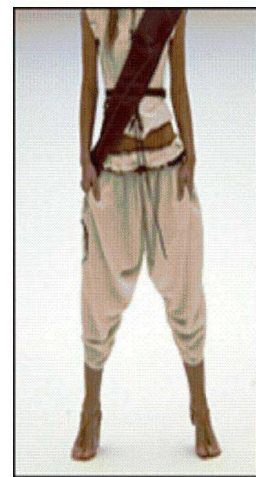
<그림 53>  
Antonio Marras  
2003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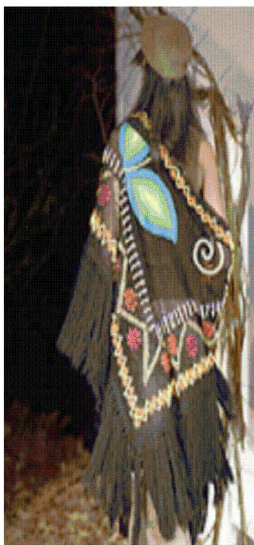
<그림 54>  
D & G  
2003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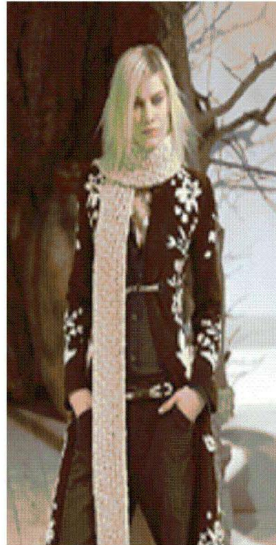
<그림 55>  
Vivien Westwood  
2003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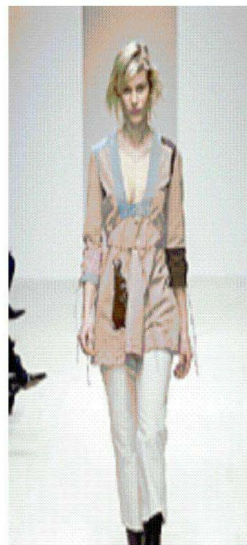
<그림 56>  
Alexander Mcqueen  
2003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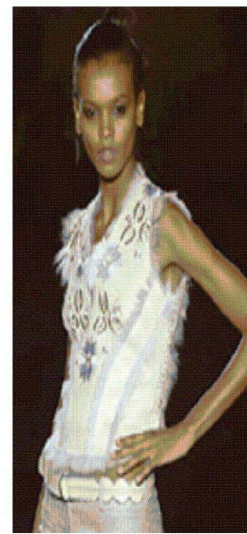
<그림 57>  
D&G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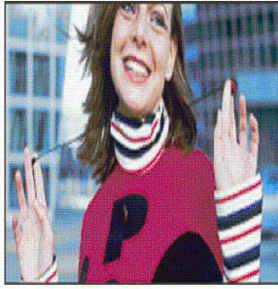
<그림 58>  
Dolce & Gabanna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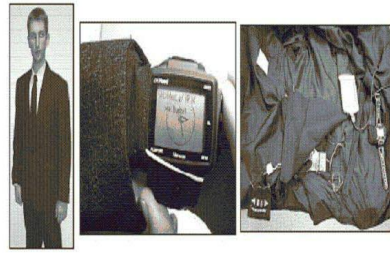
<그림 59>  
Marni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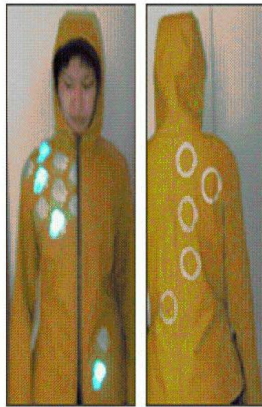
<그림 60>  
Antoni Beradi  
2002 F/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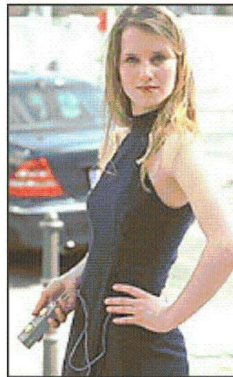
<그림 61> 디지털 스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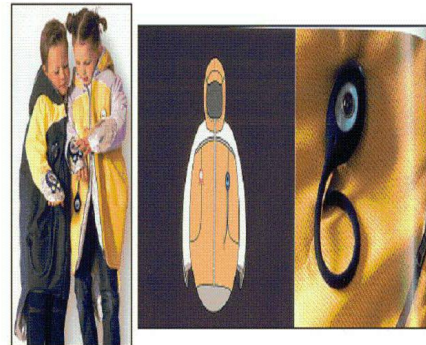
<그림 62> South Australia 대학의 'e-Suit



<그림 63> MIT의  
'Puddle jum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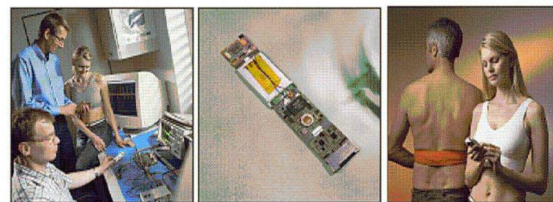
<그림 64>  
Alexandra Fede의 'Joy Dress



<그림 65>  
위치추적기 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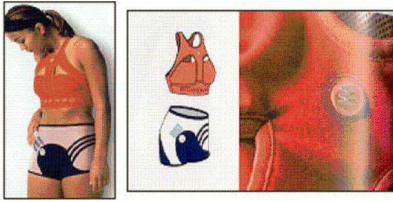


<그림 66> Nokia사의 'Medallio  
clothing



<그림 67> Philips사의 Intelligent Biomed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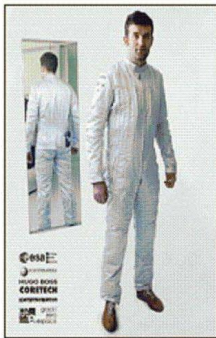
출처:<http://www.ktnews.com>



<그림 68> Philips사의  
New Nomads 'Perfect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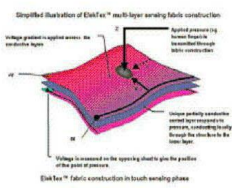
<그림 69> Corpo Nove사의 'Motorbike Ja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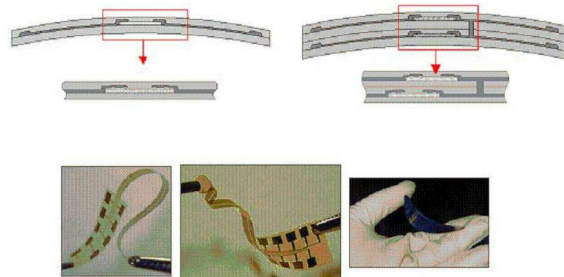
<그림 70> Burton Snowboards의 '스노보드 재킷'



<그림 71> Hugo Boss사의  
'McLaren mechanics sui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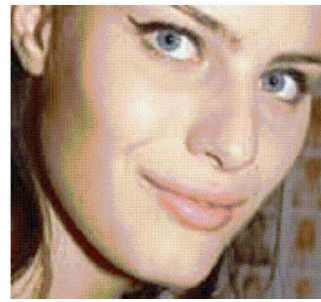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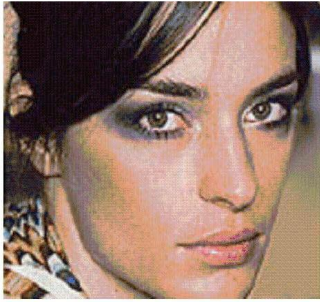


<그림 72> 전기전도성 신섬유 소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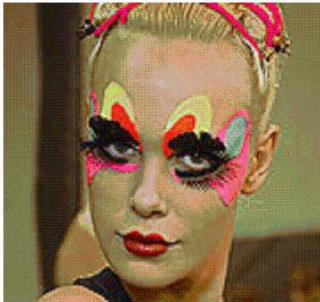


<그림 73> 유연성 칩 패키지의 내부 구조  
와 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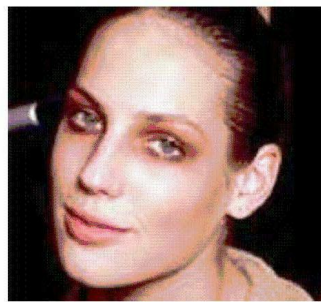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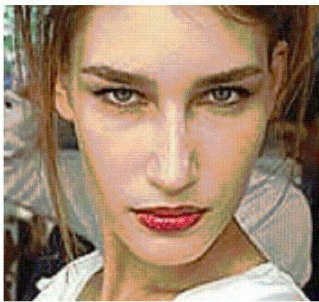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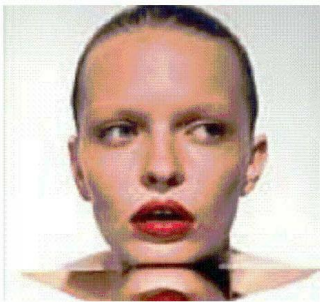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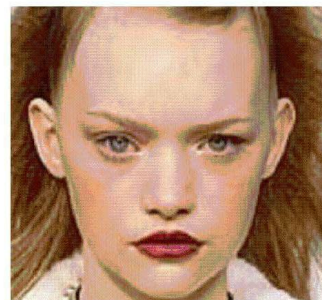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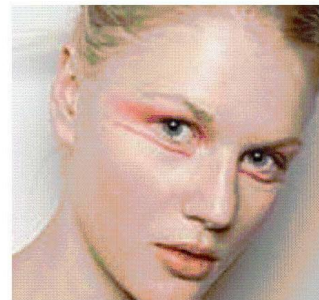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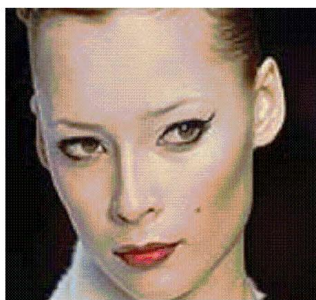
2002 S/S



2003-2004 F/W



2004 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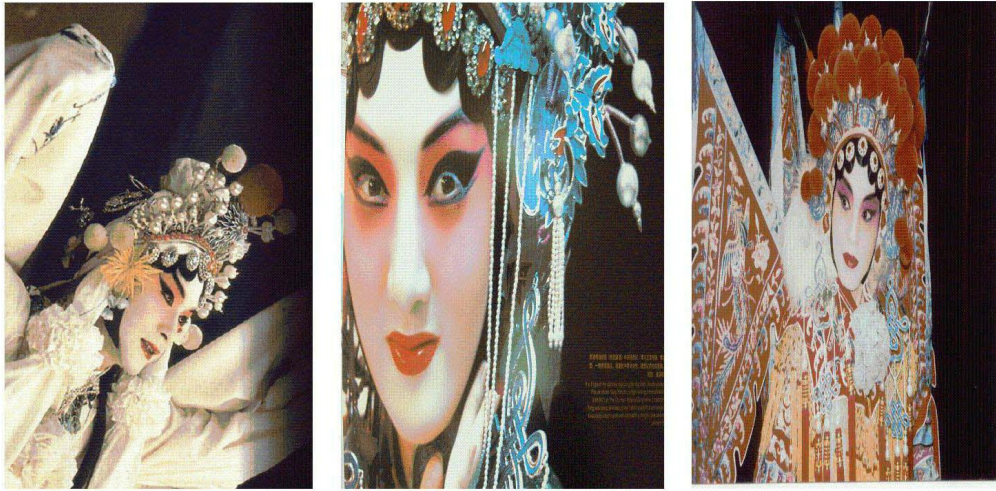


2004-2005 F/W

<그림 74> 2002-2005 패션쇼 메이크업 이미지

자료출처: <http://www.style.com>.보그 트렌드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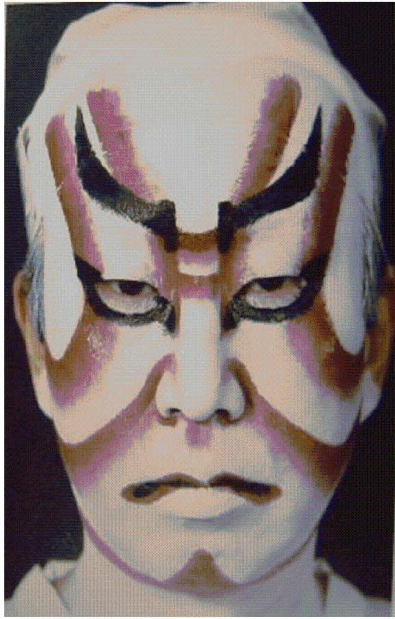


<그림 75> 경극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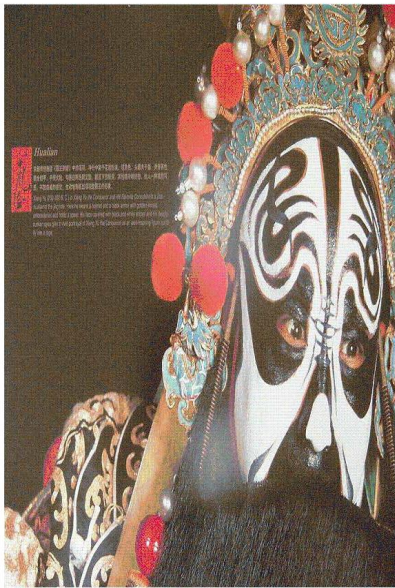


<그림 76> 일본 가부키 화장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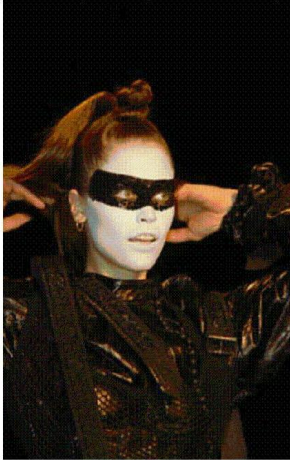


<그림 77> 가부키 무사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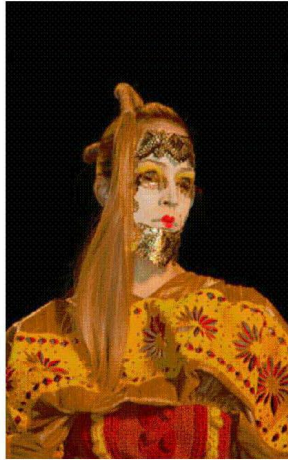


<그림 78> 경극 검보 화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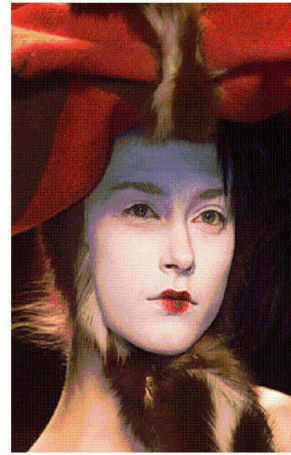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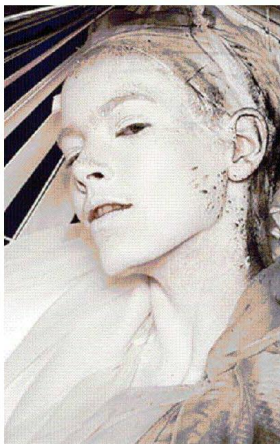
<그림 79> 2002 S/S CTR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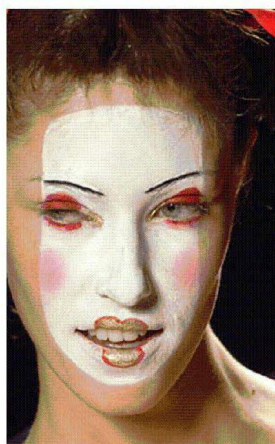
<그림 80> 2002 S/S CTR  
크리스찬 디올



<그림 81> 2002 F/W  
존 갈리아노



<그림 82> 2003 S/S  
존 갈리아노



<그림 83> 2003 S/S  
크리스찬 디올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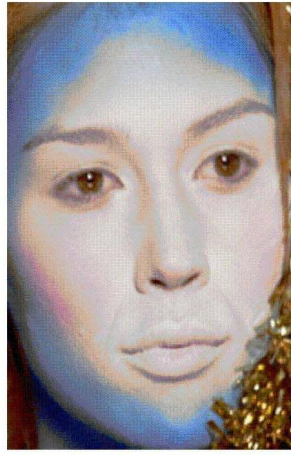


<그림 84> 2003 S/S  
크리스찬 디올 CTR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5> 2003 S/S  
크리스찬 디올CTR



<그림 86> 2003 S/S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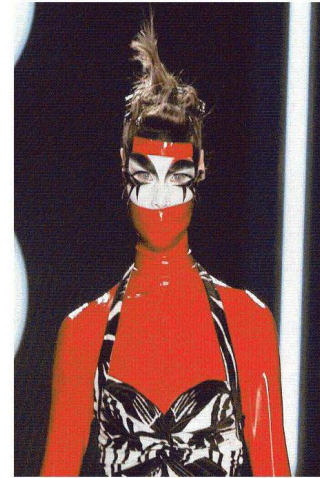
<그림 87> 2003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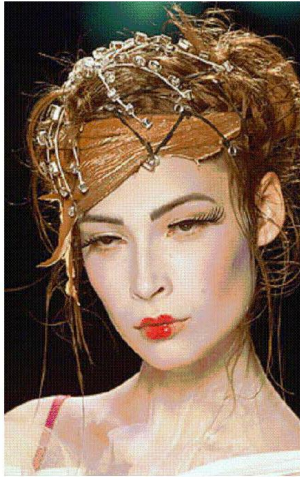
<그림 88> 2003 F/W  
크리스찬 디올



<그림 89> 2003 F/W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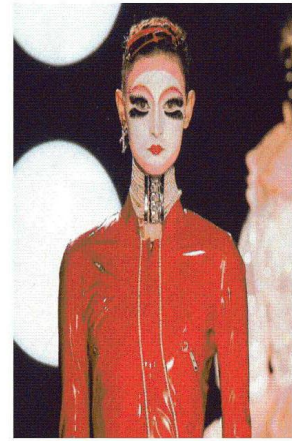
<그림 90> 2003 F/W  
크리스찬 디올



<그림 91> 2003 F/W  
크리스찬 디올CTR



<그림 92> 2003 F/W  
크리스찬 디올CTR



<그림 93> 2003 F/W  
크리스찬 디올



<그림 94> 2004 S/S  
폼무테 가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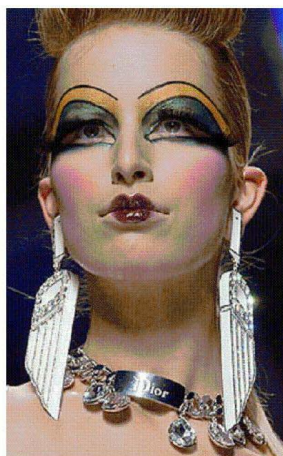
<그림 95> 2004 F/W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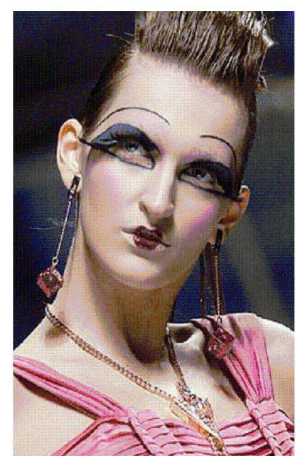
<그림 96> 2004 F/W  
크리스찬 디올



<그림 97>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그림 98>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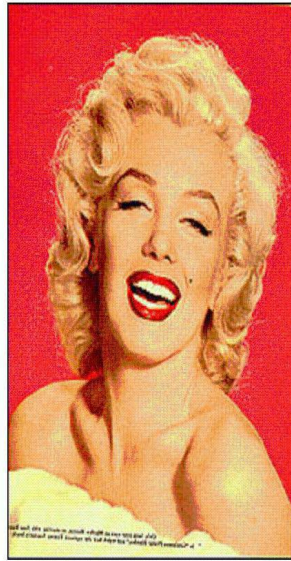
<그림 99> 2004-5 F/W  
크리스찬 디올

출처:<http://www.v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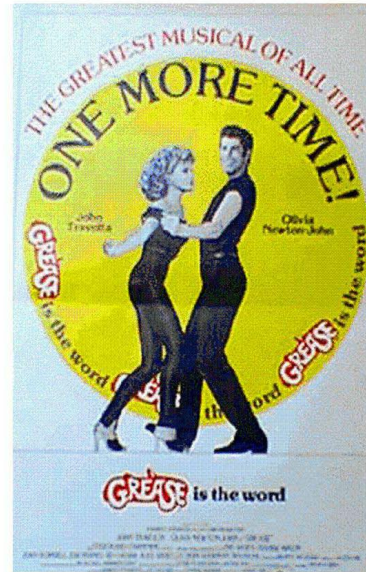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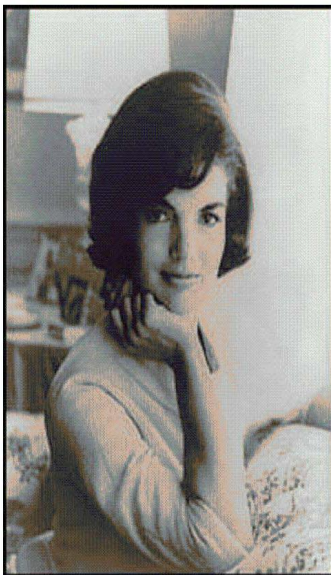
<그림100>50년대 메이크업  
'에바 가드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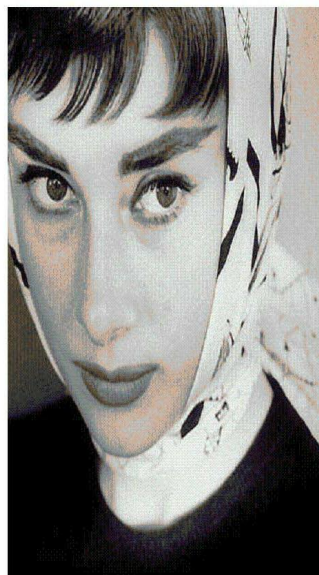
<그림101> 50년대 메이크업  
'마릴린 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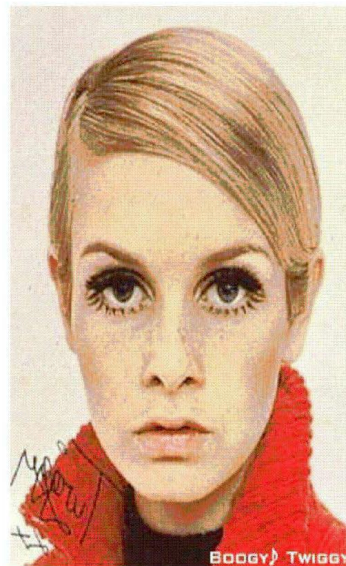
<그림102>50년대 메이크업  
영화 '그리스' 포스터



<그림103>50-60년대 메이크업  
'재키 케네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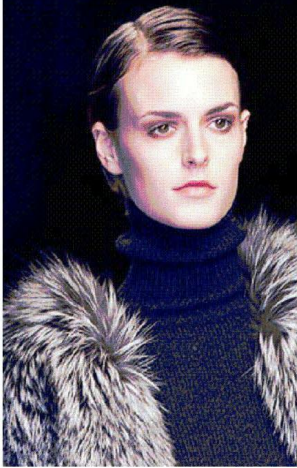


<그림104>50년대 메이크업  
'오드리 험번'



<그림105>60년대 메이크업  
모델 'Twig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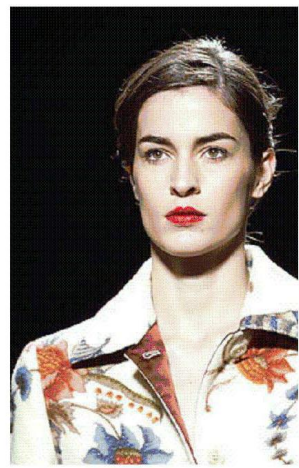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06 > 2002 F/W  
세린느



<그림 107>2003F/W  
마이클 코어스



<그림 108>2003 F/W  
캐롤리나 헤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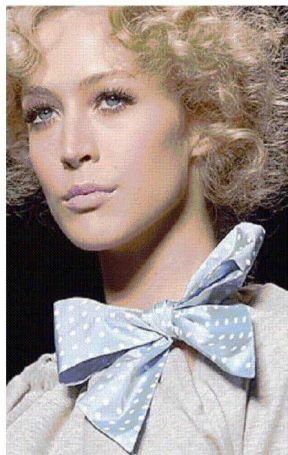
<그림 109> 2003 F/W  
캐롤리나 헤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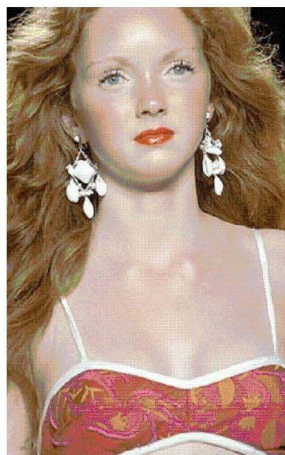
<그림 110> 2003 S/S  
다니안 본 퍼스텐버그



<그림 111> 2003 S/S  
캐롤리나 헤레나



<그림 112>  
2004 S/S Viktor & Ro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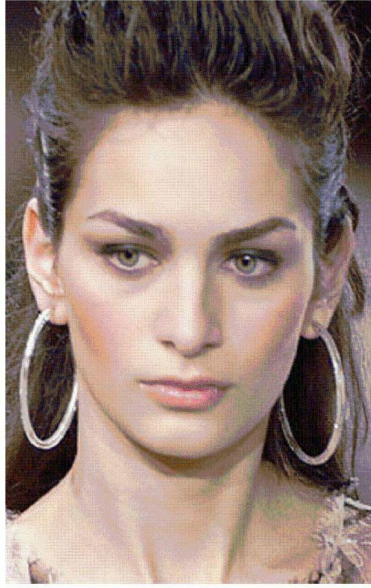


<그림 113>  
2004 S/S Anna Sui



<그림 114>  
2004 F/W 세린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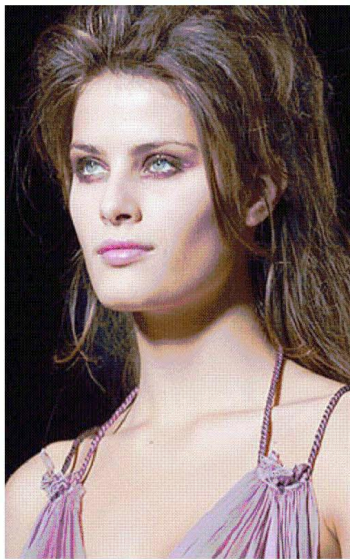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15>  
2005 S/S 샤넬



<그림 116>  
2005 S/S 크리스찬 디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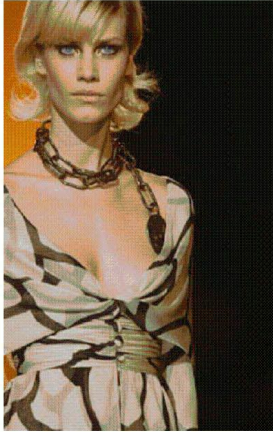


<그림 117>  
2005 S/S 알버타 페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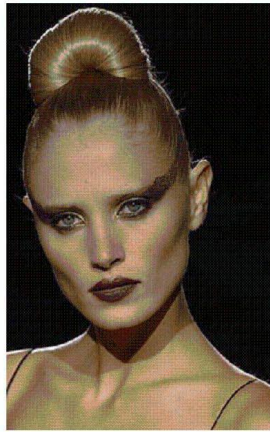


<그림 118>  
2005 S/S 크리스찬 디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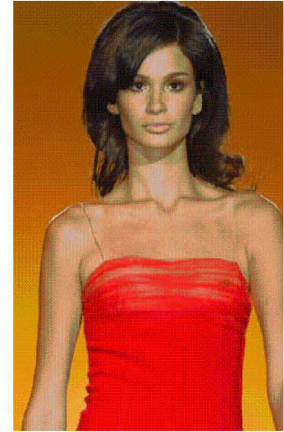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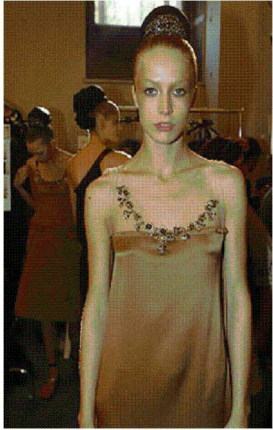
<그림 119>  
2002 S/S 발렌티노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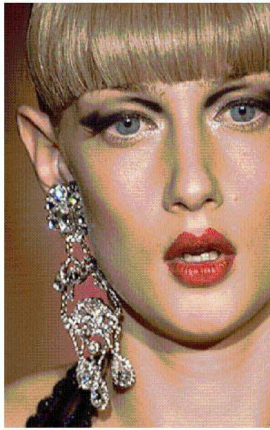
<그림 120>  
2002 F/W 발렌티노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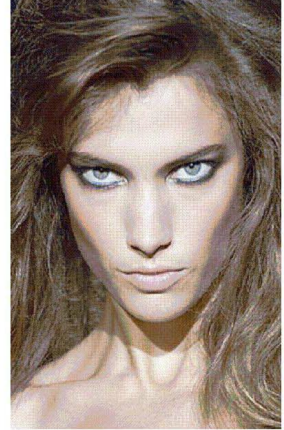
<그림 121>  
2002 F/W 발렌티노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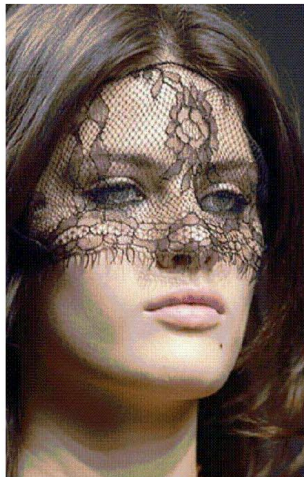
<그림 122>  
2003 S/S 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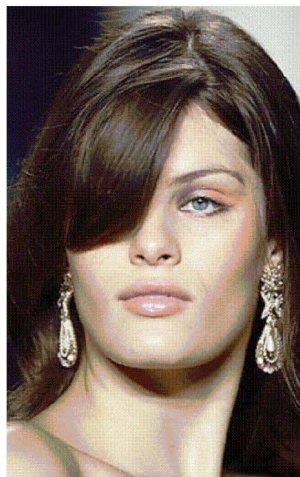
<그림 123>  
2003 F/W 발렌티노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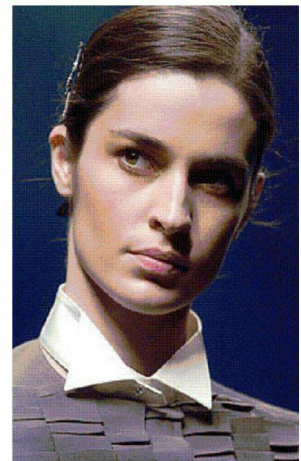
<그림 124>  
2004 S/S 로버트 카발리



<그림 125>  
2004 S/S 밀부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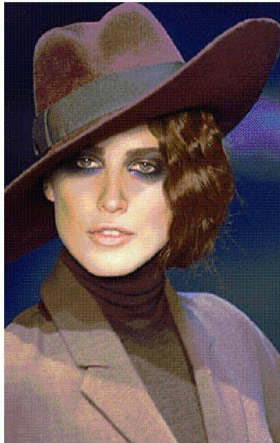


<그림 126>  
2004 S/S 량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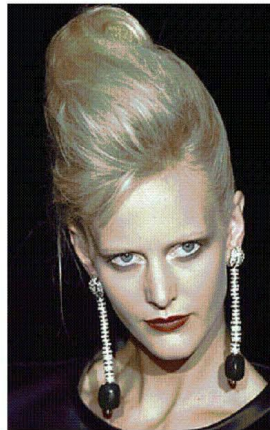


<그림 127>  
2004 F/W 량방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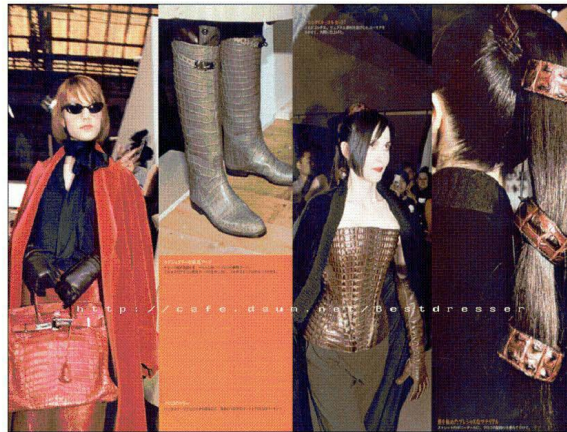
<그림 128>  
2004F/W 고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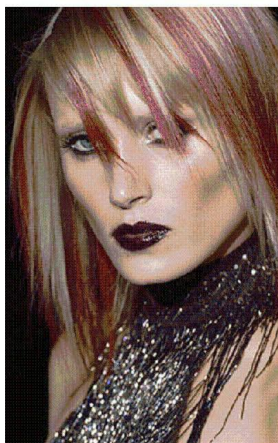
<그림 129>  
2004 F/W 발렌티노 CTR



<그림 130>  
2004 F/W 발렌티노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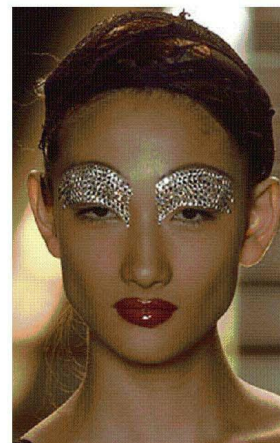
<그림 131>  
에르메스 쇼의 일부



<그림 132>  
2002 F/W 베르사체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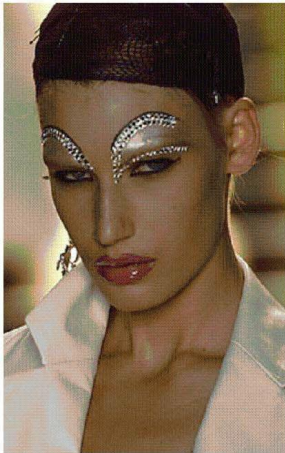


<그림 133>  
2002 F/W 고티에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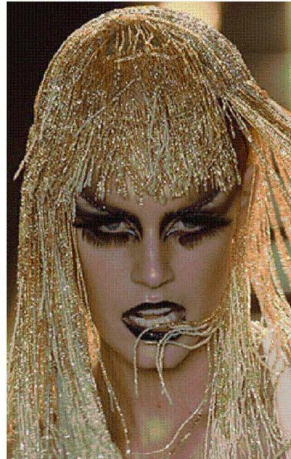


<그림 134>  
2003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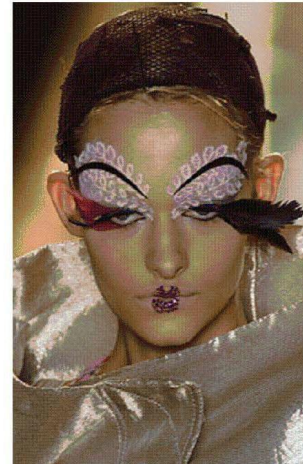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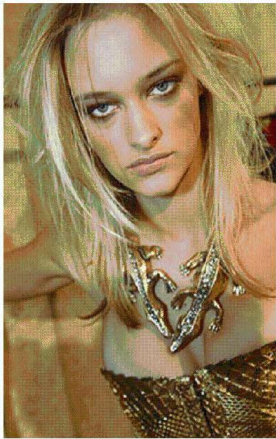
<그림 135>  
2003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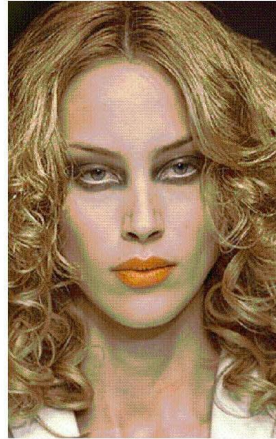
<그림 136>  
2003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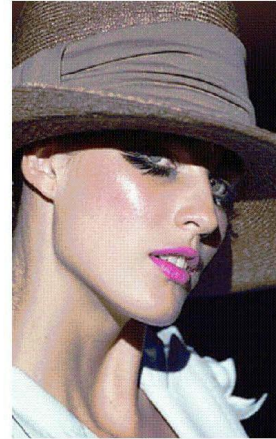
<그림 137>  
2003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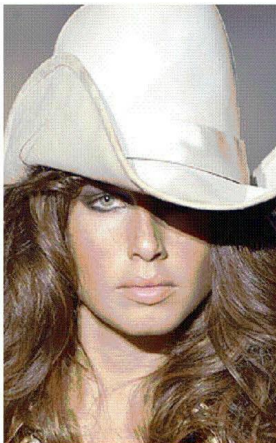
<그림 138>  
2003S/S 로베르토 카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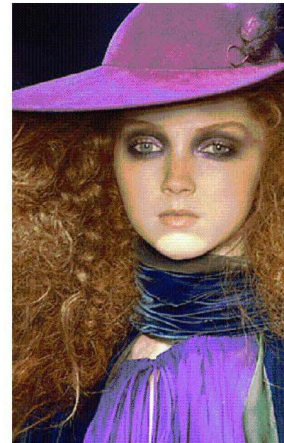
<그림 139>  
2004 S/S 부디카



<그림 140>  
2004 S/S 장 프랑코 페레



<그림 141>  
2004 S/S 로베르토 카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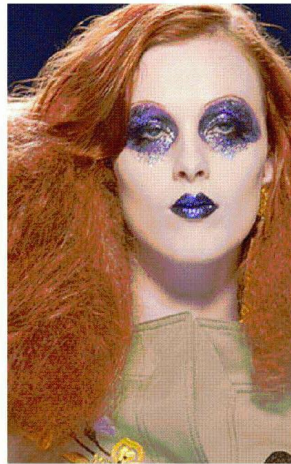


<그림 142>  
2004 F/W 장 폴 고티에 CTR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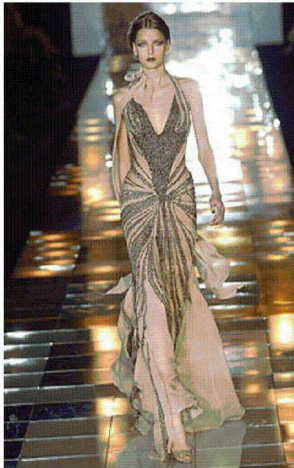
<그림 143>  
2005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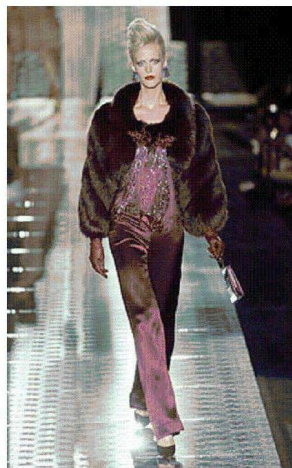
<그림 144>  
2005 S/S 크리스찬 디올



<그림 145>  
2005 S/S 베르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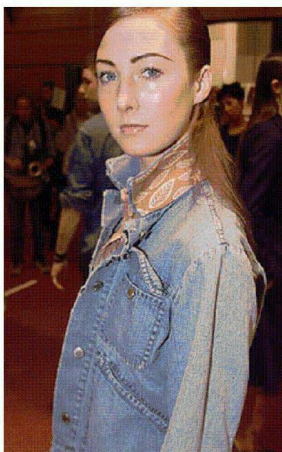
<그림 146>  
2004 F/W 엘리 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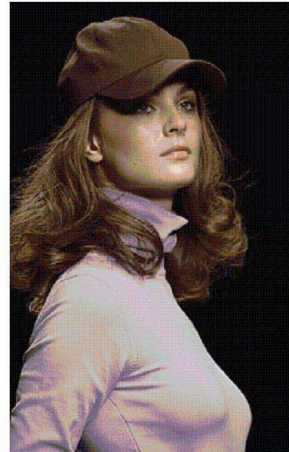
<그림 147>  
2004 F/W 발렌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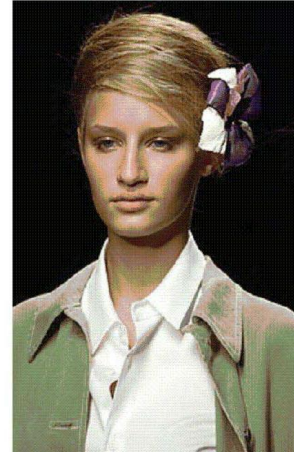
<그림 148>  
2004 F/W 소니아 리켈



<그림 149>  
2002 F/W 카사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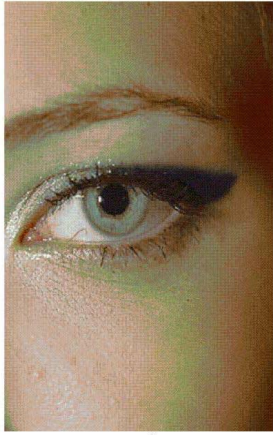


<그림 150>  
2002 F/W 미유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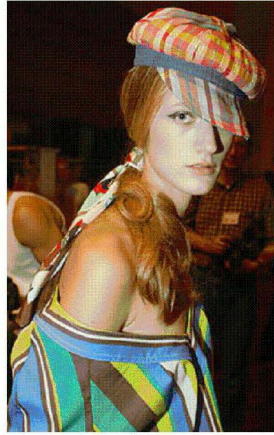


<그림 151>  
2003 S/S 미유미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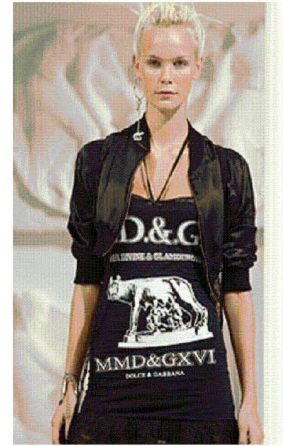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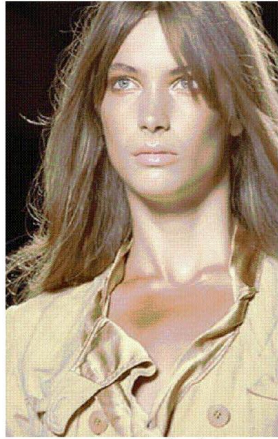
<그림 152>  
2003 S/S 까사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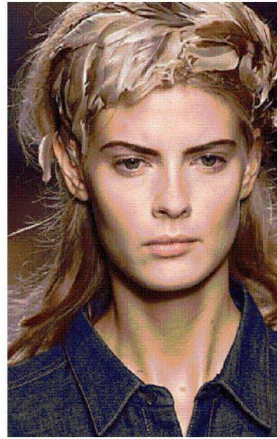
<그림 153>  
2003 S/S 까사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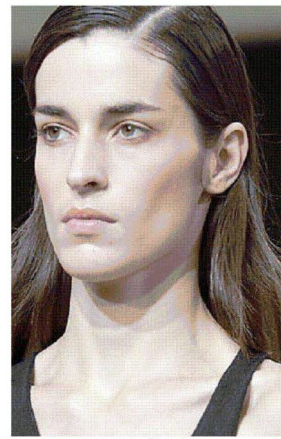
<그림 154>  
2003S/S 디 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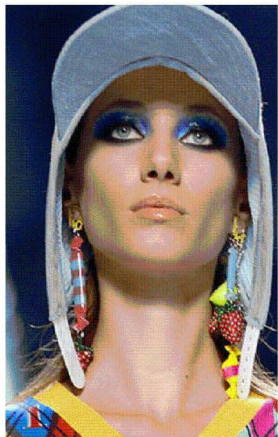
<그림 155>  
2004 S/S 도나 카란



<그림 156>  
2004 S/S 미유미유



<그림 157>  
2004 S/S 헬무트 랭



<그림 158>  
2005 S/S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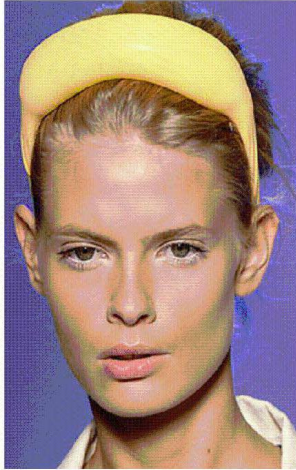


<그림 159>  
2005 S/S 질 샌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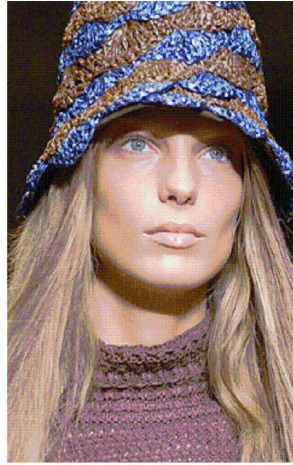


<그림 160>  
2005 S/S Zac Po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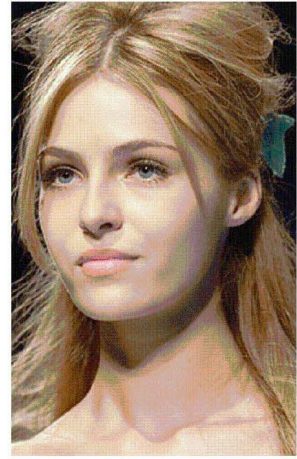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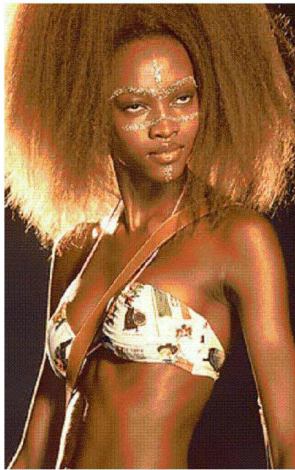
<그림 161>  
2005 S/S 세린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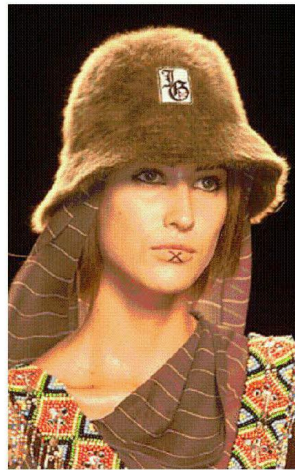
<그림 162>  
2005 S/S 프라다



<그림 163>  
2005 S/S 디 앤 지



<그림 164>  
S/S 2002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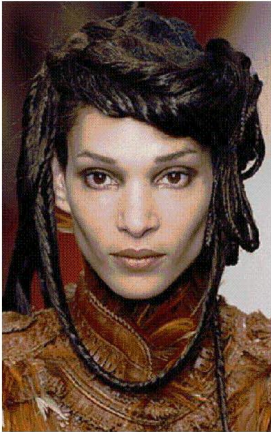


<그림 165>  
S/S 2002 존 갈리아노



<그림 166>  
S/S 2002 크리스찬 디올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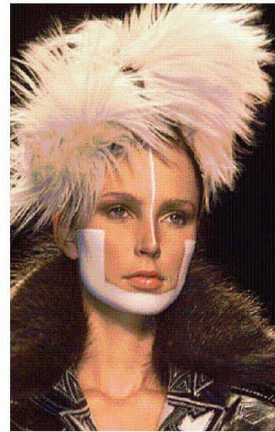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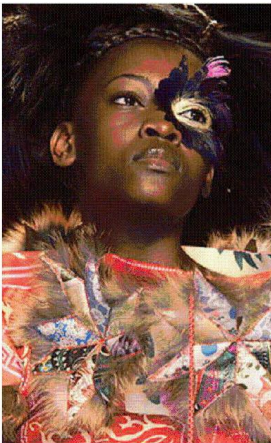
<그림167>S/S 2002  
고티에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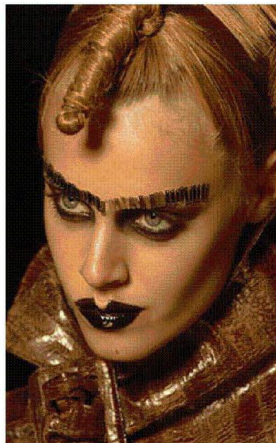
<그림168> F/W 2002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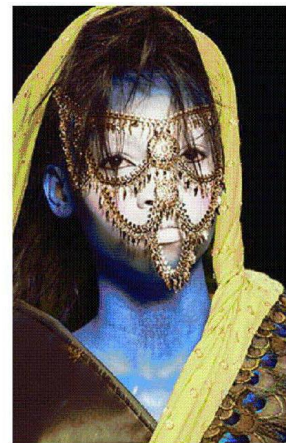
<그림169> F/W 2002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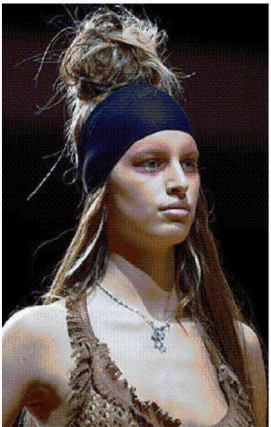
<그림170> F/W 2002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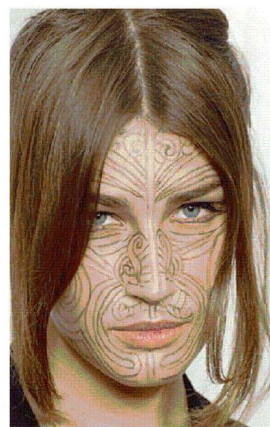
<그림171> F/W 2002  
크리스찬 디올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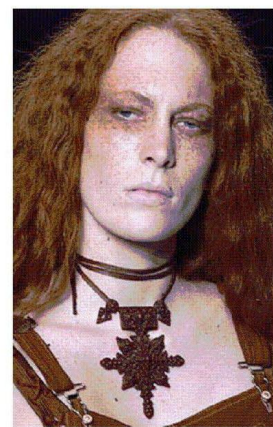
<그림172>S/S 2003  
존 갈리아노



<그림173>  
S/S 2003 장 폴 고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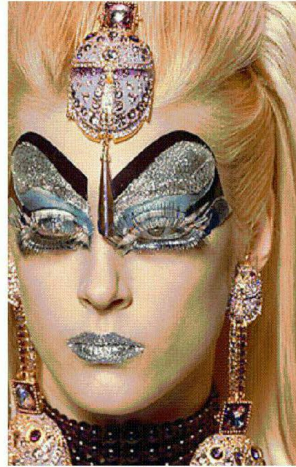
<그림174>  
S/S 2004 장 폴 고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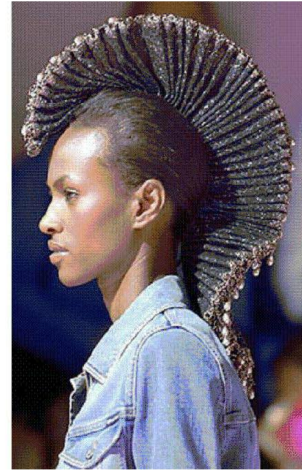
<그림175>  
S/S 2004 에밀리오 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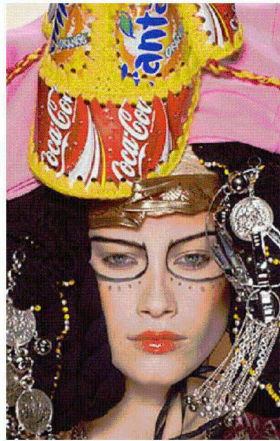
<그림176>  
S/S 2004크리스찬 디올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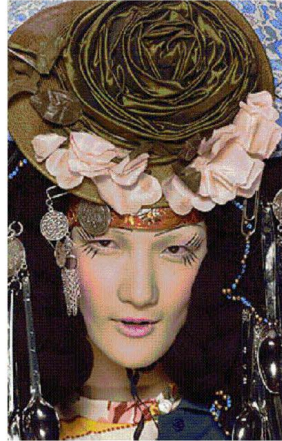
<그림177>  
S/S 2004크리스찬 디올 C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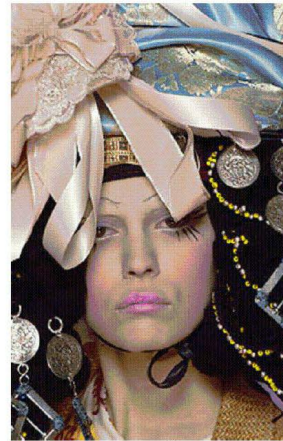
<그림178>  
2004 S/S 디 앤 지



<그림179>  
S/S 2005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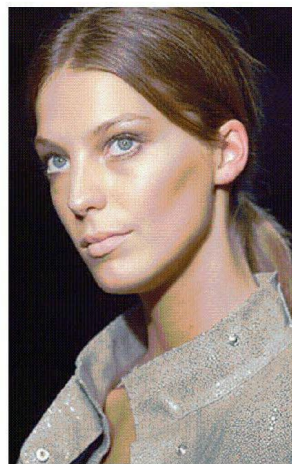
<그림180>  
S/S 2005 존 갈리아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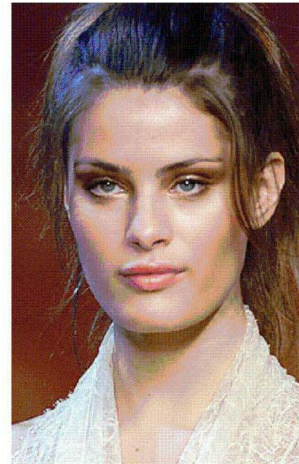
<그림181>  
S/S 2005 존 갈리아노



<그림182>  
S/S 2005 안나 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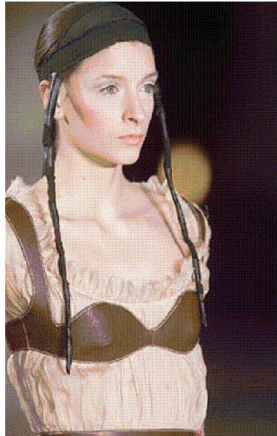


<그림183>  
S/S 2005 켈빈 클라인



<그림184>  
S/S 2005 발렌티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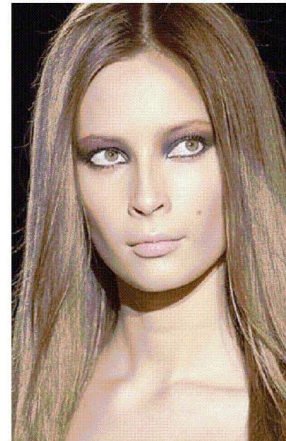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85>  
F/W2002 알렉산더 맥퀸



<그림 186>  
F/W2002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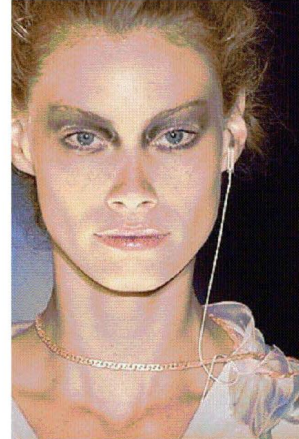
<그림 187>  
S/S2003 구찌



<그림 188>  
S/S 2003 질 샌더



<그림 189>  
S/S 2004 준야 와타나베



<그림 190>  
S/S 2004 헨디



<그림 191>  
F/W 2004 헨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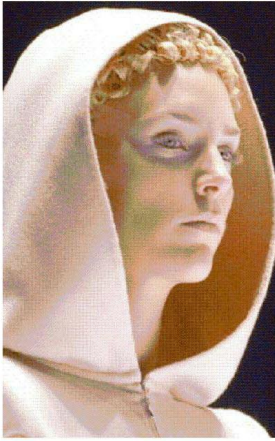


<그림 192>  
S/S 2004 요지 야마모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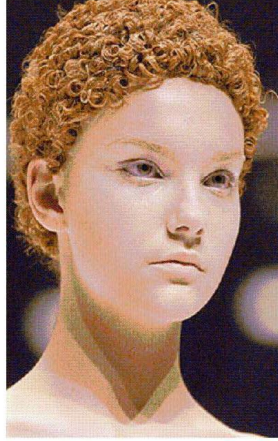


<그림 193>  
S/S 2004 헨디

출처: <http://www.vogue.com>



<그림194>  
F/W 2004 알렉산더 맥퀸



<그림195>  
F/W 2004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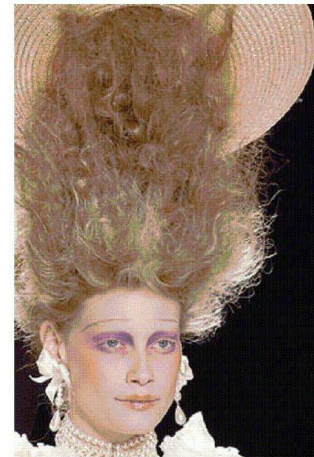
<그림196>  
F/W 2004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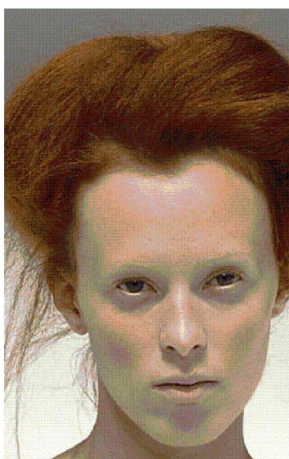
<그림197>  
S/S 2004 크리스찬 디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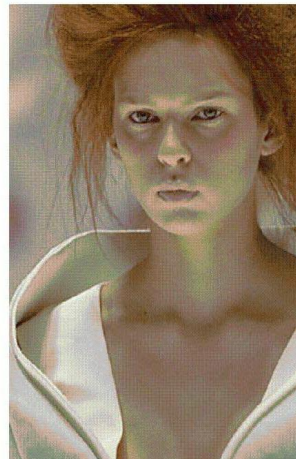
<그림198>  
S/S 2004 존갈리아노



<그림199>  
S/S 2004 존갈리아노



<그림200>  
S/S 2005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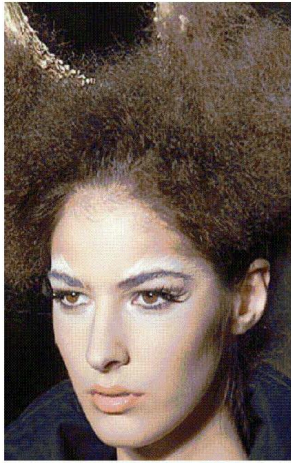


<그림201>  
S/S 2005 알렉산더 맥퀸



<그림202>  
S/S 2005 알렉산더 맥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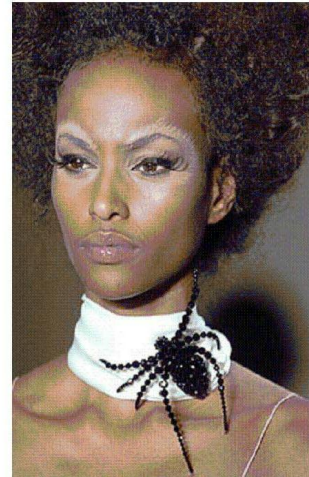
자료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203>  
S/S 2005 빅터&롤프



<그림 204>  
S/S 2005 빅터&롤프



<그림 205>  
S/S 2005 빅터&롤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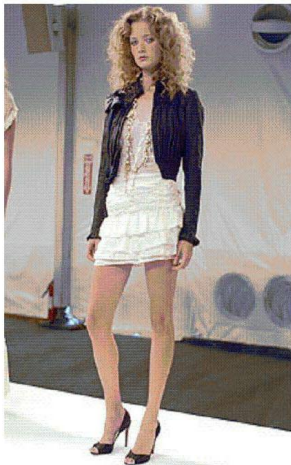
<그림 206>  
S/S 2005 오스카 드라 렌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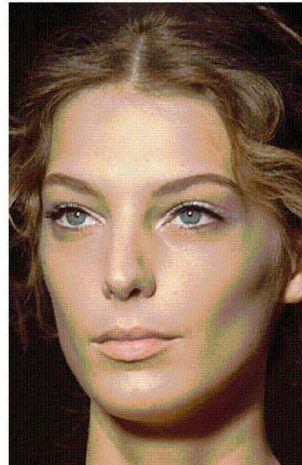
<그림 207>  
S/S 2005 켈빈 클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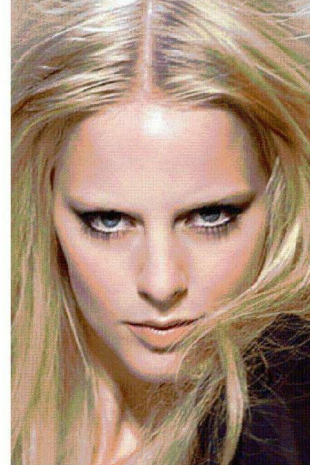
<그림 208>  
S/S 2005 구찌



<그림 209>  
S/S 2005 페리 엘리스



<그림 210>  
S/S 2005 입생 로랑



<그림 211>  
S/S 2005 응가르